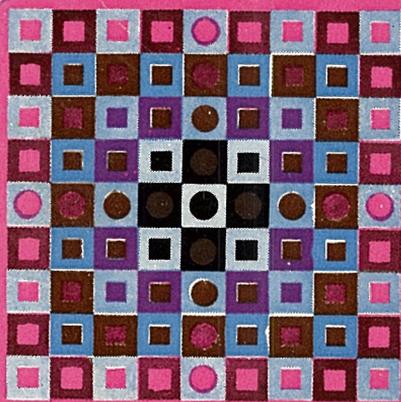


문교경북



《특집》

- 안보교육 체제강화
- 향토학교건설과 교육의사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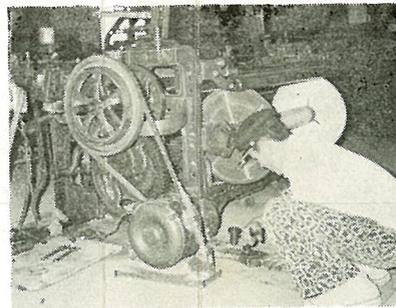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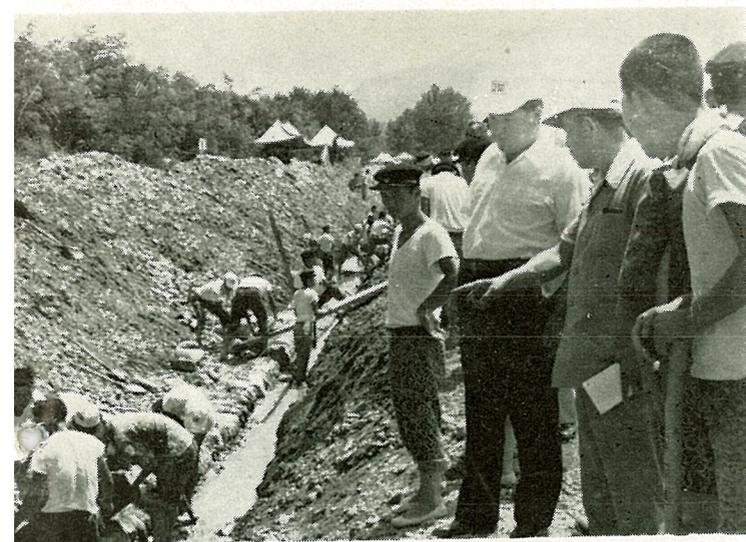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제36호

제 7 회 도내 고등학생 정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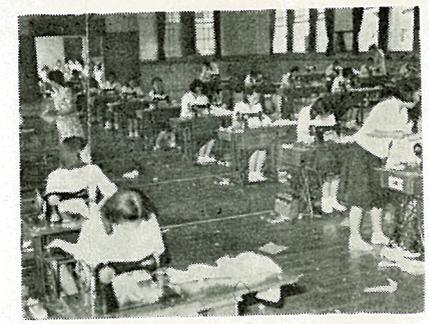


〈8.9 대구 계명대학 강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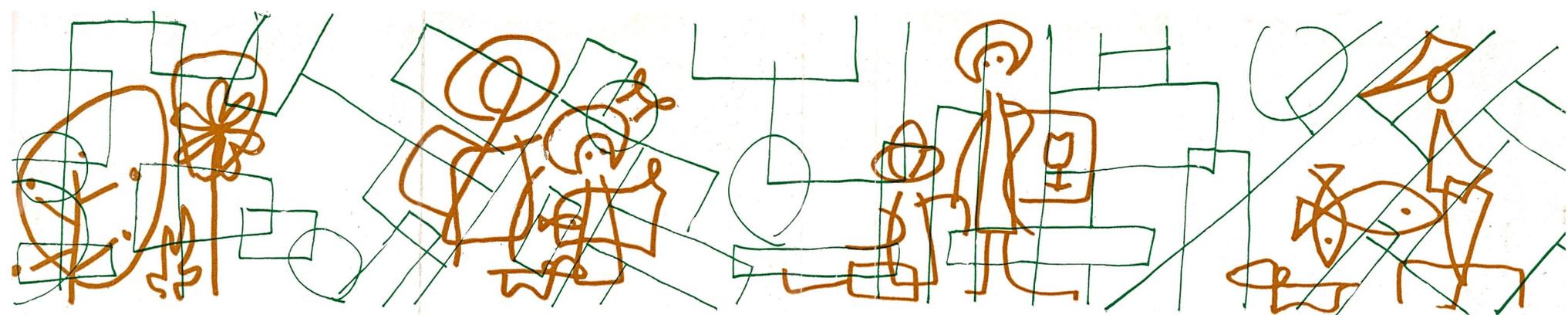
(이) (런) (일)

<왼쪽> 위 : 대구시내 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범어천)
 중간 : 고교 실기대회(농)
 아래 : 고등학생들의 제 3 사관학교 일일 입교 훈련
 <가운데> 위 : 고교 실기대회(공)
 아래 : 고교 실기대회(상)
 <오른쪽> 위 : 교원 연수원 개원식
 중간 : 고교 실기대회(가정)
 아래 : 실험학교 연구보고회



(저) (런) (일)





《문교경북》

제 36 호 <1972. 9. >

국 민 교 육 헌 장 (8)

<권두언> 승공 교육을 강화하자.....김주만...(10)

조 사 연 구

敎育工學(7).....김 규 련...(12)

敎育工學의 展望과 將來김 덕 영...(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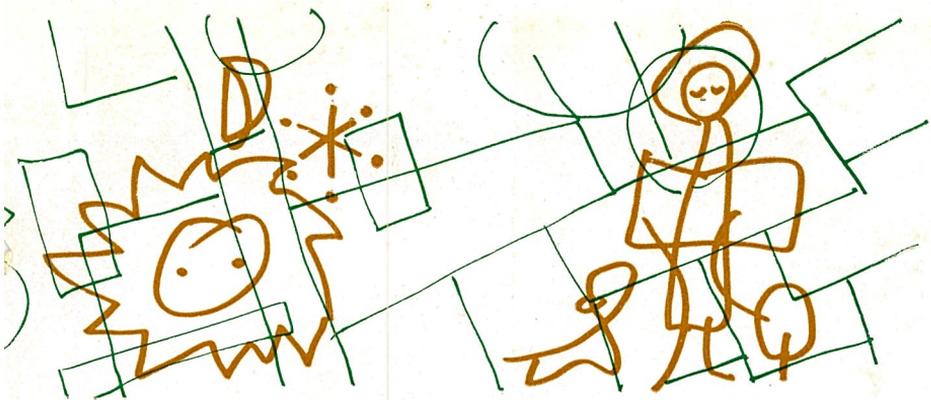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 새로운 지도 방향김 용 건...(34)

특수학급 운영의 당면 문제김 동 극...(42)

라디오 학교 방송을 이용한
— 교수 학습의 실제.....강 찬 중...(51)

특진
○ 안보교육 체제 강화
○ 향토학교건설과 교육의 사회화

고등학교 각개전투 훈련 강화책.....이 태 용...(58)
화생방 교육과 숙달시험장 설치에
— 대하여이 상 원...(66)
방공(防空)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 방법서 정 우...(77)
국기 하기식 절차에 대하여.....박 승 식...(83)
예우 교육에 대한 참고.....정 정 웅...(85)
새마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 방안서 역 석...(97)
1교 1부락 지도의 효율적인 지도
— 방법황 택 영...(106)
향약 짓기와 그 실천 방안장 현 대...(116)
마을 체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최 덕 환...(124)
학교중심 사회교육의 조직과 활동에
— 관한 연구(2)허 영 부...(131)



(지)	(도)
	피아노 學習指導法의 一考.....朴 廷 陽...(140)	
	江華修好條約에 관한 一考(1) ...吳 鶴 泰...(157)	
(자)	(료)
	心靈講座(3)曠 원...(165)	

문 예

(신)	石 佛	김 중 윤...(9)
	담 배 불	정 추 식...(177)
	<소설> 가지에 걸린 노래(3)	김 정 환...(178)
	<평론> 동심의 잔치	윤 운 강...(189)
<수기>	분교장 근무를 회상하면서	강 대 조...(193)
	교과 담임제가 시행되기를	이 동 우...(196)
	우량 도서 추천	(198)
	편집후기	(200)

국민 교육 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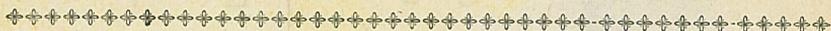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듯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문 교 1972. 9. 경 북



石 佛

김 종 윤

지곳이 눈을 감고
連일 위에 사린 涅槃

새겨온 歲月이래
자리마다 아픈 歸依

한 千年 목메어 온 날에의
차마 아픈 돌의 목숨.

風磬이 못내 울던
깊은 밤의 깊은 情恨

깨물며 흐느껴도
저승보다 먼 것인가

億劫의 立像을 불사뤼
빛어지는 저 미소.



승공교육을 강화하자

교육감 김 주 만

우리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7·4남북한 공동성명과 2차에 걸친 남북적십자사 회담으로, 새 역사의 장을 열기는 하였으나, 피차의 사상, 이념, 체제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장구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번 사태로 지나친 낙관이나 감상에 젖어 다소나마 긴장완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더 굳건한 승공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당면과제인 자립경제 건설과 자주국방의 실현 등으로, 국토통일의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더우기 국가 백년대제인 국민교육의 중책을 맡은 우리들 교육자로서는 7·4공동성명은 우리 나라의 헌법 및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목적, 방침에는 추호의 변동도 없음을 명심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장학방침을 재확인하여, 이의 구현을 위한 교육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안보교육 체제를 정비, 강화하여 교육풍토를 쇄신하고, 학원질서의 확립을 기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달성을 뒷받침할 국력배양과 총력안보 태세의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을 거국적 사업인 “새마을 운동”에 집중시켜, 정진계발과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에 대비할 “힘의 우위”를 구축하는 데 교육기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새로운 시련의 시대를 맞아 “대화 없는 대결보다 대화있는 대결”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겨레의 스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무체제와 학원내의 질서 확립, 그 밖에 면학기풍 조성에도 각별 유의함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생활태도를 승공동일에 총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첫째, 우리들의 솔선수범입니다.

국민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지닌 우리들 교육자가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경륜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야만 승공교육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교육활동을 통한 승공정신의 강화입니다.

북한에서는 철모르는 탁아소의 어린이에게까지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들도 사리에 입각한 올바른 승공정신을 각급학교의 전교육과정을 통하여 아동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실천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 승공정신이 바로 멸공정신이 되는 것이며, 총력안보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셋째, 시사교육의 강화입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사회추세에 추호도 등요되거나 뒤떨어짐이 없이 확고한 국가관, 교육관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정신 함양에 주력하는 것이 시사교육의 주안점이며, 또한 이 시사교육으로 주체성과 자주성의 함양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넷째, 체력증강입니다.

모든 일의 성과는 우리들의 정신과 체력이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진한 체력은 국가 방위의 기초가 되고,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급학교에서는 아동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에 각별 유의하는 한편, 보건 체육시설의 재정비와 확충에도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이상으로 승공교육에 대한 몇 가지 주요시책과 유의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승공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우리들 교육자는 더한층 굳은 결의와 각오로 빈틈없는 총화체제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教育工學(7)

(英語學習中心)

김 규 련

〈도교육연구원〉

〈目 次〉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序 二. 教育工學의 發達 三. 教育工學의 一般的 概念 四. 教育工學의 理論的 背景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情報科學 2. 行動科學 3. 人間工學 4. 理工學 5. 教育經濟學 五. 教授 學習의 教育工學的 接近을 위한 基本的인 생각. 六. 教育工學의 實踐(英語學習中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學習指導觀의 轉換 2. 教授와 學習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言語의 本質 4. 外國語教授의 一般的 原理 5. 言語學習에 있어서 文字法, 語形法, 音聲法의 相互關係 6. 言語實驗室(Language Laboratory)의 設置 7. 簡易 L, L의 開發 8. 反應分析機(Response Analyser) 및 其他 機器의 附加設置 9. 軟質資料의 意圖的인 活用 10. 教授·學習過程의 段階 11. 教授·學習過程의 工程化 12. 教授·學習의 實際(本號) |
|--|---|

a. 教授 學習의 實際

前號에서 例示한 圖式은 特定 單元의 特定校時에서 있어야 할 flow chart의 한 類型에 불과 하다. 여기에서는 教室에서 實際로 教授·學習 活動을 하는 內容을 前號의 flow chart를 中心으로 說明하려고 한다. 그러나 教授 工學의 接近 方法에 의한 教授·學習 活動의 模型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目的이므로 必要에 따라서는 前號의 flow chart에 들어 있지 않는 教授·學習 活動의 內容을 說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Greeting

Greeting은 從前과 같이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class.”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등 short talking을 겸해서 한다. 그러나 calling the roll은 Response Analyser로 3,4초 내에 check해 버린다. 또 學習 密度를 높이기 위하여 singing songs는 英語 授業時마다 하지는 않는다.

ii. Review

復習은 事前에 主任 教授의 指示에 따라 補助教師(或은 L.L室 補助員)가 準備 또는 作成한 復習 資料(chart, 그림, OHP 資料, tape, workbook등)에 의하여 Greeting이 끝나는 즉시로 시작된다.

前號의 teaching plan에 의하면 復習 計劃이 key sentence : "I walk to school every morning." "I work in the garden every day." 등의 Listening과 Repeating으로 되어 있고 또 "I get up at six o'clock in the morning."의 주어 "I"를 He 或은 She로 substituting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復習用 錄音教材를 Original tape에서 복사 편집해서 별도로 準備하고 substitution drill은 다음과 같은 chart를 만들어 利用한다.

Ex : 1

Substitution Table Chart

Variable	Fix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get up ◦ You get up ◦ He gets up ◦ She gets up 	at six o'clock in the morning

iii. Checking Review

復習도 學習 定着度를 높이기 위하여 Repetition Drill→Checking→Feedback→Instant Reinforcement식으로 教授·學習의 工程을 通過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細密한 事前 準備가 必要하다. 準備物은 復習 內容에 따라 간단한 program 教材, Pop Quiz問題, OHP 資料, 錄音 資料 등으로 Response Analyser와 連結해서 checking 한다.

iv. Presentation of New Material

◦ Oral introduction

導入은 未知의 學習 內容을 經驗하는 과정으로서 學習者의 學習 意慾(Learning readiness)과 學習 動機(Motivation) 및 興味(Interest)를 유발시키고 學習 內容의 概念形成을 正確하게 傳達하는 것이 그 目的이라 하겠다. 그래서 먼저 本時 學習의 具體화된 目標와 學習 要素를 chart化 해서 學生들에게 明示한다. 그리고 New word, New Pattern의 Recognition 段階로 導入한다.

◦ New Words Recognition

New Words의 meaning은 Defining sentence에서 기습의 構文과 Situation의 指示로 理解되어야 한다. Situation의 指示는 pictures나 OHP로 한다. 기습의 構文에 의한 New Words의 Recognition이 끝나면 flash card를 活用하면서 New Words의 sound, sound contrast, word-form을 指導한다. 學生은 教師의 Model에 따라 Choral, Half-choral, Row-choral순서로 imitating하고 또 Native Speaker의 Model pronunciation을 Earphone으로 듣고 發音한다.

그리고 New words의 phonemic pairs contrast에 있어서 Consonant clusters 中心의 Pairs Contrast Drill은 特別 關心을 가지고 強調해야 한다.

flash card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使用한다.

Fx : 2

eat-read-teach (i:)

(i :)	(e)
te <u>a</u> ch	br <u>e</u> akfast
r <u>e</u> ad	br <u>e</u> ad

(ə :)	(ɔ :)
w <u>o</u> rk	w <u>o</u> lk

단 수	복 수
dish	dishes
book	books

◦ New Pattern의 導入

New Pattern의 導入은 學生에게 새로운 言語 構造의 組織을 Hearing해서 Recognition 시키고 speaking 시키므로서 production 하게 하는 것이므로 文字面보다 音聲面에서 그 指導의 key point가 앞서 치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New Pattern의 導入은 pictures나 OHP 資料를 利用해서 situation을 提示하면서 教師가 口頭로 spoken English or Easy English로서 學生이 理解하기 쉬운 基本 文型, 기습의 文型과 contrast하며 導入하는 것이 効果의이다. 本時 授業에서는 教師가 picture card나 OHP를 가지고 situation을 提示하면서 “walk-walking” “I walk to school” “I am walking to school.” “I walk to school every mor-

ning.” “I am walking to school now.” 식으로 口頭로 Repeating하면서 Recognition을 促進시킨다. 必要에 따라서는 母國語로 Explanation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New Patterns의 Recognition(理解 認知)이 되었다고 判斷되며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v. Aural-Oral Drill

Oral introduction의 단계에서 Defining Sentence를 통하여 New Words, New Patterns의 構造와 meaning의 理解가 끝나면 Aural-Oral Drill 단계에 들어간다. Aural-Oral Drill 단계는 Mimicry-Memorization step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Imitation-Repetition을 통해서 Ear habit, Mouth habit의 訓練을 中心으로 하고 Correct Pronunciation(正確한 發音) Word-Order(語順) Grammatical agreement(文法上的 호응) 그리고 other factors of sentence structure(기타 文構成 要素)에 대한 言語 學習의 基礎가 綜合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Aural-Oral Drill을 위해서는 事前에 다음과 같은 準備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學習 教材를 Item-centered(項目中心)보다 Structure-centered(構造中心)에 依하여 계통적으로 文型을 分類하고 drill에 알맞게 배분한다. 둘째, Drill에 알맞게 배분된 key sentences (or defining sentences)를 chart 或은 work book로 提示한다. 셋째, 錄音 tape가 Listening Repeating 할 수 있도록 準備되어야 한다. 넷째, Situation 提示를 위한 其他 資料가 組織的으로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key sentences를 Contrast 시켜 構造의 steps를 variation시키는데 必要한 chart 가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Aural-Oral Drill 指導 要領을 들면 (a) Earphone으로 문장 전체를 2회씩 듣게 한다(workbook나 教科書를 보지 않고). (b) 教師가 Console table에서 Tape-recorder의 instant stop을 조절하여 One sentence씩 stress, intonation, words specify, attention pointer를 指摘하면서 choral double repetition 要領으로 읽기를 1—2회 반복시킨다. (c) Main speaker(Earphon을 20분 이상 계속 끼고 있으면 귀의 피로가 빨리 온다)를 통해서 Clearly, Rapidly, Loudly의 Motto를 유지하면서 전문을 choral double repetition 要領으로 2—3회 읽는다, (d) 教師가 提示하는 pictures, word card를 cue로 하여 Choral, Half-Choral, Row-choral, Individual 순서로 speaking 시킨다. (e) Hearing, Repeating을 통해서 sound speech의 訓練이 끝나면 지금까지 學習한 內容을 定着시키기 위하여 Check of understanding의 要領으로 問答을 한다. “Are you studying English?” “Yes, I am studying English.” “Are you walking to school now?” “Yes, I am walking to school now.” 이런 식의 Teacher’s questions and pupil’s, answers를 Choral, Half-choral, Individual 순서로 한다. 이렇게 해서 New patterns에 대한 Ear-habit, Mouth-habit가 充分히 drill되면 다음 코-스로 들어 간다.

vi. Grammatical Structures Drill

本時 教材의 重要한 點을 추려서 重要 構文을 學習 材料로 하여 Aural-Oral Drill 要領으로 學習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Table chart가 事前에 準備되어야 한다.

EX : 3

Substitution Table chart

Fixed	variable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now. church on foot now. the country by train now. school by streetcar now.

Fixed	variable
He is giving	{me a pencil. a pencil to me. us the paper. the paper to us.

EX : 4

Bilateral Pattern chart

Key sentence:	He is working in the garden.
(1) What is he doing?	He is working in the garden.
(2) What is she doing?	She is washing the dishes.
(3) What are you doing?	I am writing a letter.
(4) What am I doing?	You are opening the window.

以上과 같은 Table chart를 가지고 Grammatical Explanation과 Aural-Oral Drill이 끝나면 Selection step(問答)으로서 간단한 Conversation을 한다. 이 Conversation은 New basic pattern과 Substitution, 그리고 Bilateral Pattern을綜合해서 Teacher's question & pupil's answer와 pupil's question & pupil's answer形式으로 group단위로 한다.

vii. checking

本時 學習의 定着度를 測定하기 위하여 重要한 學習 要素를 Aural Comprehension과 Oral Production으로 나누어서 checking 한다. Aural Comprehension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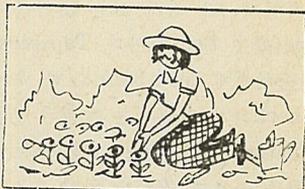
check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事前準備가 必要하다. 첫째, 問項의 situation을 提示하는 그림이나 或은 OHP 資料가 意圖의으로 配列 準備되어야 한다.

EX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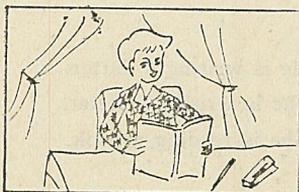
Ex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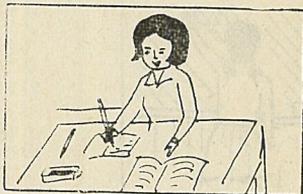
나는 문을 열고 있다



나는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다



나는 글을 읽고 있다

둘째, 다음과 같은 內容의 Aural comprehension check用 錄音 tape가 準備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면서 Earphone에 들리는 세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그림의 內容과 같은 말인지 그 番號를 회답기 番號에 맞추어 누르시오.

잘못 듣고 다시 고쳐서 회답기 번호를 누를 때는 ○번을 누른 다음에 다시 그 번호를 찾아 누르시오. 자 그러면 첫째 그림입니다. 1번 I am going to the door now. I am going to the door now. 2번 I am opening the door now. I am opening the door now. 3번 I am looking at the door now. I am looking at the door now. 두번째 그림입니다. 1번 I am working in the garden now. I am working in the garden now. 2번 I am walking to the garden now. I am walking to the garden now. 3번 I am playing in the garden now. I am playing in the garden now. 세번째 그림입니다. 1번 I am writing a letter now. I am writing a letter now. 2번 I am opening the book now. I am opening the book now. 3번 I am reading the book now. I am reading the book now. 네번째 그림입니다. 1번 He is writing a letter now. He is writing a letter now. 2번 You are writing a letter now. You are writing a letter now. 3번

I am writing a letter now. I am Writing a letter now.” 教師는 Response Analyser를 操作해서 feed back 表示板을 通하여 各々 feed back함과 同時 正誤 答率과 誤答傾向을 把握하여 다음 段階에서 補完할 準備를 한다.

다음으로 Oral Production인데 이것은 situation을 提示하는 그림을(或은 글)보 고 기습의 文型에 따라 Oral composition(저 학년의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speaking은 어렵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多人口 學級에서는 비록 A-A-C type(學生 Booth 마다 Taperecorder가 있다)의 L.L이 있다 하더라도 同時 에 各々 全員에게 feed back을 할 수가 없으므로 授業中의 간단한 Oral Production을 check하기 위해서는 次善의 方法을 쓴다.

즉 Situation을 提示하는 그림이나 글을 3지 選擇型의 問項과 同時에 보여 주면 서 回答器를 누르며 答하게 한다.

Ex : 6



그녀는 글을 쓰고 있다.

- ①번 He is writing a letter.
- ②번 She is writing a letter.
- ③번 She is reading a book.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 ①번 She is studying English.
- ②번 He is studying English.
- ③번 She is reading a book.

또 writing 指導가 끝난 후라면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Oral production 能力을 check하기 위한 次善의 方法을 쓸 수도 있다.

EX : 7

- (1) What is he doing? (He _____ the radio now.)
듣고 있다.
- (2) What are you doing? (I _____ breakfast now.)
먹고 있다.

이상과 같은 Aural Comprehension과 Oral Production 능력을 알아 보기 위한 간단한 test는 學生用 問題紙나 答紙를 別送로 만들 必要가 없다. chart에 쓰거나 그러저 黑板에 提示하면서 答紙 대신에 學生用 回答器에 “보턴”만 누르게 한다.

viii. Consolidation

Clearly, Rapidly, Loudly의 Motto를 유지하면서 教科書를 보고 本時 教材 part 1에서 part 4까지 읽는다. 그리고 前段階의 Aural comprehension과 Oral production의 checking에서 들어난 欠損點을 다시 Drill 한다. 다음으로는 本時 學習의 目標와 學習 要素를 再確認 한다.

ix. assignment

本時 指導案에서는 writing을 家庭學習으로 하고 있는데 本單元の 學習 指導 計劃의 時間 配定에 있어서 writing drill의 時間이 마련되어서 sound drill이 끝나면 Eye, Mouth에서 Hand의 文字 Drill이 있어야 한다. 저술의 편이상 여기서 writing 指導의 要領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 New words의 writing 指導

flash card를 事前에 提示하고 1회씩 보인 다음 教師는 口頭로서 新語를 하나씩 부르고 쓰게 한다. 이 writing drill은 New Word에 제한시켜 writing test를 한다.

◦ L.L에 의한 writing drill

Earphone을 通하여 듣고 쓰게 한다. 우선 1~3회씩 듣게 한후 받아 쓰기를 한다. 이 drill은 어려운 Test이므로 整理 段階에서 하는 것이 좋다.

◦ Rewriting drill

flash card에 기재된 words를 key words로 定하고 1회씩 보인 다음 기습의 文型을 口頭 導入하여 choral Repetition을 1~2회 시키고 나서 그 key words를 內容으로 하여 기습의 文型을 쓰게 한다.

writing를 家庭 學習으로 宿題를 낼 때는 學習量과 學習 効果 그리고 feed back을 위한 結果 處理 方法을 감안해서 具體的으로 計劃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1) 李鍾洙 共著：英語 學習 指導法(文豪社 1962) p.272.
金東成

- (2) 李榮德：教育의 過程(培英社 1969) p.294.
- (3) 森三郎：中學生의 英語(學生社, 東京 1968) p.p267—293.
- (4) 李榮德：前掲書 p.246.
- (5) 有光成德：教育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視聽覺 教育 vol 24, 日本 1970.8) p.42.
- (6) 韓國 行動 科學 研究所：完全 學習 프로젝트. p.22.
- (7) 秋田縣 旭川小學校：教育工學 導入による 指導法の開發(明治圖書 1970, 東京) p.59.
- (8) 경례 여자 중학교：英語科 研究報告書 (1971) p.52.
- (9) Fries, C.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56.
- (10) Pooley, Robert C : Teaching English Grammar, Appleton-Century crofts, Inc., New York 1957.
- (11) Stevick E.W.; Helping people Learn English. Abingdon, New York. 1955.
- (12) Allen, W.S.; Living English speech. Longmans Green, 1954.
- (13) Black N.F.; English for the Non-English. Regina Book shop Ltd. Regina. Canada. 1952.
- (14) Handschin, C.H.; "Modern Language Teaching." World Book Co. New York.1940.
- (15) Coleman, A.; Experiments and studies in Modern Language Teaching. Univ. o Chicago press, 1934.

양심은 인간의 친성한 본능이다. 그리고 양심은 영원한 하늘의 소리가
며 총명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믿음직한 안내자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인
간을 하나님과 닮게 하며 선과 악에 대해 과오를 범할 수 없게 하는 심판
자인 것이다.

<루소>

그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다. 나라도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
다라는 소리를 결코 하지 말라. 이 따위 도덕은 쓸데없는 도덕이다. 이런
것은 없어도 나는 살아 갈 수 있다 라는 말도 결코 하지 말라.

<조오지·엘리어트>

教育工學(完)

教育工學의 展望과 將來



김 덕 영
〈대구 동중 교감〉

1. Hardware System과 Media機能

前回까지는 學習形態論에 關係해서, 學習과 教授活動의 本質은, 情報의 傳達의 system에 關係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해 왔다. 卽, 學習者는 어떠한 形態로서 外部로 부터 오는 學習刺戟을 受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어떠한 形態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學習形態의 問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學習刺戟, 卽, 情報가 傳達된다. 情報가 傳達되는 system이라고 할 때에는, 卽 communication의 level을 問題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情報」라고 하는 말의 正確한 意味와 定義에 關係해서는 앞에서 「教授理論에의 情報理論의 接近」속에서 詳細하게 말한 바 있으나, 要컨대 어떤 通報가 주어졌을 때에 그 通報가 주어짐으로써 그 通報가 주어지기 前의 「曖昧性의 程度」가 減少될 때에 그 通報는 비로소 어떠한 情報를 가지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學習情報라고 하는 形態로서 생각할 때에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

「學習情報」라고 하는 것은 좀더 具體的으로 말할 것 같으면, 學習刺戟이며 教材인 것이다. 教材는 學習해야 할 情報를 가지고 있다. 卽 이 學習情報는 學習者에게 顯示되고 學習者 속에 들어가서 그 以前의 「曖昧性의 程度」가 引下되는 것과같은 形式으로 處理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形式으로 學習情報가 處理되었을 때에 學習者의 心理過程으로서 「아, 이제 알았다」 「理解할 수 있다」 「思考方法에 變化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過程이 成立되는 것이다. 따라서 學習情報가 이러한 形式으로 處理되지 않는 境遇에는 學習情報는 情報로서의 價値를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如何히 해서 最初의 學習刺戟을 顯示하는 가 하는 것이 決定的인 重要性을 가지게 된다고 하겠다.

어떠한 學習刺戟을 (software system의 問題), 어떠한 communication level로서 (教授—學習 system의 問題), 어떠한 方法과 媒體 (media)에 依하여 (hardware system의 問題), 傳達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 教育工學에서는 論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번 더 가니에(Gagné, 1965)가 말한 學習의 成立條件이라고 하는 것을 想起해 보기로 하자. 卽

- (1) 刺戟의 提示
- (2) 注意와 學習者의 活動의 方向提示
- (3) 豫想되는 行動을 爲한 model의 提供
- (4) 外的인 契機의 提供
- (5) 思考方向을 誘導
- (6) 知識의 轉移를 일으킨다.
- (7) 學習의 評價
- (8) Feed의 提供

이에 關해서는 이미 前回에서 說明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러한 事項들이 어떠한 媒體(media)에 依하여 行하여지는가에 對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었다. 이것은 이러한 여덟 가지의 學習成立要件을 具體的으로 어떠한 方法으로 充足시키는가 하는 具體的인 問題와 關聯이 있는 것이다. 이에 關하여 생각을 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學習形態論 속에서 授業 system의 subsystem으로서, (1) 教授system (2) software(教材) system, (3) 教育機器system(hardware system), (4) 學習system의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것을 想起해야 하겠다. hardware, software라고 하는 用語는, 近來 거의 一般的으로 使用해 오고 있기 때문에 說明 없이 使用해 왔으나, 元來는 hardware라고 하는 用語는 電子計算機의 本體와 이것에 附隨되는 關聯機械를 總稱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最近에 와서는 總括的으로 教育機器, 一般을 가르키는 것으로 使用되어 왔었다. 한편으로 software라고 하는 用語는, 電子計算機의 本體以外的 系統에 對해서 使用되어 온 것이었으나 이것도 最近에 와서는 廣義로 되었으며, tape, card, program 解釋되게 教育機器에 對應하는 program 또는 教材에 對해서도 software라고 하는 用語가 使用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教育工學에 關한 지금까지의 論述가운데에서 教育機器의 種類나 內容에 關해서 지금까지 別로 이야기한 바 적었던 것에 對해서 異常하게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教育 속에 「教育機器」를 導入하는 것이, 教育工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誤解를 避하기 爲하여, 意識的으로 教育機器의 內容이나 特性에 關한 것을 極力 避해 왔다. 따라서 「教育的 機械化」라고 하는 用語는 不適當하다고 하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 왔던 것이다. 筆者로서는 一貫해서 學習行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問題를 中心으로 해서 이야기해 왔을 것이다.

教育工學의 中心課題는 教授와 學習에 關한 問題를 解明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機器들은, 學習의 效率化에 關한 手段이긴 하지만 目的은 아니라는 것이 自明한 理致인 것이다. 이 點을 絶對로 誤解하지 않기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授業 system속에서 하나의 subsystem으로서 hardware·system을 定着시키고, communication過程으로서의 授業 過程 속에 hardware가 어떻게 媒體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가를, 考慮해 가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이 때에 勿論 最初에 말한 學習의 成立要件에 hardware가 어떻게 作用하는가 하는 것이 關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hardware라고 불리어지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機能面으로 보아 크게 다음과 같은 三種類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視聽覺(AV)機器, (2) teaching machine (TM), (3) 集團反應裝置(response analyzer)

이들 세 가지는 機能的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注意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더 第1稿에서 말한 「教育工學의 成立과 教育狀況」의 時點에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第1稿 속에서 筆者는 教育工學의 源流가 프로그램 學習과 teaching machine에 있다고 말하였다. 第1稿 속에서 確認된 것은 傳統的인 視聽覺教育의 흐름속에 相異한 學習理論에 立脚한 프로그램 學習이 흘러들어 갔다는 事實인 것이다. 教育 media라고 하는 觀點으로부터 볼 것 같으면, 所謂 從來의 視聽覺教具에 對하여, 自動化裝置로서의, teaching machine이 登場했던 것이다. 第1稿 속에서 筆者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었다.

「1950年代의 末期로부터 1960年代에 걸쳐서, 마치 教育過程의 意味가 根本적으로 再考되려고 하는 動向 속에서, 視聽覺教育도 그 理論的인 意味定立을 再論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教育機器를 使用하면서도 相異한 理論的 背景을 가지는 프로그램 學習의 理論을 從來의 視聽覺教育 속에 包括해서 教育過程의 總體를 하나의 system으로서 再檢討하려는 새로운 方向이 必然的인 課題로 나타났다」

第1稿에서는 매우 概括的이고 一般的인 表現을 했기 때문에 讀者中에서는 視聽覺教育和 教育工學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强하게 가지고, 視聽覺教育的인 要素가 拂拭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疑惑感을 가진 듯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主題에 副應해서 새로이 第1稿에서 깊이 이야기 하지 못한 點에 關하여 明確하게 해두고져 한다.

于先 새로히 傍點을 친 部分에 注意를 해주기 바란다. 教授過程을 하나의 system으로서 捕捉하려는 立場은, 學習形態論 속에서 이미 말한바 있으므로 理解가 갔으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重要的인 point인 것이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學習의 理論과 從來의 視聽覺教育이 如何히 包括되고 統合되었는가 하는 問題인 것이다. 이에 關해서는 第1稿에서는 言及을 한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問題가 實은 hardware의 機能과 位置定立에 關한 問題와 關係가 있는 것이다. 即 傳統的인 視聽覺教育 속에서 使用되어 온 視聽覺教具는, 教授 system속에서 하나의 subsystem으로서의 hardware system속의 一機能으로서 定着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明白하게 말해서 從來의 視聽覺教育은, 教育工學, 또는 教授工學의 subsystem으로서 包括

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視聽覺教育이라고 하는 領域은, 教育工學 속의 subcategory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體系를 가지는 system의 見地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 벌써 視聽覺教育이라고 하는 容器로써 教育工學의 全體를 包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매우 嚴密한 教育理念이나 教育哲學의 level에 關한 議論으로 볼 것 같으면, 傳統的인 視聽覺教育은 具象的인 經驗에 根據를 둔 經驗主義의 土壤에서 生育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學習 속의 理念과 絶對로 同質的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兩者를 統合하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hardware system 속의 教授 media의 相違로서 定着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로서는, 1970년에 美國에 있어서의 全國教育協會視聽覺教育部, 即 DAVI가, 教育 communication 工學協會(AECT)라고 各稱을 變更했다고 하는 事實은 매우 象徵的인 일이라 하겠다.

從來의 視聽覺教育이 教育工學 또는 教授工學과 함께 어느 곳에서 接點을 해서 統合되어야 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美國에 있어서도 相當한 議論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結局, 教育을 communication過程으로서 보는 곳에 接點을 求하였다고 하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事實은 視聽覺教育의 今後의 方向을 示唆하는 것으로서 今後에도 많은 問題를 提供해 간다고 豫想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以上과 같은 것을 考慮한 위에 hardware system의 內容에 關하여 생각을 해 보자.

1. 視聽覺(AV)機器

이 가운데에는, 傳統的으로 使用되어 온 AV敎具에 附加해서, 最近에 가장 널리 使用되고 있고 또 效果를 發揮하고 있는 것으로서, (1) overhead projector (OHP), (2) slide projector, (3) film projector, (4) tape recorder, (5) VTR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 機器의 詳細한 內容과 用法에 關해서는 이에 關해서 專門으로 紹介하고 있는 冊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省略하지만 여기에서 注意해 둘 必要가 있는 것은, AV機器의 本來의 性格은(機器自體는 精巧하고 多面的으로 使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敎具로서의 特性을 가지고 있는 點, 그 意味에서 自動學習 裝置로서의 性格을 가지는 teaching machine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點을 注意해 둘 必要가 있는 것이다. AV機器는 teaching machine은 아니다. 實은 視聽覺學習과 프로그램 學習과의 差異는 教育工學 가운데에서 hardware system속의 機能差의 形式으로 存續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AV機器가 使用되는 境遇에는 學習形態가 어떠한 communication level을 取할지라도, 이 communication의 效率을 높이기 爲한 敎具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例컨대 OHP는 個人이 使用할 수도 있으며, 또한 集團 level의 communication에 使

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學習形態論의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一對多數의 communication, 即 教師對學級集團이라고 하는, 所謂 一齊學習의 形態로서 使用되는 수가 많지만, 小集團學習에 있어서도, 學童들의 自主의인 group活動에 活用될 수가 있다.

OHP의 生命은, OHP에서 使用되는 transparency (TP)에 있다고 하겠다. 即 어떠한 transparency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OHP의 妙味인 것이다. OHP의 transparency나 映畫의 film, slide, video tape의 類, 即 hardware自體를 支援하는 材料教材가 되는 것은 總括的으로 software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나, 훌륭한 TP를 어떻게 製作할 것인가라고 하는 問題는, 所謂 software의 開發이라고 하는 形式으로 今後의 主要한 領域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OHP에 있어서는 TP의 組立을 考察함으로써, 所謂 從來의 板書에서는 絶對로 不可能했던 複雜하고 精巧한 圖形의 說明등을 어떤 順次性을 가지고 매우 有効하게 說明하는 것이 可能한 것이다. 또한 小集團學習에 있어서는 이 TP作成에 關한 工夫를 學童들 自身들에게 考察케 해서 group마다 發表시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는 所謂 從來의 視聽覺教具에 依한 體驗을 超越하는 새로운 多樣性을 가져오게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最近에 注目되어 온 것에는 VTR의 活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視覺刺戟情報과 聽覺刺戟情報를 tape에 收錄해서 이것을 同時에 再生할 수가 있다고 하는 點에서 授業研究의 分野에서 威力을 發揮하고 있는 것이다. 教師는 自身の 教授行動과 學童들의 反應, 또는 學習行動을 分析함으로써 授業過程이 如何히 進行했는가에 對한 反省과 評價를 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video tape가 어떠한 모양으로 收錄되는가라고 하는 條件은 相當히 嚴密하게 control하지 않으면 學童들과 教師의 行動自體가 video를 收錄하는데에 影響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쩐지 漠然하게 video에 收錄을 해도 뒤에 分析段階에 있어서 손을 쓸 수 없는 結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VTR을 充分하게 活用하기 爲해서는 于先 完璧한 「教授—學習行動의 觀察에 關한 system」을 確立할 必要가 있다.

그런 이 AV機器는 如前히 教具로서의 性格을 가진다고 말하였으나 이것을 좀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들 AV機器自體에는 feed back의 機能이 없다고 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注目할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많은 境遇에, 口頭의 說明, 即 oral communication을 도우는 形式으로 機能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 點이 teaching machine과의 基本的인 差異點인 것이다.

2. Teaching Machine (TM)

teaching machine이라고 하는 것은 個別學習을 根底로 하는 自動學習裝置라고 하는 點이라 하겠다. 基本的인 性格은, communication level에서 말할 것 같으면 one person communication, man machine communication으로서의 性格을 가

진다. computer를 導入한 가장 進歩된 形態의 CAI와 같은 것은, 보다 明確한 人間과 機械와의 communication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對人 level의 communication의 要素는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teaching machine에 그와 같은 것을 期待해서 批判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teaching machine의 性格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스키너의 學習理論과 프로그램 學習의 基本理念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前稿 프로그램 學習의 成立 參照) 스키너의 學習理論에 立脚한 直線型 프로그램에 對한 批判적인 側面에 關해서는 지금까지 簡單히 말한 바 있으나, 스키너의 觀點에 對해서는 現在 相當히 끈덕진 反撥과 批判이 있다는 것을 留意해 둘 必要가 있다. 이에 關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機會가 있을 것이다.

3. 集團反應分析裝置

이것은 AV機器에도 teaching machine에도 屬하지 않는 獨自의인 教育機器로서 分類된다. 이것은 feed back을 할 수 있는 機構를 가지고 있지만 teaching machine의 要件이 되는 提示系의 system이나 制御系의 system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이 機器의 第1의 目的은 學習者의 學習行動의 點檢, 卽 教授過程이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가를 點檢하는데 있는 것이다. 學習指導가 實際로 어떻게 行하여지고 있는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依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授法의 評價機能도 同時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機器가 가지고 있는 機能을 簡單히 말할 것 같으면 多肢選擇中의 解答이나, 或은 理解를 했는지 못했는지에 關한 學生들의 反應을 學生들로부터의 瞬間的인 feed back에 依하여 自動的으로 記錄을 해서, 正答을 한 學生들의 數 또는 理解를 한 學生들의 數나 되어진테이지가 自動的으로 表示되는 것과 같은 性能을 具備한 裝置인 것이다.

RA의 記錄의 利用에 關해서는, 集團反應曲線의 解析을 理論的으로 行한 研究(日本의 藤田·平田 1969)가 報告되어 있지만 이에 依하면 學生들을 評價하는 것은 第二義의인 일로서 學生들의 指導를 바로잡고 나가려는 것이 RA의 目的인 것이다」(平田·1970)라고 되어 있다. 卽, RA에서는 個人的 記錄이라고 하는 것도 收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主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學生들이 誤反應을 내거나 教師의 說明이 學生들에게 理解되어 있지 않는 境遇에는 教授法을 修正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教授法에 關한 評價와 修正을 爲하여 RA를 使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프로그램에 學生이 誤答을 한 境遇에는 프로그램에 自體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修正하는 프로그램 評價와도 共通되는 點이 있다고 하겠지만 프로그램 學習이 學習의 個別化를 目標로 하고 있는 것에 對해서, RA는 集團單位라고 하는 點이 基本的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가장 새로운 方向으로서 는 RA에 computer를 導入한 것이 생각되고 있지만 이것은, CAI와는 根本的으로 性格이 相異하다는 것에 注意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關해서는 前稿에서 한번 말한 바 있으나 學習狀況에 computer를 導入한 것이 곧 集團 CAI가 된다고 생각하

는 것은 誤解인 것이다.

그럼 以上으로서, 教授 media에 關해서 hardware system의 內容에 關하여 말 하여 왔으나 끝으로 이들 media의 機能이 처음에 말한 가니에의 學習의 成立要件을 如何히 充足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問題라고 하겠다. 그것에 依하여 media의 質이 論議된다고 하겠다. 가니에는 여러가지 種類的의 media에 關한 敎示機能을 點檢하는데 있어서 第1表와 같은 形態로 整理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映畫나 teaching machine은 單純한 演示보다도, 훨씬 더 優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口頭에 依한 communication이 機能面만으로만 볼 것 같으면 刺戟의 呈示에 關해서 限界點이 있다고 하는 點을 除外하고는 모든 要件項目을 充足시키고 있는 點은 注目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事實은 oral-communication(口頭通信)과 其他 media를 組合을 할 것 같으면 media로서의 效率이 더욱더 高潮된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實際로 OHP등을 使用한 口頭 說明은 이러한 medi의 組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機能을 가진 media들 보다 system的으로 組合해서, 教授 學習의 最適化를 圖謀하려고 하는 것이 所謂 multi-media system의 approach인 것이다.

最初에 말한 「教授過程의 總體를 하나의 system으로서 再認識하는 새로운 方向」은 教育工學의 分野속에서 multi-media system의 方向을 指向해 가는 것 같이 생각되는 바이다

第一表

media의 敎示機能(가니에 · 1965)

機 能	media							teaching machine
	對 象 演 示	oral communication	印刷物 media	靜 畫	動 畫	映 畫	書	
1. 刺戟의 呈示	○	△	△	○	○	○	○	
2. 注意와 活動의 方向提示	×	○	○	×	×	○	○	
3. 豫想되는 行動의 model 提供	△	○	○	△	△	○	○	
4. 外的인 契機의 提供	△	△	○	△	△	○	○	
5. 思考의 方向을 誘導	×	○	○	×	×	○	○	
6. 轉移를 일으킨다	△	○	△	△	△	△	△	
7. 學習의 評價	×	○	○	×	×	○	○	
8. feed back의 提供	△	○	○	×	△	○	○	

○=있다

△=制限이 있다

×=없다

二. 教育工學의 展望과 將來

이번 稿로서 教育工學에 關한 最終稿에 該當됨으로 지금까지의 總括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部分을 捕足하고 教育工學의 展望과 今後의 課題에 關하여 考究해 본다.

위 一에서는 hardware system이라고 하는 形式으로 教育機器의 問題를 다루었다. hardware system의 포인트는 機能이 相異한 教育機器의 種類를 教授 學習行動 속에서 如何히 活用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위 一에서는 教育機器를 相當히 具體的인 level로 부터 機能別로 分類를 해서 (1) 視聽覺機器 (2) teaching machine, (3) 集團反應分析裝置 등 세가지를 들었으나, 教育機器의 機能은 좀더 總括的인 level로서는, (1) 情報呈示機器, (2) 反應測定機器, (3) 情報處理機器라고 하는 分類도 可能한 것이다. 위 一의 分類에서는 computer를 導入한 高度의 學習裝置로서 CAI등도 teaching machine의 태두리 속에서 說明을 했지만, 좀더 嚴密히 말한다면, CAI는 情報處理 그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에서는 둘째 번의 分類편이 CAI의 機能을 重視한 보다 總括的인 分類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보아오면 教育機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매우 單純한 level의 情報呈示機器로부터 高度의 情報處理 system의 level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性能이 좋은 教育機器의 要件은 情報의 呈示와 情報의 記錄(computer의 境遇에는 記憶이라는 用語를 使用한다) 能力이 優秀한 點이라 하겠다. computer는 이 點에 있어서 優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人間의 손을 빌리지 않고 自動的으로 情報를 處理하는 點에 있어서, computer는 優秀하지만. 注意해야 할 것은 computer는 프로그램이 命하는 以外の 일은 아무일도 안하는 것이다. 即 computer에 命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人間인 것이다. 이 命은 프로그램에 依하여 行하여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即 software의 開發이라고 하는 것이 重要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위 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hardware라든가 software라고 하는 것은 本來 computer의 本體와 이것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對해서 使用된 것이 었었다.

그럼 위 一에서 말해 온 바와 같이 學習의 成立에 關係되는 media속에 情報의 呈示나 記錄을 自動的으로 行하는 것과 같은 裝置라든가 media의 敎示機能을 高潮시키는 것과 같은 機器가 導入되어 오면, 今後의 教育에 어떠한 變化가 생기게 될 것인가.

첫째로, 人間의 學習이라고 하는 것이 學校라고 하는 태두리 안에서만 取扱되기 쉬웠던 傳統的인 學校敎育觀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豫想되는 것

이다.

即 廣範圍한 情報의 提供이 學校밖에서 可能해 집에 따라서 教育이라든가 學習이라고 하는 것이, 生涯教育的 見地로 부터 생각해 나갈 것이 豫測된다고 하겠다.

教師가 口로 이야기하는 것이 唯一한 知識의 供給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確實히 지금까지 學校밖의 여러 가지 社會의 狀況에서, 獨自의 圖書館의 冊을 읽거나 講演會나 展示會등에 나가서 知識을 吸收하거나, 學習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media機能이 發達하고 情報의 呈示나 記錄, 保存이 可能해 집에 따라서 視聽覺情報 center와 같은 情報의 組織的인 提供이 行하여지게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情報提供의 center는 學校밖의 地域社會로 .까지 發展되어 나갈 것이 豫想되기 때문에, 地域社會教育은 보다 더 發展할 可能性을 더해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가까운 將來에는 아직 不可能한 일일런지 모르지만, CAI와 같은 것이 導入될 것 같으면 必要한 末端器를 設置함으로써 情報源으로부터 떨어진 遠隔地에 있어서도 教育情報를 入手하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이것은 大學의 campus밖에서의 學習을 可能하게 하는 所謂 off campus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形態를 導入하기 쉽게 할 것이라는 것이 豫測되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學習形態는 機械와 人間의 communication이 有效한 限에 있어서는 뜻이 같다고 할 것이다. 教育 속에서는 對人的인 communication에 依해서만이 學習할 수 있는 情報의 領域이 있다. 따라서 教育工學의 發達에 依하여 將來 學校나 大學에 進學하지 않더라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單純化된 方面으로 結付가 되면 危險한 일이라 하겠다. 이 境遇에 있어서의 教育工學은 主로 教育器機로서의 hardware system의 發達과 導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만, 教育에 있어서의 機器의 導入은 多少間에 學級集團 學校集團 或은 大學機構의 性格을 變質시키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매우 重要的인 일인 것이다. 筆者는 이미 教育工學은 좋은 나쁜 間에 作用할 수 있는 兩날의 劍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고 말한바 있다. 教育機器의 導入은 傳統的인 教育 system을 變質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即 集團單位에서 行하여지고 있었던 communication의 pattern을 變化시키는 것이다. 即 지금까지 對人的 level속에서 行하여져 왔던 communication속에 人間과 機械의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或은 人間과 人間과의 사이에 機械가 媒介物로서 들어오는 것이다, communication의 pattern이 變化하면 當然히 人間の 慾求構造는 變化한다. 例를 들자면 teaching machine에 依한 學習形態는 當然히 個別化의 方向을 찾게 되지만 이때 그 個人的 學習에 關한 動機賦與나 그 個人이 한 사람의 人間으로서 成長해 가는 境遇에 있어서의 自己實現의 質은 大體로 어떻게 해서 保證되는 것일까. 機械와 人間の communication으로부터는 人間愛라든가 友情, 他人의 不幸에 [對해서 마음을 움직이

는 것과 같은 感情을 學習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自己에 關한 學習, 即 他者와 比較해서 自身을 客觀的으로 바라보고 自己評價하는 것과 같은 態度를 學習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教育에 있어서 人間과 機械의 communication에 依한 學習의 程度가 더 해 갈수록 對人的 level의 communication 속에서 學習되어져야 할 것이 侵蝕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工學의 發達한 教育狀況 속에서 人間과 機械와의 communication속에서 看過되어 버리는 것을 다른 communication level로서 確實하게 補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現實의 狀況 속에서는 機械가 導入된 後에 그와 같은 致命的인 弱點을 補充하는 것과 같은 形式의 人間的인 接觸의 場이라고 하는 것이 充分하게 準備된다고 하는 保證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點은 學習形態論 속에서 一部 말한 바 있으나 現實의으로는 이러한 狀況은 教育行政의인 面에서 教師는 取할 態度를 모르는 것이 普通인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는 將來, 實際로 computer가 中學校나 國民學校까지 導入되게 되었을 때에 現實의인 事實로서 틀림없이 表面化될 것이다. computer 導入의 方式으로서는 大型方式과 小型方式의 두가지 方向이 생각된다고 하겠다. 即 大型 computer에 많은 端末을 結付하여 短時間式 相對를 하는 것과 같은 所謂 Time sharing system (TSS)이라고 불리어지는 system이 있다. 이것은 時分割 system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으나 最近 日本의 東京에서 使用되게 된 電話機와 computer의 直結은 이러한 方式의 形態인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可能한 限 小型의 computer로 해서 이것을 個個로 使用하려고 하는 方式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商業高等學校에 computer를 導入할 것을 企劃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將來에 처음에는 實驗學校와 같은 形式으로 初中等學校에 computer가 導入될 것이라는 것을 豫想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computer의 利用에 依한 教育 system을 豫想할 수가 있는 것이다. CAI 或은 CBI (Computer Based Instruction)는 現在 아직 本格的인 實用的 段階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其他 computer의 教育에 對한 利用으로서는 學生들의 試驗의 結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教育情報를 整理分析하는 것을 꾀하는 利用法이 있다. 이것이 CMI (Computer Managed Instruction)라고 불리어지는 것인 것이다. 이것은 教育經營, 學校行政의인 面에서 利用될 可能性이 強하다. 其他 情報檢索을 爲한 computer의 利用 IR (Information Retrieval)등도 將來에는 close up되어 올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이러한 將來에 많은 課題를 남겨두고 있는 computer system을 包含해서 情報表示機器, 反應測定機器, 情報處理機器라고 하는 hardware의 類는 所謂 教育機器産業에 依하여 生産되며 이들 教育機器産業에 있어서는 學校라고 하는 것은 實은 教育市場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 對해서는 注意를 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다. 企業이기 때문에 그 製品을 販賣하는 데에 關心이 있다. 購入을 한 學校에서의 教師의 活用與否에 關해서는 企業側에서는 關心과 責任이 없는 것이다. 本質的으로는 教育機器産業과 自動車産業의 性格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自動車

의 過剩生産, 高速道路抗張, 大氣汚染(公害)의 現象과 마찬가지로 教育機器도 目的 地에 到達하는데에 効率性이 높은 自動車와 마찬가지로 効率は 高潮될지 모르나 教育의 大氣 속에 排氣 가스를 噴出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即教育機器가 學生들 사이에 있어거나 教師와의 人間的인 接觸을 적게하는 形式으로 使用되는 境遇에 假令 어떠한 學習上의 効率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教師와 學生間의 人間關係의 缺乏 등과 같은 問題로 因하여 教育의 大氣는 如前 汚染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機器를 如何히 使用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인 것이다. 使用된 機器가 確實하게 學生들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爲하여 教師가 어떻게 教育工學을 볼 것인가 하는 問題라 하겠다. 그러나 모든 責任을 教師에게 돌릴수는 없다. Rickover (1963)는 한때 教育工學的인 接近에 關하여 如何한 teaching machine도 教師의 質과 社會的인 地位가 變化하지 않는 限 그것이 教育의 質을 第一級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으나 이것은 正當한 말이라 하겠다. 教師가 教育活動을 行하기 爲한 條件이 充分하게 整備되어 있지 않는 狀況下에서 教師가 教育機器를 使用하지 않는다고 批判을 하는 것은 不當한 일일 것이다 特히 實際 教師의 活動 속에서서는 教育機器를 使用하는 것이 教師의 勤務條件을 壓迫하는 것과 같은 結果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機械를 使用하는 것이 究極의 目的이 아니고 주어진 條件속에서 最適인 學習을 達成하는 思考의 pattern 그 自體가 重要하다고 하는 本來의 教育工學的인 理念으로 부터 볼 것 같으면 教育機器는 어디까지나 手段의 하나에 不過하다고 하는 것을 確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는 「黑板만으로서도 教育工學은 可能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한번 더 想起해도 좋을 것이다.

教育工學은 工業技術의인 것을 教育에 어떻게 適應할 것인가 하는 點에 主眼을 둔 hardware의 教育工學과, 「工學은 hardware와 直接 關係가 없는 形式으로 보아서 基礎科學의 應用으로서의 理念으로부터 捕捉하는 教育工學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後者의 教育工學은 Software에 主眼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實際로는 兩者는 相互間에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서 hardware系 教育工學과 software系 教育工學이 別個로 存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教育工學 속의 基本的 主題는 學習行動의 教育科學의인 分析追究에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教育機器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 바로 教育工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第一稿 「教育工學的인 成立」 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學習의 効率觀에 基礎한 教育工學的인 思考 pattern이 發達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었다. 한편 이러한 心情的인 思考 pattern은 위로 부터의 權威로써 어떤 指示가 내리면 無條件 이것을 받아들이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教育工學的인 思考의 뒷받침 없이 위로 부터 教育工學的인 道具만이 언제나 앞서 주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將來 우리 나라의 教育은 한갓 教育機器産業의 犧牲物이 되고 말 것이다. 過去에는 大部分의 教育機器는 外國輸入에 依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國內生産도 可能해 질 것이다. 그리고 教育

工學的 將來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内外資本의 움직임과 이것을 管理하는 行政的인 움직임과 絶對로 無緣일 수는 없다는 것을 注意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教育界는 教育科學으로서의 教育工學的 健全한 發達을 願할 것 같으면, 單純한 流行現象으로서가 아니라 教育狀況이나 自己들의 教育現場에 適合하고 必要한 教育工學的 道具로서의 教育機器를 스스로 選擇한다고 하는 姿勢가 必要할 것이다.

教育工學的의 源流가 美國의 프로그램 學習의 理論에 發한다고 하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其後 프로그램 學習은 急速하게 各國에 擴大되었으나, 美國國內의 모든 地域에서 教育工學的인 것이 아무런 抵抗도 없이 浸透해 간 것은 아니었다. 教育 속에서 工學的인 것에 對한 相當한 反發과 嫌惡가 있었으며 그것은 現在에도 解消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教育工學에는 그 技術을 밀바침하는 思想이 必要한 것이다. 그것은 技術을 構築하고 있는 理論 그 自體는 아니다. 이들 理論의 全部를 包括해서 그 技術의 利用을 方向지우는 教育思想이라야 한다. 이러한 思想을 隨伴하지 않는 形態로 導入된 hardware만의 教育工學으로서는 學校集團이나 大學이라고 하는 共同體의 positive한 機能을 浸蝕하고 變質시키는 毒性을 가지게 된다. 即 對人 level의 communication이 減少하고 集團의 所屬感이 喪失되며, 協同體로서의 凝集性이 減少한다. 現在로서는 所謂 教育機器利用은 아직 教師의 Oral communication을 隨伴한 情報呈示機器가 많이 使用되고 있는 段階이지만 먼 將來 또는 가까운 將來에 computer를 導入한 個別學習의 system이 本格的으로 使用되는 段階에 가면 여러가지의 議論들이 보다 具體적으로 活潑해 지게 될 것이다.

그럼 教育工學이 將來 어떠한 category속에서 發展해 갈 可能性이 있을가 하는 것을 最後로 整理를 해 본다.

Unwin Leedham은 다음과 같은 category를 例舉하고 있다.

- (1) 直線型 teaching machine (Linear teaching machine)
- (2) 枝分型 teaching machine (Branching teaching machine)
- (3) Programmed texts
- (4) Computer에 依한 學習 system(Computer Based learning system)
- (5) Feedback classroom
- (6) 프로그램화된 視聽覺 system의 利用 (Programmed use of other audio-visual system)

computer에 依한 學習 system은 이 속에서도 最高度로 自動化된 것이지만 現在의 教育工學이 一躍 (4)에서 例舉한 것과 같은 CAI나 CMI와 같은 것으로 發展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亦是 教育狀況에 應하여 여러 가지의 category가 段階적으로 利用되어질 것이다. Feed back classroom이나 Multi-media system과 같은 것은 앞으로 普及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最終回인 이번 稿에서는 教育工學的의 展望과 將來에 關하여 오히려 教育工

學이 가진 毒性이나 빠지기 쉬운 危險한 陷穽에 對해서 批判的인 考究를 하였다.

教育工學측에 있는 매우 positive한 視點의 하나는 人間의 學習行動이 그 人間이 가진 情報處理能力에 適合한 最適의 學習 Input를 制御해서 賦與함으로써 그 可能性이 보다 더 開發된다고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理念에 立脚하는 限 教育工學의 理念은 人間이 가지는 可能性의 開發과 資質의 開發을 도우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教育工學의 將來는 우리들의 英知가 technology를 如何히 注視하고 참으로 人類의 것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근심을 잊지 못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라. 또 어떠한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도박꾼이 잃은 돈을 찾으려다가 더 크게 손실을 보듯이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구렁이로 빠지게 되는 것과 같다.

<東洋名言>

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 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老 子>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칸 트>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새로운 지도 방향

.....◎ ◎ ◎.....
김 용 건
(도교육 연구원 상담실)

急進展 하는 社會의 樣相에 따라 近來 靑少年들의 不適應行爲가 社會問題로 甚刻해짐과 同時에 激增 一路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問題는 一般社會의 風潮 시경이나 家庭의 協助없이 學校教育의 힘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이기는 하지만 學校教育 그 自體內에서도 反省檢討 되어야 할 面이 허다 하다고 보아진다. 生活指導面에 있어서 우리가 豫防할 수 있는 問題點을 살펴보면 Samuel M. Browell씨 같은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교에 있어서 不適應行爲(非行)와 問題兒를 豫防할 수 있는 比까지 條件은

- ① 學級成員(人員數)을 줄임으로서 教師는 모든 學生을 個別的으로 지도할 수 있다.
- ② 敎사의 敎育지도 方法은 建設的 이어야 하고 嚴格한 訓示와 處罰은 도리어 反抗兒를 배출하게 된다.
- ③ 특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學級 경영을 하는 敎師들은 兒童의 問題들을 科學的으로 分析研究하는 臨床的인 治療方法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학부령과 학교사이의 緊密한 連絡 또는 가정과 학교의 合心으로 學生들의 범 죄적인 行動이라든가 學業의 失敗를 막을 수 있다.

以上에서 본 條件들은 우리의 現實에서도 緊急하게 豫防해야 할 要件들이라 생각된다. 먼저 環境에서 본 問題點들을 列擧해 보면

1) 不適應行爲의 原因은 여러가지로 多樣하게 複合되어 있어 하나의 原因으로 受容하고 處理해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리 훌륭한 敎師라 할지라도 一般的으로 單純한 訓戒나 說得으로 그 場面을 臨機應變으로 처리하여서는 다음의 不適應行爲를 無意識中에 養成하는 結果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그 不適應行爲의 原因의 복잡성을 理解치 않는 까닭에 다음의 큰 不適應行爲의 發生原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兒童의 成長發達에서 큰 影響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家庭環境이다. 가정환

경은 父子 관계, 兩親관계, 同氣間 관계라는 여러가지 문제가 움직이고 있는 力動的인 環境이고, 거기서 學生들의 人格性이 形成된다. 그 때문에 不適應의 原因은 一次的으로 家庭環境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① 靑少年은 가정이라는 사랑속에서만 그 安定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기에 靑少年들이 가정에서 愛情을 얻지 못한다는 경우에는 社會에 對한 侵犯的行動으로 補償 할려고 한다.

② 兩親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라도 兩親의 行動에 非社會的 反社會的인 것이 있으면 여기에도 不適應行爲는 일어나게 된다. 또 兩親의 不和 亦是 學生의 行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도 考慮해야 한다. 이는 成人의 모든 行爲는 靑少年들에게 鑑戒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③ 兄弟姊妹間의 관계도 역시 父子關係를 媒體로 해서 생기게 된다. 靑少年들은 父母의 편애에 敏感하고, 事理를 分別하고 獨立된 靑少年이라 할지라도 이에는 敏感하여 여러가지 行爲로 反應하게 된다.

즉 다른 兄弟가 사랑받고 自身에 배척이나 無觀心으로 取扱될 때 몹시 不安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하여 社會의 非行의 틈 바꾸니 속에 끼이게 되는 것이다.

3) 靑少年은 그 年令에 該當하는 適合한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시켜야 한다. 問題를 가진 不適應兒는 대개 학교를 싫어한다. 학교에서 幸福한 학생은 不適應兒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學校는 가정에서 形成된 人格性을 社會에 適應하도록 하는 場이기도 하다.

그러나 學校가 人的 物的인 환경이 意圖한 바와 反對로 反社會的이고 有害하다면 教師와 學生의 관계, 教師와 教師와의 관계 등 物的인 모든 환경이 특히 問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특히 生活指導面에 있어서 影響을 주는 學校와 P. T. A. 그리고 學校와 매스컴과의 관계가 有益한 點이 많은 同時에 玉에 티끌처럼 有害한 영향을 주는 일들도 간혹 있다. 靑少年들은 學校生活에 있어서 親友들속에서 친하게 지내지마는 거기에는 恒常 競爭意識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自己水準을 維持하려고 하는가 하면, 또 向上을 할려고도 한다. 떨어지면 劣等意識에 사로 잡혀 不法手段으로 競爭에 臨하게 되니 不適應의 形態로 나타난다. 그리고 家庭에서 無觀心狀態에 놓여있는 아이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돌봐주면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나, 가정과 같이 역시 無觀心상태에 放觀하면 不適應行動으로 나가기 쉬운 것이다. 또 心身能力의 결함과 학업부진등으로 오는 不適應兒가 아주 많은데 教師의 共感的인 理解로서 內在的인 價値를 認定해 줌으로써 解決이 可能치 않겠는가 생각된다.

4) 가정적 빈곤과 주택환경의 亂雜, 環境的인 教育의 公害가 影響을 끼치는 바가 크다고는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諸環境的인 原因은 靑少年 學生들에게 반드시 均一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같은 환경에서도 不適應兒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가 바로 個性인데 個性에 따라 逆環을 克服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個性에 依한 生活指導의 問題점을 살펴보기로 하면

첫째 青少年中 男性이 女性보다도 不適應의 徵候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男性이 能動的이고 積極性이 높기 때문에 그 機會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둘째 身體的인 結核과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무엇인가 劣等感을 갖기 쉽기 때문에 非行에 걸러들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가진 악벽은 不適應의 危險信號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굳건질이 굳건질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낭비력으로 발전하여 도벽에 까지 進展된다. 허언(거짓말)도 非行의 중요한 선구적인 징후로 경계해야 된다.

넷째 무단결석 하는 것과 團體行動에서 빠져 나가서 個人行動을 取하는 것도 보아 넘길 수 없는 일들이다. 以上에서 말한 個性에 依한 문제점이란 先天的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學校生活指導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不可抗力인 面이 있다. 이가 바로 先天的 原因인 病的遺傳과 그 青少年이 出生한 父母님의 年令 및 年令差 등이다. 病的遺傳이라는 것은 단순히 血統上의 遺傳을 말할 수 있는데 父母님이 몹시 神經質이었다든가 아버지가 亂暴할 뿐 아니라 飲酒와 도박에 온 정신을 팔든가 또는 어머니가 극히 적은 일에도 자주 격분한다든가, 형제들 중에서 뇌막염으로 因하여 일찌기 죽었다든가, 형제자매 중에 白痴나 치우가 있었다든가 하는 등등이 유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先天的 原因中에서도 그 青少年들이 出生 당시의 父母님의 年令 및 父母님의 年令差가 중요한 것이다. 實例를 들어 말해 보면 아버님이 일찍 장가를 들어 20세에 도달하기전 出生한 子女가 있다면 이러한 子女는 대개 허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體質이 허약하게 되면 흔히 정신적면에 있어서도 박약할 수도 있지만 또한 便으로는 健康한 다른 아이들과 1對1로 정정당당하게 힘을 다하여 제반당면한 일을 처리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히 非行을 하거나 위법적 행위로서 일을 성취해 볼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不適應兒로 나타나는 同時에 그러한 규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面으로 보아서는 우선 身體가 건전한 아이를 出生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或은 身體가 건강하게 되므로 그 힘을 믿고 더욱 不良化 해지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는 그 다음의 문제도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生活指導에 있어서 環境的인面과 個性에 依한 問題點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새로운 指導方向에 對해서 말해 보면

一. 민주주의 생활의 지원

최초의 “생활지도”는 A. E. Traxler에 의하여 민주주의 학교에 응용되었다고 정의한 것처럼 생활지도는 민주주의 생활을 위한 방편이며 강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학생 자신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시키고 모든 인간을

수단방법으로써 取扱하지 않고 목적을 자신(생도자신)에 두고 취급해야 된다는 태도를 육성하여 간다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하여는 생활지도에 臨하는 사람(교사, 부모)이, 태도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Counseling 활동에서 來談者중심의 立場에서 Counselor가 來談者에 對해서 무조건 존중의 태도를 가지는 것처럼 모든 학생생활지도의 활동장면에서도 우리 교사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二. 개성의 존중

생활지도에서는 개성의 존중이란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개개인의 학생개성을 충분히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個個人의 학생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內在의 價値를 안으로 부터 理解해 주는 것은 共感的 理解로써 말하고 있다. 이가 학생지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個性의 理解를 위하여는 물론 其前提로써 Personality나 청소년기의 心理에 관하여 一般의 理解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一般的 理解뿐만 아니라 오히려 個個人的 內在해 있는 문제를 이해해주는데 努力을 경주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개성을 발휘시켜 준다는 것은 眞空 속에서 行해지는 것이 아니고 社會라는 時空間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의 목표나(사회 공동의식) 과제 즉 理想과 現實을 바르게 認識시키는 努力이 필요한 것이다.

個性의 理解에 對해서는 最近 각종 각양의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 즉 지능검사, 人格性 테스트, 흥미검사, 적성검사 등 각종 테스트를 이용하고 있고 생활지도의 개성 특약에 불가결한 것으로 보아 진다. 이, 테스트에 관해서 검토해 보면, 테스트의 항목 가운데는 물론 개개인의 학생의 개성을 안으로 (내재적 문제=잠재된 문제)부터 이해할 수 있는 항목도 많겠지만 테스트의 문제 中에는 개인이 社會的 요청에 얼마만큼 답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문제도 內包되어 있다. 이러한 개성의 이해에 관해서 독자적으로 학생의 개성을 안으로 부터 이해하는 것과 其學生의 적성과 흥미가 사회가 구하고 있는 것 요청하고 있는 것에 어떠한 관계(관심)를 갖고 있는가 라는 점도 明白히 해야한다. 이 兩面의 理解方法이 중요한 것이다.

三. 인격의 통합적 이해

生活指導에서는 人格을 統合的으로 理解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生活指導는 어떤 危機的 場面에 있어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는 時限

附로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학생들의 인격은 끊임 없이 連續的으로 發達하여 감으로 모든 發達의 흐름에 助力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強調되어야 한다. 통합적인 발달을 助成시킨다는 것을 생각할 경우 예를 들면 幼兒期에는 言語나 歩行이 학습의 中心이 되지만 청소년기에는 自己를 理解하는 것도 發達의 課題라고 말하고 있으며, 自己의 進路를 결정하는 것,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 異性관계 등을 배우는 것이 발달과제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進路指導, 人生觀의 指導, 道德性的 指導, 異性關係의 指導로서는 순결성 지도등이 가장 필요한 지도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통합적 발달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보통의 학교 교육은 敎科를 통한 학습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 교과 학습은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50분 내지 45분 시간 단위로 행하여 지는 것이 장시일 동안의 습관화로 굳어져 있다. 이런 짧은 시간에 다음의 학습이 틀에 짜여 수동적으로 展開되어 연속되는데 인격성 형성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이점에는 상당한 문제가 殘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이 課題달성에 전념을 해야 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하나의 문제에 장시간 지속하는 持久力, 探究力을 발휘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청소년에게 문제되는 근본성격을 이루는 근성이 문제가 된다.

오랜 시간 곤란한 難題에 부딪힐 때 심신을 통합하여 이 난경을 극복하는 심신의 단련이 필요한 것이다.

생활지도에서는 이를 과제로서 추구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현금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反映하여 보면 특별활동 등으로 계획의 실천 방법에 따라서 이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특별교육 활동은 인간을 교육하여 가는 그 위에 생활지도 면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나 요즘 受驗準備등에 쫓겨 본연의 의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도리켜 인간 교육이란 점으로 생각해 볼 때 이의 중요성을 어머니나 학생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경우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이에 의하여 확립되므로 이를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四. 자주적인 인격의 육성

민주주의 적인 생활지도란 점으로 볼 때 자주적인 인격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주성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매우 강조되어 왔다.

이 사회가 봉건주의 사회라던 순종, 복종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지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해방후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기본 노선으로서는 自主的인 인

간성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점에 문제가 되었다.

이가 바로 생활지도 방법의 기본이 되어 왔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주성이란 獨立性이라 말할 수 있음으로 우선 현명한 판단을 他人에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은 完全히 獨立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타인의 의견을 듣는 위에 최후의 판단은 자기의 책임하에 행한다는 것 그리하여 이 판단이 가능한 현명한 것이라야 하는 것, 이것이 자주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독립하여 행하여 其結論을 자기에 명령하여 그 명령에 좇아 실천하여 간다는 것이 자주성 형성의 참 過程인 것이다. 우선 최초에는 현명한 판단을 독립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필요로 한다. 특별활동, 학생회, 학급활동 HR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생각해 하여 토의를 시켜서 판단을 하게 하고 결론을 지워나가는 것을 충분히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 부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고 실천을 문제 삼으면 자기가 적대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된다.

비록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自己의 감정이나 욕망으로 부터 좀처럼 결론을 실행할 수 없는 사례들도 일어남으로 확실히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명확히 자각하는 것이 필요로 느껴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최근 자기의 경험을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히 의식화 시켜주는 助力을 하는 지도가 중시하겠끔 되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명확히 의화할 수 있다면 의식적인 자기 통제가 잘 될 수 있다는 최근 심리학의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가설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을 명확히 의식화 시켜주는 助力이 行해져야 한다. 다시 또 한가지는 自主적인 실천과 관계되는 것인데 다양한 차단 활동의 場에서 Leader-Ship의 揚을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 즉 이것이 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명령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한데 이 명령에 충실히 좇을 수 있는 것이 자주적인 실천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Leader-Ship의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이 Follow-Ship의 기회를 얻어 명령하고 또한 타인의 명령에 충실히 좇는 학습의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나아가면 자기 혼자라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여 其壽命에 자기 스스로 좇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컨대 자주성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우리 교사들의 과학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자주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참 자주성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고교생에

있어서 무엇이든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는 고교생에 한하는 뿐만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다방면에 의견을 듣는다든가 참고 자료를 얻으려는 것 등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며 경험이 많은 고교생의 경우일 때는 더욱 참고 자료를 생활지도를 맡은 선생님들에게 얻는 것은 더욱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고 자주성을 크게 신장하기 위하여서는 생활지도의 제1의 과제일 것이다.

五. 성장 발달력의 존중

생활지도에서는 학생 자신의 성장발달의 힘을 존중하여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특히 고교생이 되면 코앞의 문제 등은 교사의 지도력이 불필요한 것 처럼 생각하고 자주성이 있으므로 이들 존중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는 생활지도에서는 자발적인 사고방식이나 감정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다 해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의 시야를 그 주위 세계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펼쳐 주어 더욱 중요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內面的인 자극을 해주는 것이 학생의 인격육성을 위하여 아쉬운 점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의 존중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써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여 더욱 충실한 인간생활을 위하여 뜻을 세워 노력해 가는 사람이 되도록 助力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六. 환경 조건의 조정

환경조건의 조정에 대해서 배려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제학생의 경우 문제아들의 사고방식 혹은 느끼는 바를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문제행동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행동의 근원이 어버이에게 있을 경우, 혹은 가정의 경제적 조건이 가망이 없을 경우에 있다면 최저 필요한 조건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지도가 성공하여 행동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가망이 없는 문제행위의 근원이 되풀이 되면 어느 시일까지는 이 환경에 忍耐力을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하지마는 몇번 이 조건이 반복되면 또 다시 문제행위는 재발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内外 양면의 요인이 변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는 생활지도에서는 其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七. 집단지도의 필요

생활지도에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교사들이 內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助力하여 생활지도에 임했을 경우 內在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생활지도는 일반 학교에서 집단지도라는 형식을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교도 교사들이 교도활동을 한다고 해도 어느 집단이든 집단내의 성원을 Counseling 하는 것이고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단이란 범위를 떠나서는 어떤 문제도 성립되지 못한다.

집단지도라고 말하면 집단전체를 劃一的으로 지도한다고 연상되나 민주주의적인 집단지도라면 성원의 획일화, 일율화를 획책하는 생각은 전체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집단지도를 해도 학생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것, 즉 학습결과는 각 개인마다 상 위되는 것이다.

지도하는 사람이 집단전체에 대해서 一律적인 말을 해도 학생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시켜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학습이 행해지는 것이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적인 집단지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일율적으로 지도되어도 학생의 內的인 面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형형색색으로 상 위하게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點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물론 집단전체의 힘을 집약하여 집단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하여 간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집단의 압력이나 경제적인 작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중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여지가 잔류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집단지도에서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는 집단지도에서 그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그것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이 현행학교에서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지도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절한 助力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집단지도의 뒤에는 이것을 받아들여 개별적인 지도를 해가는 것이 어떻게 해도 필요로 한다.

八. 주체적 경험의 지원

이상 생활지도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생각해 보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 교사들이 노력해야 할 점을 살펴 보았다.

최후에 생활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특히 중고등 학교의 단계이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경험한 것을 조력하여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되풀이 하여 말씀

<이하 50페이지지로>



특수학급 운영의 당면문제

— ~ ◎ ~ ◎ ~ ◎ ~ —

김 동 극

〈대구 남양국민학교장〉

특수 학급 개설후 그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 연수회(7월 대구 동인국민학교) 및 특수교사 연수회(8월 : 대구 남양국민학교)를 가진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장의 생생한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진지하게 협의했다. 본고(本稿)는 양차의 협의회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그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열해 보는 절건이다.

一. 문제의 의의(意義)

가, 첫출발이 중요하기에...

지금 본도내에서는 15개 시군에 18개 특수학급이 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 교육 위원회에서 이 특수교육을 3차 4개년 계획중 중요사업으로 끌어올려 계획 추진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교육사상 최초의 쾌사(快事)로서 실로 그 역사적 의의 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럴수록 우리의 사명은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기필코 성공시켜 좋은 시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특수학급이 실패한다면 이에 수용했던 아동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처럼 싹트는 한국의 특수교육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문교당국 에서도 우리 도의 특수교육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성공은 곧 한국특수교육을 촉진하는 쿠실을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좋진 나쁘진 하나의 전통(傳統)이 되기 때문이다. 차재에 우리는 특수학급을 남먼저 개설(開設)했다는 자부에 앞서 올바른 길을 견고히 있나 없나 하는 냉정한 비판과 반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첫출발이기에 더욱 필요한 과정(過程)이라 여겨진다.

나, 제 모습을 찾기 위하여...

지금 개설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은 과연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급의 이 모습이 과연 특수학급의 바람직한 모습일까? 지금 우리는 특수학급의 기

본 폼(form)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폼이 잘못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잇달아 개설될 특수학급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진 각국의 경우 출발 당시 잘못 형성된 폼을 고치고 좋지 못한 인상을 씻기 위한 노력은 실로 새로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능가한 바 있었던 사실을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로 볼 때 우리는 먼저 시작했다는 것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은 과연 이대로가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懷疑)와 문제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선진국에 비해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하루바삐 따라가야 한다. 그들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올바른 체도를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특수학급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일! 그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二. 대두(擡頭) 논의되어야 할 문제

1. 철학의 문제

특수학급의 성패는 관계자의 철학에 달려 있다고 보고 싶다. 더구나 행정의 힘이 절대적 힘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토에 있어서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철학이 그 성패의 열쇠이라고 본다. 당국에서 시키니 마지못해 하거나 그 어떤 공명심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의 씨앗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시작한 것이니 없앨 수는 없으나 반감받은 식이 된다면 실패하기 알맞다. 모든 국민을 고루 <다 살리려는 것>이 근대정치 의 지표라면 모든 학생을 고루 <다 살리려는 것>이 또한 현대교육의 갈길일 것이다. 머리가 좋은 학생, 몸이 건강한 학생, 가정이 좋은 학생들만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머리가 나쁜 학생, 신체에 이상이 있는 학생,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불우한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비인도적 비교육적인 동시에 정의(正義)없는 학교요 인류이상을 거역하는 원시 야만의 학교 사회일 것이다. 학교장은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그 능력과 개성에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하나하나를 <다 살리는> 교육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사회에 나아가서 그런대로 자기실현(自己實現)을 할 수 있지만 심신의 장애를 가진 이러한 특수아동은 그대로 버려두면 그 미약한 잔존능력(殘存能力)마저 개발되지 못한 채 끝내 무능한 인간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평생을 마쳐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정상 아동보다 더 따뜻한 사랑과 교육의 손길이 뻗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잡무가 많다. 재정이 빈약하다, 교실 사정이 좋지않다, 등등의 이유로 심신 장애 아동을 80명이 넘는 정상아동의 집단에 끌어 넣어 무지 소외해도 좋다는 이유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학급의 인원수가 20명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각종 장애별 전문 치료교정교사가 배치될 정도까지 사정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모든 학교에 심신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제아라 특수학급은 연차적으로 증설되고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막아내지 못할 자유의 물결처럼 우리 교육계에 밀어닥치고 있는 하나의 시대적 사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내 사정만 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함께 문을 연 특수학급이 어느 것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방향감각조차 희미한 상태로 허덕이고 있는 것도 없지 않으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담당교사와도 관계는 깊지만 행정관(교육장 학교장)의 철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담당교사의 문제

특수학급을 맡을 교사는 원칙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 교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양성이 선행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로는 자격증은 없다 하더라도 평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거나 특별한 지도시책을 강구해오던 교사이면 이 특수학급을 맡아도 될 것이다. 본도의 경우 특수교사 양성 대학을 나왔거나 필요한 강습을 이수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한 것이다. 현재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대개 이에 해당되는 우수 교사이며 앞으로 맡을 교사의 확보를 위하여 현직 연수로서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도 더러는 본인이 희망한 것이 아닌 위에서 맡겨진 것이 있는듯 하다. 이렇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일반학급으로 되돌아가려는 심산으로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하루살이식 근무를 하거나 앓을까 염려된다.

이것은 그 교사 자신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 아동들은 물론 특수교육의 발전향상을 위하여서도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사가 철학을 바꾸어 여기서 헌신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즐겨 근무할 수 있도록 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지극이라도 그러한 교사와 자리를 바꾸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유자격 교사라 할지라도 현재 정적지원의 부족, 일반교사나 부모 사회인의 협력부족등을 개탄하면서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향도 시정되어야 할 줄 안다.

우리는 개척자요 선구자로서의 신념과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희생적 봉사를 각오해야 한다. 좋은 조건이면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자는 아예 덤벼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물을 길러 푸나무를 해다가 눈물을 흘려가며 밥을 짓는 것으로

영광을 느껴야 한다. 남이 지어놓은 밤에 슬가락들고 덤벼들려는 생각은 아예 오산이다. 교육은 사람이 한다. 특수교육은 더욱 사람이 문제이다.

3. 대상아동 선정의 문제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급은 정신박약아를 대상으로 해야한다. 현재 일반학급 집단에서는 IQ 75 이하인 정신박약아가 약 3%(약 2명)정도 섞여 있다.

이것은 거의 세계적인 공통적인 경향이다. 10학급 정도의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한 학급을 만들 대상아동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왕 4,50학급을 가진 큰 학교에서 정신박약아가 20여명 밖에 없다는니 심지어는 한 시군, 전체 아동중에도 30여명 밖에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심한 장애아, 즉 IQ 30정도 혹은 그 이하로서 누가 봐도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아동만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정신박약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할 것이다.

또 여기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학력부진아나 학습지진아를 함께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박약아는 몇명 안 되고 대부분이 이러한 아동들인 경우도 없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촉진학급(促進學級)이지 특수학급은 아닌 것이다. 학력부진아(學力不振兒: under achiever)는 지능에는 별지장이 없는데 환경적 일시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대치(期待值)만큼의 학업성취를 못하고 있는 아동이며 학습지진아(學習遲進兒: slow learner))는 IQ가 80~90정도로써 정상아에 비해 약간 낮으나 정신박약아보다는 높은 이른바 경계선급(境界線級)아동으로서 나라에 따라서는 이것도 특수학급에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대개 IQ 50~75정도의 교육가능급(educable)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하인 훈련가능급(trainable: IQ50~30) 아동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학력부진아, 학습지진아, 교육가능급아 훈련가능급아를 한데 몰아 넣는다는 것은 특수학급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학력부진아나 학습지진아나 다른 문제아의 수가 월등하게 많고 보면 여기서도 정신박약아는 소외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급은 아닌 결과가 되어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게 된다. 비록 초창기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자위한다 하더라도 하루바삐 특수학급의 본연의 모습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4. 학급 편성의 문제

대개 15명 내외로서 바람직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2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곳도 더러 있는 것 같다. IQ가 70정도인 고학년의 경우 그것도 특수한 문제아가 없는 순수한 정박아만일 경우는 20명 정도도 가능할지 모르나 IQ 50이하의 아동이나 문제아, 기타 중복 장애아가 섞여 있을 경우는 15명도 많다. 가능하다면 1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진 각국의 경우 교육가능급 일때는 15명 이내 훈련가능급일때는 10명 이내가 일반적 경향이다. 그리고 같은 학년의 아동들로 한 학급씩 편성함이 이상적이나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개 저학년(1.2.3.)으로 한 학급 고학년(4.5.6.)으로 한 학급씩 편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2개 학급을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워므로 한 학교에 1개 학급씩 설치하여 전교아동(전학년)중에서 선정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정신박약아는 C.A(生活年齡)보다는 M.A(精神年齡)가 더 작용을 하게 됨으로 한 학급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용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학년에서 한 학급 편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전교 전학년에서 선정 수용한 것이나 별로 다를 바 없을 만큼 개별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인근 학교 아동까지 데려다가 함께 수용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몰라도 따지고 보면 자기 학교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버려두고 남의 학교 아동을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교내 체제(體制)의 문제

교장이 교육적 필요를 느껴 특수학급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교내 교직원들의 바른 인식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교직원들이 이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장의 뜻을 받들어 담당교사를 도와 거교적인 협동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기면 말썽꾸러기나 바보들을 쫓아내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연 무관심하거나 비협조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아동(정상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으로 번져 소의 멸시 조소 학대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교칙을 위반했다고 꾸짖는 것도 특수학급 아동이요 함께 저질러놓고도 피할 줄 몰라 붙들려 벌받는 것도 특수학급 아동이요 싸우다가 얻어맞고 우는 것도 특수학급 아동이다. 이쯤되면 이것은 특수학급이 아니라 <쓰레기 학급>이다. 학교안에 특수학급이 생기면 이것은 일반 아동들의 시민자질향상을 위한 생활지도의 산 교재로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햇빛을!>이란 스로강을 내걸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 어린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라고 바꿔 내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특수학급은 그 학교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한 특수학급은 뜻 있는 학급이 되지 못할 것이다.

6. 교실 및 시설의 문제

특수학급의 교실은 특별히 좋은 교실이어야 한다. 밝고 통풍이 잘 되고 관리실(교장실, 직원실) 가까운 1층 교사가 좋다. 그리고 시설도 그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가장 충실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내의 실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성의 있고 의욕적인 정비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허술한 교실에 공허한 시설로서 그야말로 푸대접하고 있는 곳도 있거나 없을까 염려도 된다.

당국에서 예산의 밀반침이 없다는 것이 핑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당국에만 의존하고 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웬만한 규모의 학교라면 기존자료를 재정비 하고 수집 재작 보완하여 효과적인 활용(이용) 방법만 연구한다면 큰 돈 안 드려도 허무하지 않을 정도는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는 특수학급 우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것이 시책으로 구체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초창기 이기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다. 시설이나 학습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수아동의 지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야말로 특수학급 운영의 기본 요건이라 할 것이다.

도내의 실정을 보면 이미 교육청에서도 보초가 있었고 학교 당국에서도 예산조치를 해서 시설과 학습자료가 갖추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다 할 재정적 밀반침이 없어 애대우고 있는 곳도 없지 않는 실정이니 모처럼 역사적인 개설을 해 놓고 바람직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체면유지를 할 정도의 시설의 정비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7. 교육과정 및 교과서 문제

정신박약아는 그 특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아동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를 낮추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정신연령(M.A)은 낮다 하더라도 생활연령(C.A)이 높으면 M.A와 C.A를 감안한 독특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정신박약아 교육과정의 특징이 있다. 특수학급 개설에 앞서서 우리학교(대구남양)의 교육자정시안을 제공한 일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 곳도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그 내용의 정도가 너무 낮아서 곤란하더라는 것이다. 본교의 시안은 IQ 50~70정도에 알맞는 시안인데 학력부진아(IQ 정상)들에게 적용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는 상대아동의 실태(IQ, MA, CA, SQ, 등)에 알맞는 내용으로 재구성했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하여 각 학교에서 재구성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도 일반 학교의 것을 쓰거나 학년을 낮추어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정신박약 아동용 교과서가 따로 있어야 편리하겠으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난의도를 고려한 많은 등급의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일반아동용 교과서는 참고로 쓸수는 있으나 사실상 실용성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가 만들고 수집하고 그리고 한 학습자료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수학급에는 다른 학급보다 재정적 밀반침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물에 의한 감각

행동적(感覺行動的) 학습이 바로 정신박약아의 학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지적인 교과학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습관 건강 성격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관계들의 생활지도와 직업적인 기초기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생활을 위한 생활에 의한 생활교육>이 바로 이들 교육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부형들은 교과학력의 향상을 기대하는가 하면 교사들도 교과학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성과를 논의 하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아직껏 정신박약아 교육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나라 실정이고 보면 모든 것을 정상아의 교육을 기준으로 한 사고와 안목이 뿌리깊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만약 교과학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정신박약인지 모른다.

8. 일반학급과의 문제

정신박약아들을 가려내어 한 학급에 수용하여 따로 지도하게 되면 일반학급과는 전연 인연을 끊은 고도(孤島)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따로 분리 하는 것은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이 커져 사회인이 되면 정상인들 틈에 끼어 살아나아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상아동들과의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그 적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개별 지도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상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조회, 소풍, 운동회, 송충구제, 길거리 청소, 어린이회, 꽃밭손질 등등 학교행사에는 빠짐없이 참가시켜야 한다. 특수아동이라고 해서 학교 행사나 집회 활동등을 기피하게 되면 사회적 적응능력은 더욱 뒤떨어져 그야말로 사회적인 낙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의 경영에 있어서는 특히 일반학급과의 접촉문제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즉 이합집산(離合集散)으로 유동성(流動性)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

9. 성적평가와 통지표의 문제

정신박약아의 성적 평가는 일반아동과 같은 방법은 무의미 하다.

정신박약아 교육의 목표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잔존능력(殘存能力)을 최고도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 개인차가 다양하며 그 발전의 속도나 가능성도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개적 성장을 지켜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아동을 위한 현행 생활기록부나 통지표도 그 서식이나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본교는 우선 실험용으로 본교 나름대로의 시안을 만들어 적용해 보고 있다. 통지표에 대한 것도 예로 들어본다면 점수나 수, 우, 미, 양, 가 식의 평가가 아니고 그 영역의 발달 상황을 문장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간단한 말을 받아 쓸 수 있다.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산수의 경우 5이내의 가감을 할 수 있다. 10가지의 수자를 쓸 수 있

다. 돈을 가지고 간단한 일용품을 살 줄 안다.

길고 짜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등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즉 그 아동의 현재의 능력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정도이다. 이것으로 전학기나 전학년(前學年)의 것과 비교하여 그 개적 발전의 양상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가나 통지표의 문제는 이번 1학기 말에도 각 특수학급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구체적인 시달이 있을것으로 아나 일반아동의 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10.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문제

우대받기 위하여 특수학급을 맡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경영이란 다른 일반 학급에 비해 한결 고달프고 어려운 업무량이 많다. 아동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 결을 떠날 수 없고 15명이란 적은 인원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과 같은 정도의 교재로서 일제학습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적어도 4복식 5복식이 예사이고 심하면 15복식의 어려운 수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4.5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교사는 일정시간 휴식하지 않으면 다음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칠대로 지쳐버린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당장 내일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교재 교구 학습자료도 없는 백사장이기에 모두 교사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그뿐이 아니다. 문제성을 가진 아동에 대한 지도 대책 가정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편지) 등등 실로 담당해 보지 않는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복잡한, 그야말로 힘에 겨운 업무부담인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이 활발한 나라치고 특수교사를 우대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예를 들면 특수교사를 너무 우대하는 것이 오히려 특수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즉 이념을 가지고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좋으니 지원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월 3,000원의 특수수당을 더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않아 그 정도의 혜택은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는 관계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약간의 수당을 더 지급하면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고무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알고 전통이 없는 우리나라이고 보면 몇가지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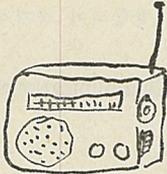
그 하나는 업무량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문제이다. 남들은 80명식이나 데리고 고생하는데 15명 정도를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잔소리나 하는 식이 될까봐

우려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분장도 더 떠 맡기게 될 수도 있고 힘에 겨워 일을 잘 추진하지 못하면 무능하거나 무성의해서 그런 것으로 오인하여 백안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적주의 근무성적 평정원칙에 따라 불리(不利)한 평정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학급을 맡게 되면 노력에 따라 일제고사성적도 올릴 수 있고 각종 경연에 응모하여 입상할 수도 있지만 특수학급을 맡으면 그런 겨름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들어나는 실적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 부족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적이 없는 근무같이 보이게 된다. 특수교사의 근무평은 장차는 별도로 평정되고 별도로 서열(序列)이 지워져야 하겠지만 우선 그때까지라도 불리한 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1페이지로부터>

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어린시절에는 外的條件으로 부터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겠끔 지도의 중점적인 것이 될 수 있으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쫓아서 안으로 부터 학생의 행동에 육성시키는 浩然之氣를 키워나가는 것이 생활지도에서 근본적인 관건인 것을 말할 수 있다.

라디오 학교방송을 이용한 교수 학습 실제



강 찬 중

<대구 신암 국민학교 교사>

<목 차>

- 一. 학교 방송의 정의
- 二. 방송의 교육적 가치
- 三. 학교 방송 이용의 실제
 1. 이용의 방침
 2. 청취 방법
 3. 청취 현황
 4. 방송 교재의 재편성
 5. 교재 내용 및 학습지도안
 6. 자작 교재의 활용
 7. 학교 방송 청취 지도의 실제
- 四. 학교 방송 이용의 평가

1. 학교방송의 정의

학교방송은 ¹⁾교육방송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특히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과 관련이 있는 방송을 계속 조직적으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송법²조 4항에

“학교방송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

1) 장운표 : 학습을 위한 방송과 녹음자료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1966. p.64 미국 w. w. charters는 인간의 취미와 생각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익한 지식의 영역을 넓혀 청취자가 방송을 들은 후에 어떠한 유익한 활동을 하려는 의욕을 일으키는 방송을 모두 교육방송이라 한다.

로 학교방송의 특징은

- ① 무선으로 전달의 매개체로 하며
- ② 대상은 순서 내용의 구별에 따라 특정 세분되나 수적으로 지역적으로 방대하다.
- ③ 기구를 통해서 기획 편성 방송실시 기술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있다.
- ④ 교과서에 기준을 두어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 지도서가 편집 발행되어 장기적인 계획성이 선행된다.
- ⑤ 학교방송은 주로 청취활동 즉 듣는것에 치중하는 일방적인 Communication에 치중한다.

二. 방송의 교육적 가치

학교방송을 하나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가치성을 먼저 생각하여야겠다.

1. 학교방송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여 준다.

방송은 즉시(即時) 적시적(適時的)인 기능으로 산지식과 항상 현재라는 시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달성하기 힘든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여 준다.

학습의 흥미는 학습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 아동의 스스로의 흥미에서 출발한 자주적 학습방법으로 자주적인 사고, 행동, 태도가 형성되며 특히 전 신경을 청각각에 집중하여 학습하는 효과는 교육적으로 위대한 힘을 기대할 수 있다.

3. 아동의 생활 감정을 풍부히 하고 태도 변용에 관계를 가진다.

방송의 교육현장 도입에서 지식, 기술면의 치중으로부터 감성적인 면을 도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의 적극적인 활용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교사의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학교방송의 특종 교육방송에서는 낡은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된 기술을 제시하고 새로운 교재나 교육기술에 대해서 적절한 시사를 주어 학습지도 기술 향상에 공헌을 한다.

이와같은 방송의 교육적인 가치를 살펴 보았으나 방송의 한계성, 즉 청각 인상에 의거하는 자료이며, 방송의 경시성 방송의 획일성, 일방적 전달등의 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는 학습지도에서 충분히 그 단점과 한계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三. 학교방송의 이용실제

1. 학교방송 이용의 방침

메스·콤을 통한 교과 교재의 학습 경험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하여 학교방송을 학습 현장에 이용한다.

1차적으로 5학년 사회과를 녹음 재생 및 재편집하여 활용한다.

2. 청취의 방법

청취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취되도록 시도되었다.

- ① 라디오 직접 청취
- ② 라디오—레시버 연결 청취
- ③ 스피커 직접 청취
- ④ 스피커—레시버 연결 청취

3. 라디오 학교방송의 청취현황

가. 라디오 학교방송

- 5학년 16개 반(사회과)
- 자작교재의 활용—6학년(반공·도덕)
- T.V 학교방송

4의4 음악 5의8 사회·자연 6의14 자연

1차년도(71년도)에는 교육과정 시간배당과 방송시설을 고려하여 라디오 학교 방송은 5학년 16개 반 전반에 사회과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고 점진적인 활용 전회를 수립하여 전면적인 이용이 되게 하였다.

4. 방송교재의 재편집

이 지역은 서울 중앙방송국 제2방송(970KC)의 난정지역에 해당하므로 학교방송 청취를 위해서는 재편집이 필요하다.

가. 재편집 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 1) 매주 월(5학년) 10:00~10:45(15분간) 방송되는 학교방송 내용을 생방송으로 방송실에서 직접 녹음한다.
- 2) 녹음된 내용을 단원전개의 활용에 이용될 수 있게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리단계별 단원의 특질을 살려 재구성한다.
- 3) 재구성된 내용을 본교의 여건 아동의 실태 정도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 편집하여 학습지도 과정에서 보조자료로써 활용 한다.
- 4) 재 편집된 내용은 연간 계획에 의거 주요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학습현장에 도입 하도록 하였다.

5. 방송교재 내용 및 학습지도안

라디오 학교방송 프로(K.B.S. 제2방송970KC) 및 문교부 중앙시청자 교육원에

서 진행된 라디오 학교방송 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안을 작성 활용하였다.

※ 예시(라디오 학교방송 : 문교부·중앙 시청각 교육원간)

날짜	시간	프로	방송 제목	방 송 내 용
18/5	10:30	사 회 교 실	산 업 혁 명 이 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원인을 알아본다. ○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의 영향을 알아본다. ○ 산업혁명이 세계 여러나라의 공업발달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 기계 발명과 산업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발달한 공장공업의 현황과 교통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 라디오 학교 방송의 지도안 예시 라디오 학교방송 내용이 방송실에서 녹음—재구성—재편집된 내용을 매주 금요일 2교시에 5학년 전반에서 스피커—레시버 연결 청취로 다음 지도안에 의해서 학습이 전개됨.

사회과 학교 방송지도안

1971년 5월 28일 금요일(10:5~10:20)—5학년 사회 교실—							
단 원	기계의 발달 과 산업	방송 제목	산업혁명 이 야기	시청 방법	녹음 재편집 방송	학 반	5학년 전반
주 안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원인을 녹음방송으로 들어서 3가지 이상의 보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혁명이 공장공업에 끼친 영향을 2가지 이상 보기를 들어 발표 할 수 있다. ○ 산업혁명이 우리생활에 준 영향을 오늘의 생활과 비교해서 3가지 이상 쓸 수 있다. 						
방 송 내 용	청 각 적			시 각 적 및 행 위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혁명 이야기(보기 제시) ○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이유 ○ 산업혁명과 공장공업의 발달에 준 영향 ○ 공업의 종류 ○ 산업혁명이 끼친 우리생활의 변화 ○ 산업혁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아그리브스의 실 짜는 기계 그림 ② 방직공장 그림(내부작업) ③ 방직공업의 발달사를 나타내는 사진 • 방송 내용의 구조도 • 우리나라 공업발전상 사진 			
청	사 전 지 도		청 취 중 지 도		사 후 지 도		
	○ 방송 제목의 제시		아동의 시청 사항 점검		○ 의문점의 질의		

취 지 도 의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줄거리 압 시 • 주안점의 명시 	(시각 자료 ① 제시) <u>산업혁명 이야기</u> ↓ (시각 자료 ② 제시) <u>공장 공업의 종류</u> ↓ (시각 자료 ③ 제시) 종류요약 ↓ 내용 요약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협의 요약 판서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내용에 의존하는 토론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자작교재의 활용

가. 학교방송 이용과 관련하여 본교에 제작 비치된 국민교육헌장이념 구현을 위한 녹음 자료 108종을 6학년 반공도덕 및 국민교육헌장의 통합과정과 유관 활용 계획을 작성하였다.

예 3월의 예시

자작교재 방송프로

제6학년 반공도덕(녹음자료) ※ 단원란 { 숫자...통합과정 단원 순번
 ...바른생활 단원
 ...교육헌장 독본

월	주	단	원	녹음 자료	적용 단계		시간	자 료
					도입	전개 정리		
	1	1.	우리의 길 • 국민교육헌장암기 ① 우리의 길	• 헌장발표 및 담화문 (421-1)		○	5분	• 국민교육헌 장 위문 • 박대통령 사진
	2	2.	자주독립 ⑤ 자주독립	• 총신 송상현 (421-24)	○		3분	• 대한민국 지도
	3	3.	소질 계발 ⑩ 소질 계발	• 토마스에디슨 (421-31)		○	10분	• 에디슨초상 화 • 여러가지발 명품 목록
	4	4.	공손 · 질서 ⑤ 끊어진 철로 · 공익과 질서	• 교통도덕 (421-37)	○		5분	• 교통 정리 사진
	5	5.	애국애족 ⑰ 끊어진 철로 ⑰ 애국애족의정신	• 나라를 사랑한 소년 (421-40)		○	3분	• 대한민국지 도 • 유럽 지도

나. 활 용

- 1) 자작교재 방송프로에 의해서 6학년 전반 매주 금요일 1교시 반공도덕 시간에 방송 된다.
- 2) 방송은 적용단계의 소요시간에 의해서 녹음자료를 방송하도록 한다.
- 3) 녹음자료는 보조자료로서 제공하고 타 학습자료도 준비하여 동시에 활용되도록 한다.

7. 학교방송의 청취지도의 실제

학교 방송은 청취지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교에서는 초보적인 훈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청취전의 지도, 청취중의 지도, 청취후의 지도안을 마련하여 기초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가. 청취전의 지도

- ① 방송전 칠판에 방송의 주제와 학습과제를 쓰고 학습목표를 설명한다.
- ② 방송주제에 관하여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시키고 방송 대본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알려준다.
- ③ 방송주제에 관해서 아동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열거 발표 시킨다.
- ④ 방송주제에 관하여 볼 수 있는 필요한 학습자료를 수집 혹은 제작하여 많이 보여준다.
- ⑤ 방송 직전에 조용히 듣고 어떤 방송일까를 생각하는 분위기를 2~3분간 조성한다.
- ⑥ 방송에서 나올 중요한 단어를 판서하여 설명한다.
- ⑦ 교사는 아동들에게 청취요령과 학습할 과정에 대한 예정을 이야기 한다.

나. 청취중의 지도

- ① 교사가 진심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얼굴 표정으로 청취하는 열의를 보인다.
- ② 청취하면서 아동의 이해에 어려울 방송내용과 청취태도가 불실한 아동상태를 기록하여 청취후에 이해를 확인할 준비를 한다.
- ③ 방송 내용에 관계되는 시각적 학습자료는 방송을 듣는 동시에 즉시 볼 수 있도록 보는 곳을 가르쳐 준다.
- ④ 새로나온 어려운 단어나 중요한 말은 칠판에 판서 한다.
- ⑤ 방송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청취 태도를 지도한다.
- ⑥ 청취활동에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주력을 두며 필요한 범위에서 필기시킨다.

청취후의 지도

- ① 방송청취 직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느그렇게 청취태도를 반성한다.
- ② 방송내용에 관해서 좋고 재미있는 것과 나빴던 것을 즉흥적인 1문 1답으로 이야기 시킨다.
- ③ 방송청취한 것에 관해서 아동들의 질문을 받는다.

④ 방송에 사용된 새로운 단어나 필요한 지식을 간추려 이야기 하면서 칠판에 쓴다.

⑤ 칭취웃점을 간추려 기록시키고 자발적으로 몇 아동들에게 발표 시킨다.

⑥ 방송 내용에 관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과 실제 배운것 그리고 좀 더 배워야 할 것을 다시 이야기 시킨다.

⑦ 칭취내용을 기초로 관제되는 필요한 다른 학습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보다 깊게 보충 지도한다.

⑧ 방송에서 배운것을 기회로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게 또는 다른 관계로 넓게 공부할 과제를 협의한다.

⑨ 단원지도 목표에 다른 학습요소의 학습활동 지도의 철저를 기하며 방송에서 의존하는 지도에서 벗어 난다.

⑩ 될 수있다면 유사한 주제로 아동들이 방송대본을 쓰고 모의 방송활동의 연습을 시킨다.

四. 학교방송 이용평가

· 학교 방송의 이용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 현장교사의 학습지도법 개선에 부분적 시사를 주어 교사의 자질향상에 도움을 가져왔으며
2. 아동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태도의 변용을 가져 왔으며 학습 내용 확충의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3. 청감각의 집중 훈련으로 타 교과외 학습에도 적극성을 보였으며
4. 현재 라디오 학교방송은 지방 방송국에서 중계하지 않으므로 칭취 효과가 문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 각개전투 훈련 강화책



이 태 용
(대구 협성상고교 교사)

< 목 차 >

- | | |
|-------------------|---------------------|
| 一. 머리말 | 나. 훈련장개선과 야영훈련강화 |
| 二. 각개전투 훈련 과목의 목적 | 다. 시간조정 |
| 三. 각개전투 훈련의 문제점 | 五. 세부교육내용과 보조자료 이용법 |
| 四. 문제점의 해결과 훈련강화책 | 六. 맺는 말 |
| 가. 교육범위의 확정 | |

一. 머 리 말

고등학교의 각개전투훈련은 신설된 과목이며 훈련장과 교육보조재료의 미비로 교육범위와 훈련방법이 학교별로 다르고 각개전투훈련을 철저히 다루지 못할 염려마저 있기 때문에 이 과목 발전의 동기라도 되고자 소견을 적는 바입니다.

二. 각개전투훈련과목의 목적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반공훈련시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야영훈련과 야외훈련 및 행군훈련시에 기본적인 상황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방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개전투훈련은 전투장에 있어서 각개병사가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사격과 기동을 연결하여 적의관측과 화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장애물을 통과하고 적에게 접근하여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육박전을 감행하는 공격정신을 배양하는 훈련인고로 실감나는 훈련장과 적극적인 훈련의 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三. 각개전투훈련의 문제점

각개전투훈련은 각종 지형지물이 실감나게 배치된 훈련장이 있음으로써 훈련장이나 각 학교의 현여건으로 보아 훈련장의 설치나 획득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학교운동장에 지형지물을 수시로 배치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며 지도 검열시에도 점검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훈련을 소홀히 할 염려가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범위와 훈련방법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없는 중요한 이 과목의 목적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四. 문제점의 해결과 훈련강화책

1. 각개전투훈련의 교육범위 확정

(1)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과목의 목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 은폐와 엄폐

둘째 : 위장

셋째 : 지형지물이용

넷째 : 주간이동과 전투태형

다섯째 : 야간이동

여섯째 : 수류탄투척훈련

(2) 제1, 2학년의 각개전투 훈련은 방공훈련에 필요한 제반동작을 위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연간 배당시간도 2시간 인고로 교육범위는 다음의 두 가지가 적당할 것입니다.

첫째 : 은폐와엄폐 및 위장

이 과목의 훈련은 시범과 실습으로써 다음 내용이 포함하게 됩니다.

- ① 은폐와 엄폐의 의의
- ② 위장규칙
- ③ 주야간의 개인위장요령
- ④ 장비위장요령
- ⑤ 진지위장요령

둘째 : 지형지물의 이용

이 훈련 역시 시범과 실습으로

- ① 은폐요령
- ② 지형지물이용방법 등이 훈련되어야 하며 2학년은 실습에 중점을 두고 숙

달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3) 제3학년은 야외에서 실시하는 제반훈련시에 기초적인 사항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첫째 : 위장요령과 지형지물이용법의 훈련이 반복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 주간이동

셋째 : 분대전투대형

넷째 : 야간이동

다섯째 : 수류탄투척 훈련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간이동 훈련에는 이동규칙, 약진요령과 포복동작을 범위로 잡고 약진요령에는

첫째 : 일제약진

둘째 : 구분약진

셋째 : 각개약진등이 훈련되어야 하겠으며 포복에는

첫째 : 낮은포복

둘째 : 높은포복

셋째 : 돌격단계의 훈련이 실시되어 과감한 공격정신이 배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수류탄투척훈련은 돌격단계훈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2. 훈련장개성과 야영훈련강화

각개전투훈련장은 학교운동장에 설치 불가능하고 훈련장의 획득도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1) 인근에 있는 기존훈련장 사용 :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장이나 군부대훈련장으로써 가까이 있을 때 : 이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하지 않는 시기의 조정등의 단점이 있다.

(2) 학교에선 주로 시범을 하고 야외훈련 또는 야영훈련시에 실시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강의 또는 시범과 실습의 연결에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며 야영훈련에 이상적인 지형지물이 있어야 하겠으며 1, 2학년은 야영훈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3) 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보조물을 수시로 설치하여 훈련하는 방법 :

(가) 각개전투훈련에 필요한 것은

① 모지 또는 담벽

이와 같은 지형지물은 이미 각 학교에서 제작 사용중에 있는 감사틀과 조준틀 및 모포와 위장망 등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으며

② 철조망 등의 장애물은 새끼줄로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또랑이나 호는 운동장 한쪽에 교육용으로 고정설치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④ 최종표적은 총검술표적을 이용함으로써 중요한 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

겠습니다.

⑤ 1 및 2학년의 경우는 시간 관계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4) 학교 운동장에서 이동식 보조물로 훈련을 실시하고 야외 또는 야영 훈련지에 종합적으로 반복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가능한 방법이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써 각 학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이며 성의있게 지도할 때 기초적인 능력과 공격정신이 배양될 것으로 믿습니다.

3. 시간조정

효과적인 각개전투훈련을 위하여 각개전투시만은 2시간씩 조정하여 훈련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와 숙달을 위해서나 교육보조재료의 취급면에서 크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五. 세부교육내용과 보조자료 이용법

1. 엄폐와 은폐 및 위장

(1) 엄폐

- (가) 엄폐의 의의
- (나) 천연적인 것
- (다) 인공적인 것

(2) 은폐

- (가) 은폐의 의의
- (나) 천연적인 은폐물
- (다) 인공적인 은폐물

(3) 위장

- (가) 위장의 정의
- (나) 위장규칙
- (다) 개인위장
 - ① 주간개인위장
 - ② 야간개인위장

(라) 장비위장

(마) 진지위장

(4) 시범진행요령

- (가) 풀과 나무잎으로 위장한 모습
- (나) 진흙과 솜으로 안면위장 모습

(다) 소총의 총대와 총열에 진흙으로 위장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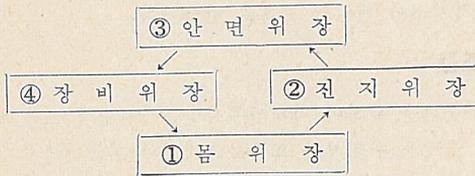
(라) 개인호위장시범

(5) 실습 방법

(가) 코스별로 소조를 편성 순회

(나) 코스별로 훈련된 조교배치

(다) 코스별 실습장



2. 지형지물이용

(1) 은폐요령

(2) 지형지물 이용방법

(가) 물체의 측면을 이용하여 사격하고 관측할 것

(나) 가능한 낮은 자세로

(다) 물체의 정상을 이용할 때는 배경을 선정할 것

(라) 저명한 지형지물을 피할 것

(바) 건물내에서는 적당히 깊숙히 들어가서 관측

(3) 시범

(가) 진행요령

① 조교로 하여금 지형지물을 지시에 따라 이용케 하고 장단점 설명

② 필요시 도시설명

(나) 설명 중점

① 물체의 우측을 이용 사격하고 좌측으로 돌아 전진

② 물체의 3보전까지 포복

(4) 실습

(가) 실습중점

① 지형지물을 이용한 사격자세

② 사격과 기동요령

③ 각종 지형지물의 이용

(나) 실습장

① 1코스 : 나무그루 2개

② 2코스 : 마대 10개로 돌담

③ 3코스 : 마대 15개로 틈

④ 4코스 : 조준틀 5개와 모포 1매를 묘지를 만들

⑤ 5코스 : 마대 10매로 개인호를 만든다.

3. 주간이동

(1) 이동규칙

(2) 약진

(가) 일제약진

(나) 구분약진

(다) 작개약진

(라) 약진동작 11가지

(3) 포복

(가) 낮은 포복

(나) 높은 포복

(다) 돌격

(4) 실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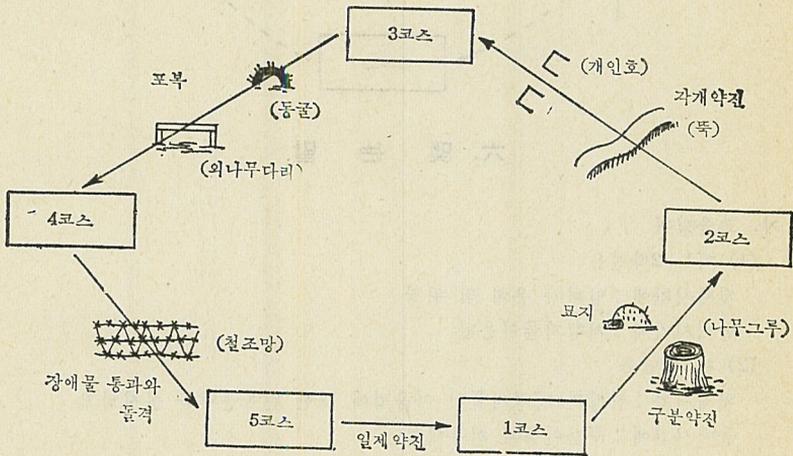
(가) 1코스 : 조준틀 5개를 밑에 4개 놓고 위에 1개를 놓은다음 그 위에 모포를 뒤집어 뒤어 묘지를 만든다.

(나) 2코스 : 마대 10매로 개인호를 만든다.

(다) 3코스 : 외나무다리 같은 것으로 장애물을 설치한다.

(라) 4코스 : 새끼줄로 철조망을 만들되 폭 2m 길이 5m 정도

(마) 5코스 : 총검표적



바람직한 주간이동 실습장

(5) 실습요령

(가) 분대별로 각 코스 순회 실습

(나) 1코스 : 일제약진 실습

(다) 2코스 : 구분약진 실습

(라) 3코스 : 각개약진 실습

(마) 4코스 : 주간포복

(바) 5코스 : 철조망통과 요령 및 돌격선에서의 행동 및 돌격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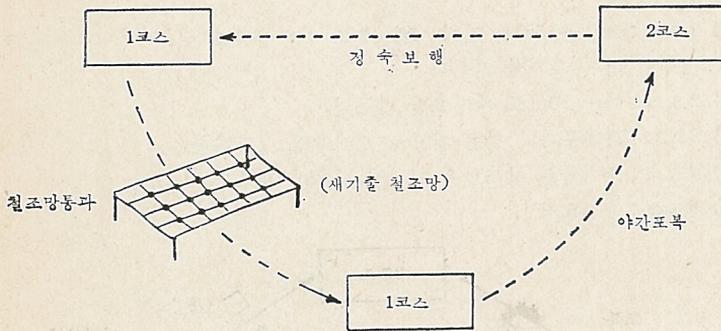
4. 야간이동

(1) 야간이동규칙

(2) 야간정숙보행

(3) 철조망통과

(4) 실습장



六. 맺 는 말

가. 교육범위

(1) 제1, 2학년은

첫째시간에 : 엄폐와 은폐 및 위장

둘째시간에 : 지형지물이용법

(2) 제3학년은

첫째시간 : 위장과 지형지물의 이용법에 대한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둘째시간에 : 주간이동과 전투대형

셋째시간에 : 야간이동

넷째시간에 : 수류탄투척요령과 돌격단계훈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나. 훈련장사용과 교육보조재료획득

(1) 제1, 2학년은 이동식 훈련보조재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학교운동장에서 훈련토록 하고

(2) 제3학년은 학교운동장에서 최대한의 훈련자료를 활용하여 시범과 실습을 실시하고 야영훈련시에 종합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이 각개전투훈련은 지도교사가 성의를 갖고 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함으로써 전투기술을 익히고 체력을 단련하는 동시에 과감한 공격정신을 배양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라. 교육보조는 기존장비와 보조재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이동식으로 사용할 것이며 부족되는 재료는 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마. 훈련장은 훈련보조자료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실감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 끝으로 본과목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각개전투훈련강화책이 여러분에 의하여 계속 나오기 바라며 너무나 연구기간이 짧은 탓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음을 시인하면서 맺습니다.

“훈련은 곧 전투다”

어린 아이들의 존재는 이 땅위에서 가장 빛나는 혜성이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어린애들의 생명체는 한없이 고귀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속에 미(美)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어린 아이들 틈에서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생활은 고스런히 하늘에 속한다 <아미엘>

화생방 교육과

속달시험장 설치에 대하여



이 상 원

(영천 고교 교사)

현대전은 고도의 기동성과 제병과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는 전쟁무기의 생산과 또한 날로 급변하는 국제 경제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화생방 교육은 전국민적으로 필요 불가결의 과목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우기 북괴 김일성은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 시기만 포착하면 언제든지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설령 1925년 제비바 협정에 의거하여 유독성 화학, 생물학 작용제를 교전국 상호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의 적들은 화생방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국가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총력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본란에서는 화생방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은 피하고 적의 화생방 작용제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나 하는 것과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써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약술하고 끝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시하는 화생방 속달 시험장 설치 및 요령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민방공 훈련에 대해서 부터 간략하게 논하면,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현대전은 고도의 기동성을 요구하고 전쟁무기는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적기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전달과 아울러 민첩한 행동으로써 최소한의 피해를 입어야 하겠으므로 전국민은 각종 경보에 대한 식별법과 이에 대한 취할 행동을 꼭 알아야 하겠기에 민방공 훈련에 대한 자진 참여를 하여야 하겠으며 각급학교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계몽교육을 하여야 하겠다.

경보요령, 취할행동 등에 대해서는 이미 메스쿤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으며 또한 관계 당국에서 발간한 각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다음은 화학전에 있어서 작용제의 사용시기, 기상 및 지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

으며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겠으며, 각종 작용제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별첨한 것을 참조바라며, 화학전에서 자체치료법과 보호 장비의 종류와 보관, 관리, 사용법 등은 꼭 알아야 하겠다.

생물학 작용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몇년전 복괴가 대일 세균 발주사건과 휴진선 근방에서 우아 독소를 사용한 것을 상기할 때 더 한층 화생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겠으며 생물학전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에 대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겠으며, 방호요령을 숙지해야 하겠다.

끝으로 방사능전에 대해서는 2차대전 말기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아서도 얼마나 무서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선진국에서는 핵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금지 협정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보아서도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적들인 북괴, 중공, 소련에서 핵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더 한층 이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화생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개인 및 집단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겠으며 민방공 훈련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시되는 화생방 교육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이론과 인군 군부대 및 관할 경찰관서에서 협조하면 별첨한 숙달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교부 기술표 및 군부대에 실시하는 요령에 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으니 많은 충고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화 학 작 용 제 의 특 성 (참고)

화 학 작 용 제 기 호	68°F(20°C)에 서 상태	범 세	눈과 피부에 대한 독성	작 용 속 도	인체에 미치는 효과	필요한 정보	제 독 (지역 및 물자)	야전탈지 수단	정 술 전 용 용 도
포스젠 CG	무색기체	만백어울은 불, 열이온 흡수	없음	주각내지 3시간	폐에 피해와 액을 증발, 질적작용제	방독면	야전에서는 불필요 통풍 밀폐 공간에서는 통풍	ABC-M18A ₂ 컬트: 릴새	살 작 용 제
타분 GA	무색내지 갈색액체	야전에서 탐지 불가	배우포움	호흡계통으로는 신속하나 피부로 흡수되는 것 신속작용제	양이 많으면 사망내지 심한 부종과 신경작용제	"	S.T.B 스테리 폼은 안키리 또는 DS ₂ 제한지역에는 증기와 안포니아	AN-M15A ₂ A 및 ABC-M18A ₂ 컬트	"
사린 GB	무색액체	"	"	호흡계통: 매우 포움	양이 많이 받으면 사망내지 심한 부종화, 안포니아	"	제한 지역에 증기와 안포니아, 뜨거운 비	"	"
소란 GD	"	"	"	"	"	"	STB 스테리 폼은 일 카리 제한지역에는 뜨거운 비	"	"
Vx	"	범세없음	"	호흡기: 신속 피부: 수시간에서 1시간 이하부터까지 지시	흡입 흡수되는 살상발생 신경작용제	방독면과 보호의	STB 스테리, DANC 또는 DS ₂ 용액, 뜨거운 비	"	살상작용 제 기 흡입의 는 지연된
시안화수소 AC	무색액체	복숭아지	보통	매우 신속	신체 조직의 산소 사용 방해 증이 기쁨. 혈액작용제	방독면	야전에서는 불필요	ABC-M18A ₂ 컬트	살상작용 제
염화시아노젠 CK	무색기체	AC와 유사 탐지 곤란	보통	신속	진심 자극 및 완만관 호흡속도, 혈액작용제	"	"	ABC-M18A ₂ 컬트 AN-M15A ₂ A	"
중류겨자 HD	무색내지 연황색 액체	마늘냄새	눈...감수성 피부... 눈 자극	지연 수시간에서 수일	피부에 붉은 색이나 수포상부품 흡입 시 호흡기 작용제	방독면 보호의	STB, DANC, M5 포약 소각, DS ₂	"	"
질소겨자 HN-1 HN-2 HN-3	무색액체	생선냄새나 문향이 냄새	피부보다 눈이 감수성이 높음	지연 12시간 이상	피부에 붉은 색이나 수포상부품 흡입 시 호흡기 작용제	"	STB, DANC 소각	"	"
포스젠액심 Cx	무색고체	에틸렌 냄새	눈, 코, 피부 강하게 자극	전촉시 즉자효	눈과 코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 신속히 흡수되는 작용제	"	절리 효과없음, 세척	"	"
부이세이드 L	검은오일 같은액체	제라플과 같은 냄새	피부보다 눈이 감수성이 높음	신속	HD의 유사하며, 기관 체통의 증독현상, 포착작용제	"	STB, DANC 소각, DS ₂	ABC-M18A ₂ 컬트	"

가능한 생물학 대인 작용제 (참고)

종류	병명	원인 미생물	잠복기간	사 망 율	무능화 기간	비 고
세균	탄저병	탄저균	1~7일	피부 1~20% 폐장 : 99%	피부 25일 폐장 40일	아포형성
	지중해열 (과상열)	부르세라 종류	6~60일 (평균 14일)	2~3%	3주~4개월 혹은그 이상	진단곤란
	야토병 (토기병)	야토병균	1~10일 (통상 3일)	30%	2~4주	
	선페스트 페페스트	흑사병균	2~19일 3~4일	25~50% 90~100%	7~4일 2주	높은 전 염율
바이러스	뇌열	바이러스	4~10일	5~60%	7~10일 혹은 그이상	절족 동 물의 매 개
리케치아	유행성지브스	리케치아 푸로와제끼	10~12일	10~40%	3주 이상	
	지방지브스	리케치아 무세리	6~14일 (통상 12일)	2%		
	록키산열	리케치아 리켈이	3~10일	20%	3~6주 혹은 그이상	
	Q열	곡식에라버 메리	18~21일	1%	5일~3주	
곰팡이	제곡열	카지디오메인 미티스	10일~3주 (평균12일)	미지	2주~3개월	
독소	보트리움	크로스트리 디움보트리움	12~72시간	65%	1주~5주	

화생방 숙달 시험장 설치 계획 및 시험요령 (안)

1. 목표

장차 예상되는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하면서 신속한 경보진달과 자체보호 및 집단 보호 대책에 숙달할 수 있게 한다.

2. 일반계획

가. 매월 1회 실시하는 방공훈련시 화생방훈련을 겸하여 실시한다.

나. 전학생에 대하여 년1회 별도 기준표에 의한 화생방 숙달 시험을 실시한다.

다. 숙달시험은 5단계로 구별하여 실시하며 총 100점단점으로 한다.

라. 구두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 중 일부는 별도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마. 시험은 제1단계부터 순회 하면서 실시하며 인근장소에 설치한다.

3. 세부계획

가. 제1 시험장 (제1 단계) : 경보 및 간이 핵방어 흙 피호 형태 (참고) 신호

1) 목적

방공 경보의 종류와 각 경보에 대한 각종 신호 규정을 숙달시키고 경보하달 요령을 숙달시킨다.

2) 개념

시험관은 피시험자에게 숙달기준표(채점표)에 의거 질문 또는 상황을 부여하면 피시험자는 적절한 답변과 행동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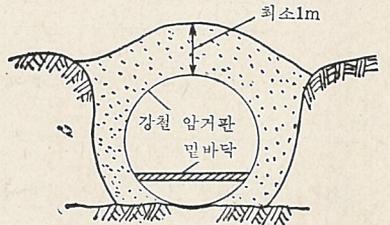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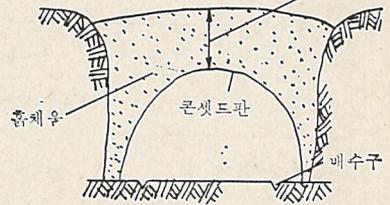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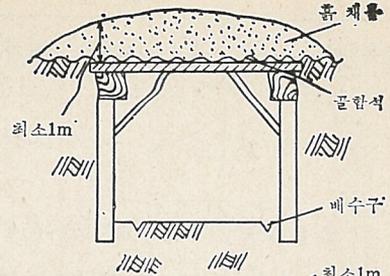
3) 시험장 설명

책상위에 각종 신호기와 경보기를 비치하여 둔다.

4) 피 시험자에 부여할 사항 : 별첨 채점표 #1 참조

5) 소요시간 : 분

6) 소요장비 : 책상, 신호기(황색 청색 흑색) 마이크, 종 기타



나. 제2 시험장(제2단계) : 화학전

1) 목적

화학전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화학작용제의 사용 시기 및 지형과의 관계 각종 작용제의 종류 및 용도, 증상, 자체치료법, 경보전달 등을 숙달시킨다.

2) 개념

시험관은 피시험자에게 숙달기준표에 의거하여 질문 또는 상황을 부여하면 피시험자는 적절한 답변과 행동을 하면 시험관은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채점한다.

3) 시험장 설명

책상위에 화학전에 필요한 각종치료 약품과 방독면 보호의 오염표식판 등을 준비하여 둔다.

4) 피시험자에 부여할 사항 : 별첨 채점표 #2 참고

5) 소요시간 : 분

6) 소요장비 : M5 보호고약, 아도로핀 주사, 가제 또는 슝, 책상, 물, 비누, 오염표식판, 방독면, 우의 등

다. 제3 시험장(제3 단계) : 생물학전

1) 목적

생물학전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생물학 작용제의 종류, 증상, 제독법, 방호요령, 음식물 선택법 등을 숙달시킨다.

2) 개념

시험관은 피시험자에게 기준표에 의한 질문이나 또는 상황을 부여하면, 피시험자는 여기에 적합한 답변과 행동을 취한다.

3) 시험장 설명

책상위에 각종 음식물과 비누, 물, 오염표식판, 제독약품 등을 준비하여 둔다.

4) 피시험자에 부여할 사항 : 별첨 기준표 #3 참고

5) 소요시간 : 분

6) 소요장비 : 통조림, 과일, 비누, 물, 음식물 (밥종류 : 모의풀메치) 오염표식판, 피복 (보호의, 우의) 방독면 제독약품

라. 제4 시험장(제4 단계) : 방사능전

1) 목적

방사능전에 대한 신속한 행동으로 피해를 최소한 감소시키는 능력과 핵무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부여한다.

2) 개념

각종 호(개인호, 도량, 담, 교통호)를 구축하여 놓고 핵공격시에 신속한 행동 및 기준표에 의해 핵무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시킨다.

3) 시험장 설명

개인호, 도랑, 담 등이 있는 곳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놓고 피시험자가 신속히 적절한 곳에 대피하는가를 점검한다.

4) 피시험자에 부여할 사항 : 별첨 채점표 #4 참조

5) 소요시간 : 분

6) 소요장비 : 개인호(유개호 무개호) 도랑, 담벼락, 보호의, 오염표식판 등

마. 제5 시험장(제5 단계) : 방독면 착용 훈련

1) 목적

방독면의 용도 및 착용 훈련을 숙달시켜 화생방상황하에 대처하게 한다.

2) 개념

시험자에게 방독면을 지급시키고 구두 또는 분무기로 상황을 부여한다.

3) 시험장 설명

방독면을 지급시키고 분무기를 피시험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여 놓고 갑자기 물을 살포(작용제 살포로 간주) 시킨다.

4) 피시험자에 부여할 사항 : 깨스 또는 분무기로 물을 살포

5) 소요 시간 : 분

6) 소요장비 : 방독면, 분무기, 물

화생방 숙달 시험 기준표

제1 단계 : 경보 및 신호

상 황 내 용	답변 형태	시 험 관 조 치	배점	특점	비고
1. 방공 경보의 종류는?	구두	구두질문	2		
2. 경계란 무엇이며 신호의 규정은 어떠한가?	"	"	1		
3. 공습 경보란 무엇이며 신호 규정은 어떠한가?	"	"	1		
4. 화생방 경보란 무엇이며 신호 규정은 어떠한가?	"	"	2		
5. 제군은 상부로 부터 경계경보라는 경보전달을 받았다. 취할 행동은?	행동	피시험자가 경보하달 방법과 대피준비 상태를 관찰	3		
6. 학교내에 청색 깃발이 계양되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행동	경보전달 요령과 대피하는 상태 관찰	2		
7.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겠는가?	구두	구두질문	2		
8. 지금 공습 경보가 하달이 되었다. 깃발을 계양하라.	행동	규정된 깃발을 계양하는가 점검	2		
계			15		

제2 단계 : 화학전

상 황 내 용	답변 형태	시 험 관 조 치	배점	특점	비고
1. 화학방 전을 배우는 배우는 목적은?	구두	구두질문	2		
2. 화학 작용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3. 화학작용제의 사용이 가장 좋은 시기 및 장소는?	"	"	1		
4. 신경성 작용제의 증상과 치료 약품은?	"	"	2		
5. 질식성 " "	"	"	2		
6. 혈액성 " "	"	"	2		
7. 누포성 " "	"	"	2		
8. 화학작용제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	"	1		
9. 게스가 살포되었다. 지금 바람은 서풍이 불고 있다. 보호절차는?	행동	바람이 부는 반대쪽 으로서고 행동상태	3		
10. 신경성 작용제에 오염이 된 환자가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	방독면 착용 상태 (순서), 치료 방법 결정	3		
11. 제군의 손에 수포성작용제가 오염이 되었다. 제독절차는?	"	약품 선택과 제독 순서에 따라 제독여부	3		
12. 아도로핀 주사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하라	구두	사용법과 주사 대수에 대해 결정	2		
13. 질식성 작용제에 대해서 치료법은? 계	"	구두질문	1 25		

제3 단계 : 생물학전

상 황 내 용	답변 형태	시 험 관 조 치	배점	특점	비고
1. 생물학전의 정의를 말하라.	구두	구두질문	2		
2. 생물학 작용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2		
3. 생물학 작용제의 종류는?	"	"	2		
4. 제군앞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이 죽어가고, 곤충이 비정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행동	구두질문 방독면 착용하고 오염 표식판 설치여부	4		
5. 생물학 작용제에서 오염표식판을 설치하라.	"	구두질문	3		
6. 제군앞에 생물학전 상황하에 여러 가지 음식물이 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는가?	"	오염에 관계없는 음식물과 제독하여 취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지 관찰	4		
7. 생물학 작용제의 제독법을 말하라. 계	구두	구두질문	3 20		

제4 단계 : 방사능진

상 황 내 용	답변 형태	시 험 관 조 치	배점	특점	비고
1. 방사능진의 정의를 말하라 .	구두	구두질문	2		
2. 핵무기의 3대 효과는 무엇인가?	"	"	2		
3. 핵무기에서 방출되는 2종류의 방사선은 무엇인가?	"	"	2		
4. 핵폭발의 형태를 말하라.	"	"	2		
5. 방사선을 많이 받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	"	2		
6. 핵방사선을 받았을 때 증상은?	"	"	2		
7. 핵무기가 투하되고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행동	호의 선택방법을 점검	4		
8. 낙진이 끝이났다. 제군은 호수에 있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주위의 낙진 제거하는지 점검	4		
9. 핵폭발전 개인 방호 수단은?	구두	구두질문			
10. 핵상황하에서 오염포식판을 설치하라.	행동	"	3		
11.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제독법은?	구두	"	2		
계			25		

제5 단계 : 방독면 착용훈련

상 황 내 용	답변 형태	시 험 관 조 치	배점	특점	비고
피시험자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분무기를 설치하여 놓고 피시험자가 시험장안에 들어오면 분무기로 갑자기 물을 살포한다.	행동	방독면을 신속히 착용하는 상태(시간)을 보아서 채점	15		
계			15		

반공(防空)교육의 효과적인 실천방법



서 정 옥

〈대구내당국민학교장〉

一. 방공(防空)이란?

방공이라함은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항공기의 내습으로 인하여 생활 위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이 행하는 방위에 응하여, 육·해·공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등화관제·소방·방독·피난구호와 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감시·통신 또는 경보를 맡하고 방공계획이라함은 방공 실시 및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설비와 자재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법률 제183호, 1951. 3. 22 공포. 반공법 제1조)

二. 방공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양단되어 적과 직접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 방공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6·25 동란의 도발은 적의 침략 야욕을 실증하는 것이었고, 휴전 20년이래 북괴는 남침의 기회를 노리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를 소위 노동당 4대 군사노선으로 정해놓고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을 뿐 아니라, 1.21사태와 삼척·울진사태등 적의 유격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우리나라의 방위능력을 시험한 바 있으며, 70년대 적화통일을 호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괴는 47만명의 정규군과 140만의 노동적위대, 70만의 청년 근위대, 3만명의 유격전 특수부대등 도합 260만명이란 병력이 총을 들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셈이다.

5·16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국력이 배가 되었다는 사실은 북괴가 두려워하는 외적 요인을 형성하였고, 전쟁준비를 위한 위기의식의 고취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내부적 여건에 초조를 느낀 나머지, 언제 어느 곳에서 침략을 기도 할지 모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래, 속전속결이라는 전쟁양상의 발전과 더불어 적의 공군력 증강실태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나 적의 유도탄 사정거리내에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언제 다가 올지 모르는 적기의 공중기습으로부터 자라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취소함으로써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함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三. 본교의 실태 및 문젯점

1. 실 태

- . 본교의 위치——대구시 서구 내당동 2구 1202번지(구 내당주차장 서쪽)
- . 대지넓이——4421평
- . 건평넓이——건물 926.61평, 연건평 1846.2평
- . 운동장 및 유희지 넓이——3493.39평
- . 건물의 종류——전관 1동……3층 콘크리트조 24개교실
본관 1동…2층 시멘트목조 26개교실.
구관 1동…단층목조 7개교실.
후관 1동…3층 콘크리트조 18개교실.
- . 직원수——83명(교장, 교감 및 교사 서무직원 사환포함).
- . 아동수——5539명.

2. 방공교육상의 문젯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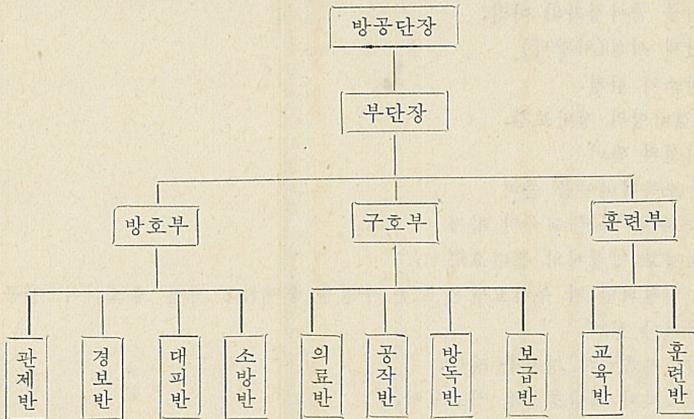
- . 다인수 학교에 좁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배치가 복잡하다.
- . 아동들의 수에 비해 나들잇간 및 통로가 매우 복잡하다.
- . 유희지가 없어 대피장소의 마련이 곤란하다.
- . 교직원 및 아동들의 방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 향토사회인의 인식이 부족하며, 셋방살이의 집이 64%나 됨을 볼 때 밀거집단이다.

四. 문짓점 해결을 위한 방공교육의 실제

1. 방공단의 조직 및 업무분담

① 조 직

- . 직장 방공단규칙(대통령령 제606호 51.2.9 및 내무부령 제28호 52.5.1)에 의거 조직한다.
- . 단장 1인, 부단장 1인과 부장, 반장, 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 업무분담 내용

(가) 방공단장의 임무

방공단장은 상황에 따라 중요물자의 분산소개와 단원각자의 [대피, 피난과 방공에 필요한 물자의 검토 및 정비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나) 방호부

- 관제반——①방공계획과 서무일반
- ② 등화와 음향의 관제실시
- ③ 방공자재의 정비와 시설

경보반——방공경보와 정보의 수발 전달및 대공감지

대피반——대피·피난아동에 대한 유도과 안전유지

소방반——화재예방과 진압.

(다) 구호부

의료반——상병자의 가료와 구출

공작반——전기·수도·통신 및 조명등의 응급보수.

방독반——방독과 제독에 필요한 조치.

보급반——자재에 대한 제반물자의 배급과 관리.

(라) 훈련부

교육반——방공에 관한 교육과 교양실시

훈련반——방공에 관한 훈련실시와 지도

2. 방공훈련의 실시요령

- 월1회 “민방공 훈련의 날”을 통하여 전국적인 훈련에 참가한다.
- 수시로 필요에 따라 훈련한다.
- 방공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전준비가 되어있어야겠다.

- ① 구급약품 준비상자의 마련.
- ② 등화관제 시설(차광막)
- ③ 대피장소의 선정.
- ④ 방공 경비망의 정비보강.
- ⑤ 소방시설의 완비
- ⑥ 방독·소독장비약품 준비
- ⑦ 훈련을 위한 사전 교육의 철저

(가) 경제경보 발령시의 훈련요령

경제경보가 발령되면 각 부서요원은 모든 수업을 중지하고 자진 응소하여 방공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정보전달 :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
- ② 정보연락 : 적기 내습동정을 상호연락.
- ③ 등화관제 : 각종 불빛 통제.
- ④ 대 피 : 신체허약아는 먼저 대피
- ⑤ 소 방 : 화제진압 태세 준비
- ⑥ 의 료 : 의료요원 확보 구급약품 준비
- ⑦ 방 독 :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 약품 준비
- ⑧ 보 급 : 응급복구 자재 준비

(나) 공습경보 발령시의 훈련요령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각 부서요원은 다음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 ① 대 피 : 전원이 지정된 대피소에 완전 대피
- ② 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휴대한다.
- ③ 모든 사람은 내왕을 금지하고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

(다) 해제경보 발령시의 훈련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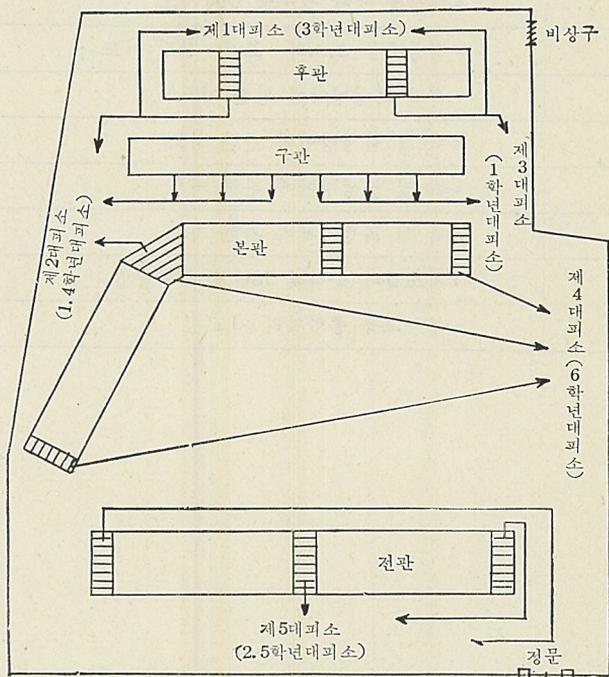
다음의 임무를 즉각 수행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 ① 정보전달 : 경보를 전달하여 원상복귀.
- ② 경 비 : 피해구역의 출입통제

- ③ 방 호 : 신속하게 상이자의 수용구조
- ④ 소 방 : 폭격으로 인한 화재진압
- ⑤ 방독및 소독 : 오염지역의 소독 및 오염표지 설치.

3. 대피장소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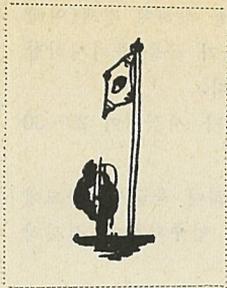
대피할 장소를 미리 익혀두고 질서있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훈련한다.



4. 연간 방공교육계획 및 지도방법

- 방공단원의 훈련—월1회 연수시간을 마련하여 훈련부에서 주관한다.
- 아동들의 교육—반공도덕시간 및 특활시간에 관련 지도한다.
- 향토사회인의 교육—월1회 이상의 이동계시관 활용 및 어머니교실을 통한 지도.

월별	지	도	내	용
3	◦ 민방공훈련 참가	◦ 방공경보신호의 구분	◦ 공습시 행동 방법의 지도	◦ 대피시설이용 방법지도
4		◦ 등화관제에 관한 지도	◦ 소방에 관한지도	
5		◦ 구호에 관한 지도		
6		◦ 외국의 민방위 실태 소개(미국, 이스라엘)		
7		◦ 비상용 생활 필수품 준비지도		
8		◦ 방공계몽 포스터·표어·전달 배포		
9		◦ 핵 및 화생방어에 관한 지도		
10		◦ 핵 및 화생방어에 관한 지도		
11		◦ 핵 및 화생방어에 관한 지도		
12		◦ 핵 및 화생방어에 관한 지도		
13		◦ 지도결과 분석및 73년도 계획수립.		
2		◦ 방공교육 종합정리 지도		



국기 하기식 절차에 대하여

.....◎ ◎ ◎.....

박 승 식

〈대구고교 교사〉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내 문교경북 편집실로 부터 국기하기식 절차에 대하여 원고 청탁을 받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대로 쓸려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나 기왕이면 문교경북지에 게재하여 전도내 각학교에 배부되어 참고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권위가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작성코자 서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당국에 연락하여 자료를 얻고 제3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장병으로부터 구체적인 질의와 자료를 얻고 대구교육대학 학훈단을 방문 자료를 얻어 원고작성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여 이제 필을 들고 보니 우선 상기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든 관계관과 특히 제3사관학교 기수단의 특별 시범까지 참관케하여 준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다음 내용이 여러학교등에서 참고가 되어 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국기 게양시기

1. 국기는 일출시에 게양하여 일몰시에 하기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06.00에 게양하여 17.00에 하기한다.
2. 비나 눈이 내릴 때는 하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게양하지 않는다.

※ 국기 하기식 순서와 요령

1. 주악 학교장이 시야에 보일 때 연주를 시작하여 지정석에 도착하면 중지한다. (이때 기수단은 게양대에서 대기 한다)
2. 보고 가. 총지휘학생은 학교장이 지정된 자리에 도착하면 부대를 차려시키고 나. 단독경례하고 인원보고와 아울러 하기식 준비 완료 보고를 하고 부대를 열중시켜 시킨다.
3. 하기예식나팔(예고나팔)

*
†

 나팔수는 규정된 나팔을 취주한다.(이때 기수단은 게양대 국기끈을 풀고 하기 준비를 한다. 이때 본부석 인원은 뒤로 돌아 게양대 국기를 향한다)
4. 국기에 대한 경례

가. 총지휘학생은 나팔취주가 끝나면 부대를 차려시키고 게양대 국기에 대하여 반들어총을 한다.

나. 부대가 받들어 총의 자세가 되었을 때 돌아서서 국기를 향하여 경례(이때 국가연주가 시작된다)하고 계양대 국기가 강하되어 기수가 끈을 풀기 시작할 때(이때 연주가 끝나게 된다) 부대를 향하여 세위총 한다.

다. 기수가 내려진 기를 접어 함에 넣고 계양대를 출발하기 시작하여 20~30보 정도 걸어가면 본부석 인원은 뒤로 돌아선다.

※5. 부대경례(학교장에 대한 받들어 총) 본항은 육규에 없다가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서는 실시치않고 있으며 3사관교등에서는 진예등에 따라 연주와함께 실시하고 있음.

6. 회보하달및 상장 훈장 수여

7. 훈시

8. 부대경례

가. 총지휘학생은 훈시가 끝나면 학교장에 대한 받들어총을 한다.(이때 연주가 시작된다)

나. 연주가 끝날 때까지 학교장은 경례를 계속하고 학교장의 답례가 끝나면 세위총의 구령으로서 세위총 하였다가 열중쉬어로서 학교장이 본부석을 떠날 때까지 대기한다.

9. 주악

가. 학교장이 의식장을 출발하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구한다.

나. 이때 부대는 연주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기수단이 먼저 퇴장 후에 해산 한다.

※사열의식에 하기식을 겸할 때의 순서

1. 부대정열

2. 주 악

3. 국기하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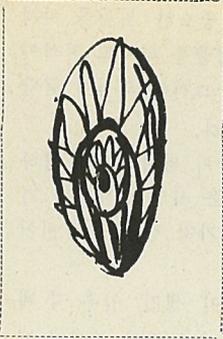
4. 받들어 총과 예우

5. 열 병

6. 훈장 상장 수여

7. 훈 시

8. 분 열



예우교육에 대한 참고

.....◎ ◎ ◎.....

정 정 응

<대구 농고교 교사>

<차례>

- | | |
|-------------------------|-----------------------|
| 一. 서론 | 二. 실내 출입 및 보고요령 |
| 二. 예우의 역사적 배경(등, 서, 한국) | 三. 국기, 국가 및 교기에 대한 예우 |
| 三. 학생이 지켜야 할 예우 | 四. 승하좌시의 예우 |
| 四. 군대예우가 학교에 적용되는 범위 | 五. 기타 예우 |
| 1. 실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예우 | 五. 결 론 |

一. 서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지키고 행하여 내려온 모든 제도와 절차를 예의범절(Courtesy)이라고 한다면 예우는 "reception"으로서 찾아오는 사람을 접대 환영하는 뜻이 된다. 예라는 것을 설문(說文)에서 찾아보면 이(履)라 하여 사람이 행한 것을 말함과 동시에 다시 이 예를 행함으로써 신을 받들게 되고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예의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의 이득도 되는 것이라 하여 공리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석명(釋名)에도 예는 체(體)라하여 그 사체(事體)를 얻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이 예절을 습득함으로써 교우 관계를 개선하고 생활의 명랑화를 기하며, 능률적으로 자기 할 일을 수양하고 동시에 학교에 대한 애호심을 고취시키며 협조의 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선 여기서는 예절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예우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二. 예우의 역사적 배경(등, 서양)

고대 유럽의 예우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보다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아 그것으로 대략 고대인의 예의 생활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고대인의 원시생활이 종교와 관련이 있어 자연물을 숭배하는데부터 예의와 제도로 변하였던 것이다. Aegea(에

계) 문명의 자취를 보면 종교 의식으로서 제례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례때에 중요하게 제공하는 희생물을 마치고 의식이 진행될 때에는 향을 피우고 음악을 연주하여 무도까지 하였다. 그러한 의식이 끝난 후 신전앞에서 신의 이름으로 무술이 연마되며 경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것은 고대 그리스중의 Sparta 사람, Athenae 사람들이 의식으로써 행하여 이것이 아주 의례제도의 절차로 변하여 갔다. 이러한 의식은 서양 중세기의 기사(knight)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무사로서 출세하는데 여러가지 형식이 구비되어 엄숙한 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인도에서도 계급(Brahman, Kshatriya, Vaishya, Sudra)이 생긴 이후 각 계급간에 예의가 엄중히 달라졌으며 그 중에서도 아리아족의 제사에 대한 예의적 행사는 중요한 것으로 조상신 숭배의 사상이 농후하였으며 여기서부터 현대의 예우가 생긴 기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맹자(孟子)는 예의 실(實)은 절문(節文) 두 글자로서 사람의 마음중에 인의(仁義)에 의하여 그 사람 자체에 품질(品質)이 생기며 그 품질을 잘 이용하는 것이라고, 예는 인의가 중심이 되어 의식과 모든 절차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예우는 사람이 법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관혼 상제의 법식으로부터 사람의 언동, 품행 등 모든 것을 이 예안에서 규정지우며 행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의 예우는 <후한서>에 보면 고구려에서는 사직명성을 제사 지내며 10월에 제천한다 하였고 진한 사람은 자취를 예로서 하였으며 예는 동성과 혼인하지 않았고 「후주서」에는 백제 혼취의 예는 중국의 풍속과 대략 같다는 말이 있으며 「수서」에는 신라 혼가의 예는 주식을 나누며 신혼밤에 여자편에서 먼저 시부모를 보고 다음에 남편에게 절한다고 전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고려사」의 예지(禮志), 崔允儀(최윤의)의 상경고금례(詳定古今禮) 50권, (병화로 소실되고 그중 일부분만 남아있음), 이조때에 국조오의례(國朝五儀禮) 등이 있다. 이같이 우리 고유의 예우는 복잡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소위 의례준칙이라하여 모든 것을 간소화하라고 명령한 후 점차로 번잡한 예우는 없어져 갔다. 특히 이조때 예우문제로 일대 격론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현종 원년(1660)의 예송(禮訟)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은 그 목적이 예의를 바로 잡으려는 것 보다 파당적으로 싸우고자한 것이었다. 즉 효종이 승하한 후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의 복상문제가 일어나서인 일파는 한국제래의 예에 의하여 1년복을 주장하였고 남인 허목과 윤휴는 고려에 의하여 3년복상을 주장한 사실이다. 이것은 일면 당시 한국사회에서 예를 중요시한다는 인식을 일반에게 준 일이 된다. 이후 혁명정권이 들어서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三. 학생이 지켜야 할 예우

여러 사람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멸시를 받을뿐 아니라 교양없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할 때 모든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아니 하면 질서가 물란해져서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우는 남너노소 할것없이 누구나 다 지켜야 여러사람과 사교할 수 있으며 여러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협동생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나치게 예우에 대하여 여러번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표정없이 그적 경례만하는 형식적인 태도는 고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번거로운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길게 인사를 한다든지 바쁜 사람과 길게 대화를 나누며 인사하는 것은 도리어 실례가 되지만 상대방을 미소를 띄운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간단한 인사말로써 대면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번잡한 거리에서의 걸음걸이는 속보로써 바른자세로 걸어야 한다. 큰 목소리로 지껄리고 여러 사람이 가로로 늘어서서 걷는 태도를 혼히 볼 수 있다. 이런 걸음걸이는 통행인에게 방해가 될뿐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일들이다. 현대인은 걸음걸이가 한미(美)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잘 걷는 연습을 하여 미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예우의 종류가 있지만 이것은 군대예우가 학교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四. 군대예우가 학교에 적용되는 범위

일반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바와 같이 군대의 특수한 전통으로 이루어진 군대예절은 일상생활에서 이를 습성화시켜 상급자에 대한 존경, 동료 상호간의 신애와 단결 그리고 하급자를 애호 지도하는 기풍을 기르므로써 군기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군대 예절의 표현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정중하게 하여야 되며 동작이 느리거나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그 표현방법은

① 거수경례 ② 집총경례 ③ 주목경례 ④ 기의경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 거수경례를 할 때는 수레자를 향하여야 하며 눈은 수레자의 눈을 주목해야 한다. 이 때 손등이 상대방에게 보이거나 손바닥이 보이는 것은 실례가 된다. 거수경례는 정지하였을 때나 보행간에 모자를 썼을 때나 벗었을 때를 막론하고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집총 경례는 총을 휴대하였을 때 예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써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셋째, 주목 경례는 열병 및 분열시에 “우로—뵤”와 같이 하며 상대방을 주목함으로써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경례를 말한다.

넷째, 기의 경례는 국기, 장성기, 부대기, 증대기 및 교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면 경례를 해야 할 시기와 그 대상은, 경례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즉 30보 이내의 거리에서 실시하며 6보 거리에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일 6보 미만의 거리에서 갑자기 상급자를 만났거나 측방에서 돌연 만났을 경우에는 주저함이 없이 즉시 경례를 하여야 된다. 경례를 표시해야 할 대상은

- ㉠ 대통령
- ㉡ 국무총리
- ㉢ 국방부 장관 및 차관(문교부 장관 및 차관)
- ㉣ 상급자인 국군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사(교사 및 상위)
- ㉤ 우방국의 장교
- ㉥ 공식 방문중인 국내외의 귀빈으로서 경례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
- ㉦ 기타 특별히 지정된 상급자 등이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 전투, 근무, 실습, 수업 및 연습시에 있어서 임무수행상 부득이 한 때
- ㉨ 상급자와 대화 중 그보다 하위의 상급자를 만날 때
- ㉩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 ㉪ 열가운데 있거나 경기 중일 때
- ㉫ 두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례하기 곤란한 자세일 때
- ㉬ 임원해 있을 때
- ㉭ 구급 중일 때
- ㉮ 전령 또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구보중에 있을 때
- ㉯ 오락실, 도서실, 진료실, 식당, 매점, 변소, 이발소, 세면장, 극장 및 기타 공공 집회소 내에 있을 때
- ㉺ 교통이 혼잡하여 경례하기 곤란할지는 생략하는 것이다.

1. 실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예우

내무반(교실)에 이인이상 있을 경우에 교사가 들어오면 먼저 본 사람이 “차려”라는 구령에 의하여 전원이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다. 이때 실내의 선입자(실장 및 주변)는 쉬어의 구령을 전원을 향하여 한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한다. 만약 실내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차려 혹은 경례를 하지 않는다.

2. 실내 출입 및 보고 요령

교무실에 들어갈려는 사람은 출입문 1보전에 가서 모자를 벗어 왼손으로 왼쪽엎 구리에 모자챙이 앞으로 오게끔 자연스럽게 쥔 다음 오른 손으로 녹크를 두서너번 한다. 실내에서 응답이 있을 때 문을 조용히 열고 출입문 1보전에 들어가 차려 자세를 취한 다음 실내에 응무를 보려는 사람보다 상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최상급

자에게 경례를 하고 용무를 보려고 하는 선생 2보 앞에 선 다음 경례를 하고 ○학년○반 ○○○선생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하고 용건을 말하게 된다. 용건을 단화식으로 말을 하고 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경례를 한 다음 뒤로 돌아서 출입문 앞에 와서 다시 최상급자에게 경례한 다음 문을 열고 나간다.

3. 국기 교가 및 군기(교기)에 대한 예우

국가의 연주 혹은 교가가 연주될 때 국기 및 교기의 계양 혹은 강하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기, 교기의 기수단이 자기 앞을 통과 하려는 시기에는 여하한 장소 어떠한 시간, 어떠한 행동을 하든간에 그 방향을 향하여 예절을 표시하여야 한다. 실내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① 대형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먼저 발견한 학생이 차려라는 구령에 전원이 그 쪽을 향하여 선임자의 구령에 의하여 행동한다(경례).

② 대형외에서 휴식 또는 개별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먼저 발견한 학생의 구령에 의하여 행동하고 작자가 경례를 한다.

③ 개별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각자 정지하여 예절을 표시한다.

④ 이상과 같은 경의 표시는 어떠한 우방국가의 국가 혹은 국기에 대하여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연주 혹은 계양 강하될시에는 경례를 실시한다.

⑤ 카바를 씌우지 않는 국기 및 교기가 가단에 의하여 지날때는 6보거리에서 부터 6보거리를 통과할때까지 경례한다.

4. 승하차시의 예우

질차, 트럭, 버스등을 승차할시에는 하급자부터(저학년) 먼저 승차하며 차내 제일위 좌측 좌석부터 앉는다. 제일나중에 인솔교사 및 선임자가 앉으며 하차시에는 인솔교사 및 선임자가 먼저 내려 하급자의 승차상태를 확인하고, 고급 승용차는 이와 반대로 상급자가 먼저 차퇴 좌석에 승차하며 하급자는 나중에 앞좌석에 승차하며 하차시에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 상급자의 하차를 돕는다.

5. 기타예우

① 악수는 상급자가 먼저 칭할 때만 한다.

② 영현을 운반하는 영구차 혹은 유공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③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학생이 아닌 민간인은 오른손에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④ 작하란 칭호는 국가 원수에게만 사용되는 존칭이다.

⑤ 승선 하선시의 예우는 육지에 준한다.

⑥ 배에서의 갑판은 야외와 같으며 국기가 계양되어 있으면 개인 행동시에 승선 하선시에 경례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 예우가 학교에 적용되는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것은 비록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에 이 예절을 똑바로 지킬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연장시켜 올바른 국가관과 주체성있는 국민성을 길러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사회생활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요소란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적절히 이행하는 예우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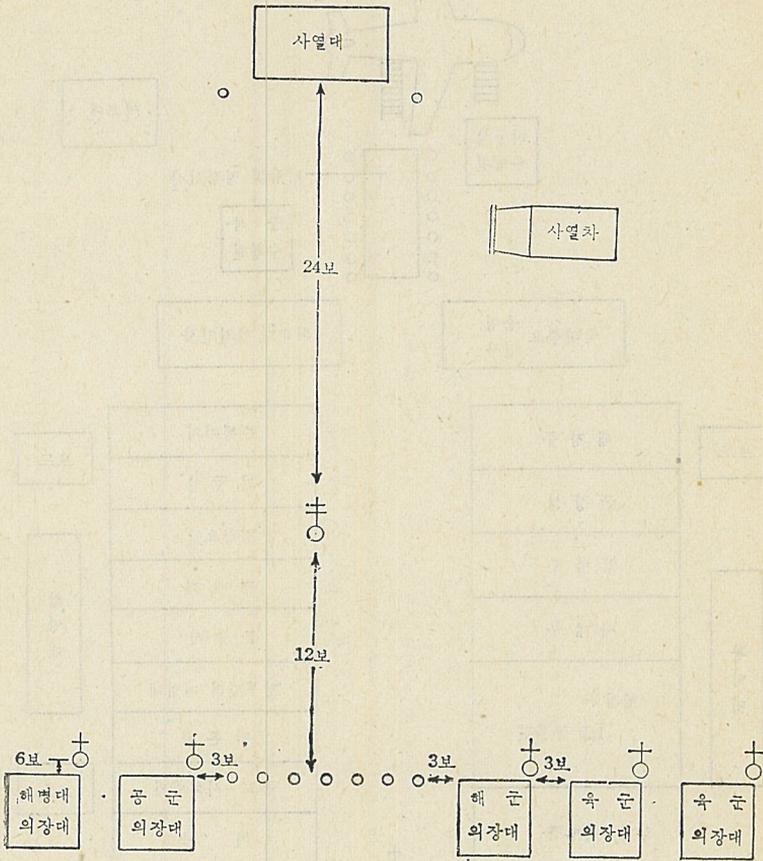
五.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예우는 복잡하였다. 이에 반하여 현재 우리의 문명 경제발전은 옛 사람들과는 달라져 사고 방식과 생활 감정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주차림의 굴건제복과 초상절차는 옛 그대로이다.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성인이요, 예법을 만드셨다는 공자(孔子)도 예법이란 시대에 따라 적당히 고쳐야 한다고 「因時以損之」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9년 3월 5일 정부는 “가정 의례 준칙”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부족과 과거 인습에 사로잡혀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다. 이렇듯 정부가 새로 마련한 가정 의례 준칙은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전문가들의 편협된 독단적주의 주장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이 부분에精通한 인사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만들어낸 것이며 경향 각지의 광범한 의견을 환대 묶어 이루어 놓은 범국가적 의례 규범인 것임을 재 인식하여 우리의 가정 의례가 시대에 맞는 미풍 양속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소화시키고 익혀서 시대와 생활감정의 적합한 예우로써 국민 총화를 이룩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여야겠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고유의 예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고유의 예우를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시대에 맞은 것을 제정한 것이니 우리 학생에서부터 전과가 되어 개선함이 시급한 것이라 보겠다. 첨가하여 내빈을 접대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환영 행사대형(#1)과 존순대통령 공황 영접시의 대형(#2), 고 이원등상사 동상 제막식 단상 좌석표(66.6.9)(#3), 명호부대 환송식 본부석 좌석 배치도(67.10.12)(#4) 예우표(#5)를 참고적으로 도식화시켜본다. 또한 정부 좌석순위(배열)와 관례도(#) 열거하여 본다. 가끔 가다가 큰 행사시에 좌석배열이 잘못되어 행사측이 일반 매스컴으로부터 비판을 들을 것을 자주 본다. 행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좌석배열정도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식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예우는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습관화시켜 사회에까지 연속적인 작용이 일어나 시대성에 알맞은 규범인것을 인식시켜 국가발전에 한 부분을 메꾸어 주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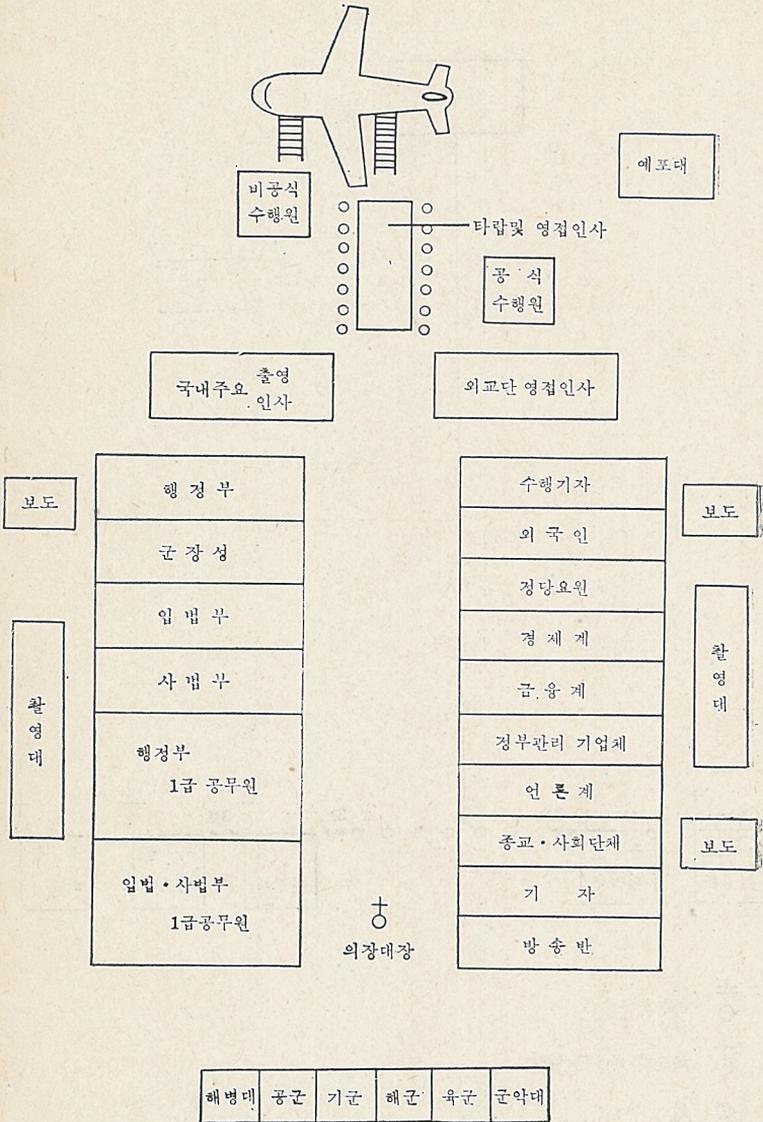
끝으로 여러 가지 첨가할 각종 예우를 다 열거 못한 것과 육십에 찬 내용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 1

김포공항 환영행사대형 (3군 합동 의장대)



-  육군의장대장
-  과군 및 해병대 약장
-  기 수



고 이원동상사 동상 제막식 단상 좌석표



한강 인도교

군사고문단	합참본부장	2군사령관	인력차관보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미방인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6판구사령관	기회통계실장	병비국장	감찰감	관리차관보	관리차관보	8군참모장	기념사업위원장
				정훈감	방첩부대장	군수차장	편제위원장	정보차장

국회부의장	공보부장관	국방부차관	국회의원	국회의원	해군참모차장	해병대부사령관
공수특전단장	인사참모부장	수도경비사령관	군수참모부장	홍익대학장	홍대조과과장	부관감
조각기사	조각기사	군수차장	관리참모부차장	헌병감	작전기회처장	

전 면

국무의원 및 국회의원



외교사절

- 영관좌
- 무관 및 임관장교
- 미군장성
- 한국장성
- 행정부차관

- 호 주
- 이 대 리
- 영 국
- 불 란 지

- 국무위원장
- 국회의장
- 대통령부인
- 대통령
- 육군참모총장
- 국무총리
- 국방부장관
- 유엔군사령관

- 해군참모총장
- 참참의장

- 공군참모총장
- 해병대사령관

- ※우로부터
- 정당간부
- 기관장
- 언론인
- 금융기관장
- 기업체장
- 사회단체장
- 파월위원회위원
- 예비역장성
- 예비역

대법원판사

행정부장관

수레자격자의 관직	예포발사수		경례곡 취수		의장대 편성
	도착	출발	관악	예 악	
대 통 령	21	21	4	국가 또는봉 황곡	1개대대 (협동 의장대 편성)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자	21	21	4	행진곡	
외 국 원 수	21	21	4	해당국 국가	
외 국 부 통 령	19		4	해당국 국가	1개중대
국 회 의 장	19		4	행진곡	
대 법 원 장	19		4	행진곡	
국 무 총 리	19		4	행진곡	
특명전권대사 및 그 이 상의 외교사절	19		4	해당국 국가	
외 국 각 료	19		4	해당국 국가	
국 방 부 장 관	19	19	4	행진곡	
국 무 위 원	19		4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7		4	"	
국 방 부 차 관	17	17	4	"	
차 관	17		4	"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17	17	4	장성행진곡	
합 참 의 장	17	17	4	"	
원 수	17	17	4	"	
대 장	17	17	4	"	
특 명 전 권 공 사	15		3	행진곡	1개소대
중 장	15		3	장성행진곡	
소 장	13		2	"	
변 리 공 사	13		2	행진곡	
대 리 대 사	11		1	"	
준 장	11		1	장성행진곡	
총 령 사	11		1	행진곡	

직 명	비 고	직 명	비 고
대 통 령		국립대학교총장	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국 회 의 장		법제처차장	
대 법 원 장		원호처차장	
국 무 총 리		전매청장	
국회부의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농촌진흥청장	
부총리	{의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농림, 상공, 건설, 교통, 체신, 문공, 총무, 과학기술, 무임소, 통일원}	수산청장	
국무위원		산림청장	
중앙정보부장		노동청장	
주한특명전권대사		철도청장	
국회상임위원장		원자력연장	
대법원판사	{법사, 의무, 내무, 재경, 국방, 문교, 농림, 상공, 보사, 건설}	아국대사	
법제처장		부산직할시장	
원호청장		각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행정계획조사위원장		대통령비서실차관	
소청심사위원장		급 비서관	
국가안보상임위원		무임소장관차관급 비서관	
경제과학심의위원		항만관계 행정조정 위원장	
행정과학심의위원		감사위원	
행정계획조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부위원장		행정개혁조사위원	
국회의원		기획조정실장	
국회사무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서울, 대구, 광주
법원행정처장		대검찰청차장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		원자력연구소장	
차관		국회사무차장	
검찰총장		국회도서관장	
중앙정보부차장		국회의장비서실장	
합동참모회의의장		법원행정처차장	
육군참모총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해군참모총장		공 사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새마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서 역 석
〈영천군 금호국민학교장〉

〈목 차〉

- | | |
|---------------------------|--------------------|
| 1. 체념(諦念)에서의 각성(覺醒) | 4. 주요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
| 2. Community school로서의 성격 | 5. 맺는말 |
| 3. 본교가 지향하는 새마을 학교 | |

1. 체념(諦念)에서의 각성(覺醒)

1. 체념(諦念)의 마을

농촌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성격구조는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 농촌 사람들의 성격은 원래 만사태평이요, 대자연에 순종하는 순박(醇朴)함이 있을 뿐이다. 흉수와 한발, 빈곤과 퇴폐(頹廢)의 현실적인 사태에도 그냥 그대로 굴복하고 만다. 현실을 극복(克服)하고 부정하는 데에도 공포감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에, 농촌지역사회는 '폐쇄적(閉鎖的)' 사회다. 조상 대대로 연면히 이어 온 전근대적 보수주의로 변화(變化)를 원치 않는다.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는 주저한다. 전근대적 폐쇄성(closeness)은 가족주의적 집단속에 개개인은 폐쇄되고 친족 집단속에 개인이 매몰되고 농본주의(農本主義)적인 인습, 누습, 폐습 속에 개인과 '마을'이 폐쇄되어 있다.

모든 것은 개인의 힘과 '마을'의 힘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전통주의와 권위주의에 습복(習伏)하고 순종할 따름이다. 그야말로 '체념의 마을'인 것이다.

2. 오랜 잠에서 깨어가게 하는 '새마을 학교'(閉鎖에서 開放으로)

인간사회에서 무관심(無關心)은 퇴보를 초래한다. 관심을 갖도록 깨우친다는 것

은 진보를 약속하는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되는 ‘새마을 운동’은 전근대적인 미숙한 ‘잠’에서 깨어나, 근대화 대렬로 이끌어 가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기관이 지니는 특성과 영역에 비추어 새마을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생활환경개선(지붕 개량, 농로 확장등과 소득증대), 기술지도(영농법 개선, 생산증대등) 중심으로 외형적 경제적인 근대화에 주력할 것이며 교육기관에서는 폐쇄적 깊은 잠(체념의 세계)에서 깨어나(覺醒) 변화와 혁신의 세계에 대한 ‘신조(信條)’를 굳게 하도록 내재적(內在的), 정신적 가치관을 일깨워 주는 것이 근본 임무를 미리 가정(假定)하여 두고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Community School로서의 성격

1. 학교가 먼저 잠을 깨야 한다.

다글라스 교수는 ‘학교는 보다 나은 사회로 건설했는가?’라는 저서에서 오늘의 학교들이 허무맹랑한 우상(偶像)을 신봉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 백과사전적 지식의 신(神)을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배운 지식은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못하였고,

2) 자유 경쟁적 개인주의적인 교육은 마침내 이기적(利己的) 개인주의의 팽배를 빚었으며,

3) 학교가 아직도 학문의 전담임을 자부하여 태평스럽고도 은둔주의적인 상아탑(象牙塔)속에서 급진전하는 사회에 적응 못한다.

고 비평하고 있다. 이것은 고도 성장을 자랑하는 미국의 이야기이니 하물며 우리의 처지는 미루어 알 수 있겠다. 올바른 지도자 건전한 새마을 육성자로서의 학교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2. 학교의 교육기능(機能)과 ‘새마을학교’로서의 역할(役割)

고인 물은 썩는다. 새로운 생성(生成)이 약한 나무는 고목(枯木)이 된다. 고여 있는 물은 여과(濾過)가 필요하며 고목(枯木)을 대체하기 위하여는 묘목(苗木)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마을 교육’이 담당할 교육의 기능(機能)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1) 학교는 성인들을 위해서도 교육의 Canter가 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발전하는 국가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애(生涯), 교육의 장(場)과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2)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으로 건전한 정신 풍토를 건설한다.

풍요(豊饒)의 사회는 타락과 혼란을 동반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중진국가로의 희망에 부푼 경제형성단계에 있고 서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뒤따르는 정신적 가치관적 혼란을 몸소 겪고 있다. 건전한 정신적 풍토건설이야말로 오늘의 학교의 커다란 역할이요 과제인 것이다.

3) 학교와 마을 사이는 쌍방통행(雙方通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생생한 교육의 자료를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지역사회는 학교 교육에서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얻어야 하고 싱싱한 새 묘목(苗木) —인재—을 공급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는 적극적으로 향토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先導的)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지역 사회를 학교 안으로 이끌어 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는 쌍방통행으로 연결지어지고 조화되어야 한다.

3. 학교장의 역할기대(役割期待)

‘새마을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장은 무엇보다도 ‘새마을’ 가꾸기에 힘써야 하겠다. 외형적인 모든 계획 변화에 앞서는, 지역사회인들의 정신적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새 마을’의 육성이 선결 문제이다. 이것을 정부의 막대한 물질적 지원과 행정적 지도 조력으로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각 개개인의 가슴 속에서 내재적(內在的)인 실행동기로서 발현(發顯)되어야 하며 스스로의 지혜와 용기와 억척같은 실천 궁행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내재적인 힘을 승화(昇華)시켜서 새마을 건설로 이끄는 데는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역할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광범해졌으며 다양(多樣)해졌다.

1) 학교장은 그 사회의 특성을 발굴하고 그 특이성에 적합한 새마을 학교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a. 지역적 환경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평가한다. (산, 川, 평야, 경작지, 기후·토질, 지형, 지하자원 등등.)

b. 지역사회 취락(聚落)의 특성을 고려한다. (인구수, 노동력, 대성씨(大姓氏) 민심, 인습, 누습, 집단규모 등.)

c.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여야 한다. (교통, 통신, 문화시설, 교육기관, 행정기관, 교적, 문화재 등등)

2) 지역 사회에서의 새마을 학교의 다양(多樣)한 여러 영역을 통일 조화시켜야 한다.

a. 외형적 물질적 면...지붕개량, 농로확장, 국토보존, 푸른 영천(永川), 꽃길 운동, 신생활운동, 다리 놓기, 주택개조 등등.

b. 정신적인 면...애향, 애국심, 성취동기, 협동 의식, 질서유지, 미풍 양속의 선양, 국민 의례준칙의 준수 등등...

c. 기술적인 면...소득증대, 종자개량, 영농법 개선, 구충방법, 부업장려 등등

3) 학교장은 개척자적 정신과 거시적(巨視的)인 안목으로 새마을 학교를 담당해

야 한다.

a. 학교내의 조직과 새마을 현장의 모든 조직력을 최대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b. 새마을 학교의 목표 도달을, 곧 목표 상실을 뜻한다. 항상 새 의미(意味)를 추구하고 더 높은 자원을 제시한다.

c. 거시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높은 각도에서 관조(觀照)하며 미래를 예견(豫見)하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을 갖는다.

d. 항상 내적 혁신(革新)을 갖도록 힘쓰며 창의성을 발휘하여 때로는 모범적인 의사결정(意思決定)의 용기를 갖어야 한다.

3. 본교가 지향하는 새 마을 학교

1. 전 체 구 조

지금 거국적으로 전개되는 새 마을 운동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구구한 양상으로 구체화 되고있다. 저간(這間) 이에대한 요강(要綱)의 변경과 더불어 용어의 정의 또한 다채로운 바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집약하여 다음 '도표와 같이 구성하여 본교가 구상하는 '새 마을 학교'의 큰 영역을 살펴본다.

1) 학교가 담당할 '새마을 교육'은 정신적 영역이 추가 되고 생산 기술적 영역은 그 기본적인 면을 다룬다.

2) 학교가 담당할 '정신적 영역'은 주로

a. 강렬한 성취 동기의 유발

b. 새 가치관의 형성

c. 아동을 통한 기본적 교육

d. 성인 상대의 생애교육 등이다.

3) 애아(愛我)심을 애가심으로, 애교심으로 육성되며 나아가서 애향심 애국심으로 승화 시킨다.

4) 인간상(人間像)을 올바르게 지니는 새 사람 육성은 새나라 육성의 동양(棟樑)으로 길러져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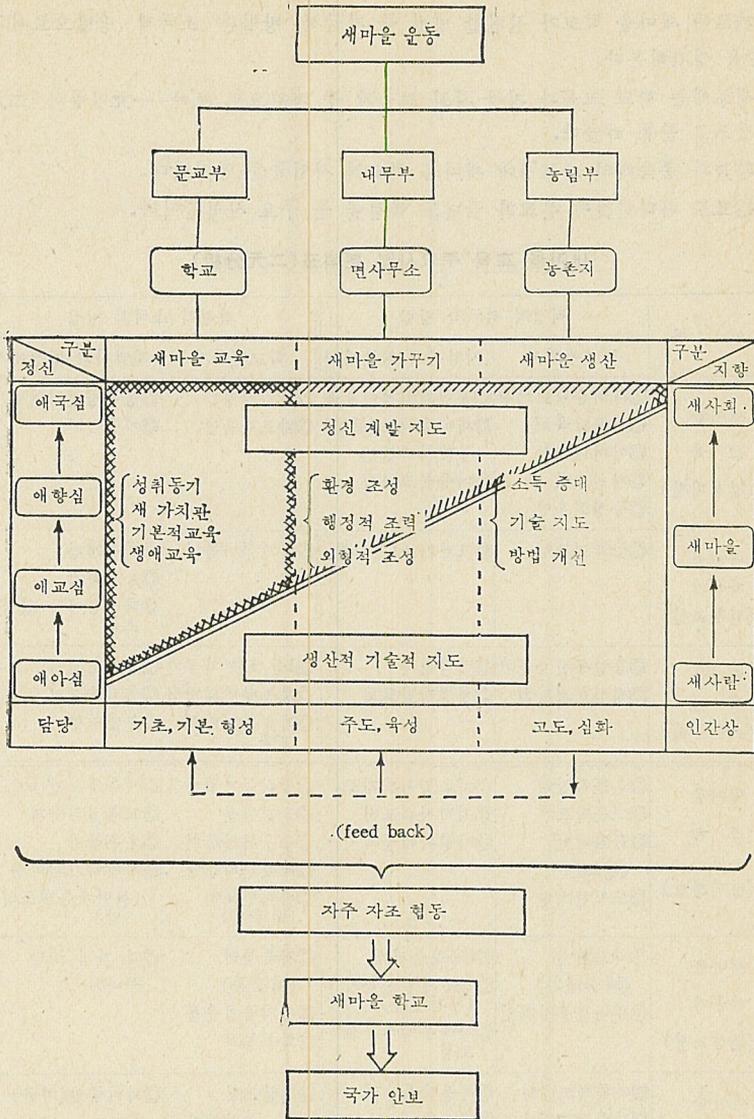
5) 새마을 교육에서 길러진 기초적인 형성은 '새 마을 가꾸기'에서 주도(主導) 육성되고 '새 마을 생산'에서 고도화 심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하여 또 다시 발전적인 feed back으로 성장 발달을 거듭하게 된다.

2. 본교 새 마을 학교 주요사업

위에서 대국적 전지에서 담당할 새 마을 학교의 영역과 방향을 정립한 셈이다.

여기에서 본교의 입지적 여건과 학교장의 구상에 의하여 본교가 관여할 광범한

도표 1 전체 구조도



사업들을 살펴보는 동시 핵심적인 사업을 추출(抽出)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은 二元분석표를 작성 하였다.

- 1) 가로에 새마을 학교가 실천할 방법 즉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으로서의 사업들을 생각해본다.
- 2) 세로에는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 교육의 두 차원으로 보아 一元방법과 二元의 방법으로 분류 하였다.
- 3) 횡축과 종축에의 좌표상에 새마을 학교의 사업들을 열거했다.
- 4) ◎표로 나타낸것이 본교가 금년도 역점을 둔 주요 사업들이다.

‘새마을 교육’ 주요사업 분석표(二元分析)

영역	직접적 적극적 방법		간접적 소극적 방법		
	학교안에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학교안에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一元적방법(학교와 마을유형)	새마을 교육 (정신계발)	◎새마을학교개설 ◎친목체육회 ◎어머니교실 ◎청년교실 ◎동창회운영	◎문맹퇴치성인교육 ◎새마을지도(닝친1동 및 자매결연) ◎마을문고육성	◎국기계양 ◎향토관운영	◎공부방설치권장 ◎가훈짓기
	새마을 가꾸기 (환경조성)	◎꽃학교조성	◎조기청소(부락별)	◎국기 함만들기	◎지붕개량 ◎농로확장 ◎다리놓기 등 환경 조성
	새마을 생산 (소득증대)	◎통일동산가꾸기 ◎생산품전시회	◎식목행사 ◎성공담발표회	◎1인 1수 가꾸기 ◎영농방법의개선 ◎기계화과학화 교육	◎송충이잡이 ◎유실수심기 ◎부업권장
二元적방법(학교·마을별)	새마을 교육 (정신계발)	◎혼분식장려 ◎고운말쓰기 ◎근로의날 (월1회) ◎도서관개방	◎마을놀이터지도 ◎지역사회조사 ◎가정의례준칙	◎성취동기환양 ◎군경위문 ◎불우아동돕기 ◎예절관의운영 ◎애향반조직 (애향실)	◎이동계시관 6개소 ◎교통질서유지 ◎손흔들기 ◎시청각기재이용 (위안계몽지도의발)
	새마을 가꾸기 (환경조성)	◎학교개방 (체육센터) ◎새마을봉사작업	◎5무운동전개 ◎농번기일손돕기 (가정실습) ◎자매부락꽃동산 조성	◎저축장려 (저금통) ◎휴지줍기운동 ◎화분놓기	◎각 가정 꽃밭 꾸미기
	새마을 생산 (소득증대)	◎자활학교운영 ◎시범포장운영 ◎퇴비증산(교내)	◎특용작물권장 ◎일손돕기 (가정실습) ◎원농작업	◎산불조심 도별방지 ◎푸른학교의건설	◎퇴비증산(마을)

5) 직접적 방법상으로 보면

- a. 모범적 적층적인 사업
- b. 지역사회를 교대로 이끌고
- c. 봉사적인 활동이 주축이다.

6) 간접적 방법에서는

- a. 주로 아동을 통하여 가정과 마을로의 보급, 적용을 도모하며
- b. 선도적(先導的)인 계몽
- c. 국가 시책과 지역의 과제들이 주축을 이룬다.

4. 주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새마을 학교'의 개설

1) '새마을 학교'의 의의(意義)

새마을 운동 추진에 있어서 정신 제발과 소득증대 의욕을 고취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대상으로 보아 각 마을의 핵심적인 leader를 육성하는데 뜻이 있다. 그러므로 농한기이며 학교 휴가중을 이용하여 엘리트 양성에 의의가 있다.

2) 지도 요원의 확보...군 단위 전달강습을 받는 이와 본교 직원중 및 지역사회 유지, 독농가, 선구적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임용한다.

3) 지도내용...자주, 자립, 협동의 건전한 정신 자세와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확립하고 총력안보의 생활화를 내용으로 한 교육을 한다.

4) 지도 방법

- a. 여름 방학 2일 겨울방학에 4일정도 실시한다.
- b. 각 마을마다 남 여 각 1명씩 32개 마을 64명을 1학급으로 조직한다.
- c. 시청각 교육 기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며 강의는 줄이도록 한다.

5) '새마을 학교' 설치 계획을 작성한다.

2. 어머니 교실의 운영

1) 대상인원...120명

2개 학급으로 편성한다. (지정회원) 임의 자유 참가자에 따라 실제 수용 인원을 증가한다.

2) 교육기간...매월 1회 매회 4시간, 연간 44시간 기준.

3) 교육 내용

- a. 학교 교육 이해 유대강화
- b. 새마을 교육, 새마을함양 생활개선, 새 가치관의 배양, 교양.

c. 소득증대 부업의 권장 실지 활용.

- 4) 연간 계획서 작성 (5월중 군내 어머니 교실 회원에 공개한다.)

3. 꽃 학교의 조성

- 1) 교문 앞 국도변 꽃동산 조성(약 100m²)...꽃길을 겸.
- 2) 화단 관리의 철저 공한지의 이용으로 꽃학교 조성
- 3) 국화분재 및 노지 재배를 한다.

4. 통일동산 가꾸기

- 1) 학교립 18.2ha 중 급년도 2ha에 리기다 소나무 3,000본을 계획적으로 식수했다.
- 2) 송충잡이의 여행과 입산금지
- 3) 부락 향토예비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관리를 위촉한다.(학교에서 멀다)

5. 혼, 분식의 이행

- 1) 교직원의 도시락 지참으로 출선수범하고 불참자는 분식으로 한다.
- 2) 월2회 도시락 검사를 실시하여 혼 분식 상황을 체크한다.
- 3) 분식 장려로 식생활을 개선토록 한다.(빵 대용식은 아직 곤란)
- 4) 교직원을 학급에서 아동과 함께 식사한다.

6. 시범 묘포장 운영

- 1) 본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수 수종을 육묘한다.
 - a. 사과신종—부사—200주
 - b. 감, 배 140주
- 2) 관상주 묘포장의 운영...함나무 삼목, 히말리아시다 화양목등 5종 2,500본 삼목.
- 3) 꽃나무(花本類) 구근 화초등 20 여종의 묘포장 관리 운영.
- 4) 월동용 비닐 하우스 계획 자활 학교의 기반을 마련한다.

7. 퇴비 증산

- 1) 금비 평중의 본지방 영농방법에 비추어 퇴비증산을 진요하다.
- 2) 산과초원이 귀하여 퇴비증산에 애로가 많다.
- 3) 본 지방에 혼한 보릿짚 벼짚을 4학년 1인당 5kg(생초 60kg)수집한다.(이삭줍기에서 주는 짚을 모은다.)
- 4) 교내에서 제조한 가마니등 퇴비가 되는 모든 것을 즉시 분류 수집한다.

8. 새 마을 지도

- 1) 금호면 냉천1동을 담당 부락으로 선정한다. 집중지도를 시도한다.
- 2) 전담교사 2명을 배치하고 6명을 보조케하며 정직원이 참여한다.
- 3) 계획에 따라 순방 출장 지도한다. 정신적 문화적 계몽에 주력한다.

9. 애향반의 활동

- 1) 전교생(중추는 5.6학년)의 마을 단위 애향반을 조직한다.
- 2) 새마을 가꾸기 주력, 환경미화 작업의 자율적인 활동, 통학의 안전등 자치적 협동정신을 신장시킨다.
- 3) 애향심을 함양하여 애국심으로 승화시킨다.

10. 이동 게시판 설치

- 1) 부해 조립식 이동 게시판을
- 2) 월 2회씩 게시내용을 갱신
- 3) 각 마을을 1주간씩 교대로 이동시킨다. 내용은 교사 아동의 공동작을 중심으로 계절성 시사성을 고려한다.

이 외에도 10개 사업 도합 2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5. 맺는 말

‘새 마을 운동’도 보는 각도와 말은 영역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일반 행정기관(내무부 산하)과 교육기관(문교부 산하)이 서로 대조적인 입장에서 ‘새 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론삼아 대비(對比) 고찰한다.

1. 전자는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지만, 후자는 내부로부터의 총화적 의사결의에 따라 ‘교육’의 면을 담당한다.
2. 전자는 주로 외부로부터 권력적인 힘의 작용에 의하지만, 후자는 주로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작용을 새 마을에다 침투시키는 작용을 한다.
3. 전자는 의형적 현실적인 구체적 변이 주가 되지만 후자는 미래의 꿈과 이상을 그려보며 창의적이며 이념(理想)이 주축이 되어 작용한다.
4. 전자는 비교적 활짝 내달는 일지성에 흐르기 쉽지만 후자는 조용하고도 영속적인 교육을 한다.
5. 전자는 일방적인 P.R을 걸드린 지도를 하지만 후자는 상호작용(쌍방통행)으로서의 지도성을 발휘한다.

교육은 목표달성을 초월시킨다. 학교가 말은 ‘새 마을 학교’도 궁극적으로는 목표달성이 있을 수 없다. 영속하는 의지(意志)와 용기와 자기 혁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새 마을 교육’이라 하겠다.

1교 1부락 지도의 효율적인 실천 방안



황 택 영
(고령군 성산국민교장)

一. 지도에 앞서

1. 개혁된 교육관의 정립

우리들은 “향토 학교건설” “밝은 마을지도” “자활학교” 하고 구호는 높였으나, 일지적인 것이 되고 결국 우리들 마음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되돌아 가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국적을 찾는 중대한 시점에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과연 지식만이 잘 살 수 있고 자립하는 수단이며 지식의 부족으로 이 사회가 이토록 어두워졌으며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부정부패가 생겼을까?

우리는 대한의 쓸모있는 인간육성 즉 성실한 마음과 자립할 수 있는 근면한 “인간 교육”에 등한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 육성이라고 하여 혼탁한 현사회에 약은 죄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 도 어찌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까?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사회적인 과정이며 학교는 의도적인 사회 존속과 발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위한 수단일테니 우리들 교육자는 사회에 대한 목적과 성장 발달 그리고 복지증진에



국기 봉투

대한 목적과 성장 발달 그리고 복지증진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맡은 큰 임무임을 자각할 때가 왔다.

오늘의 새마을 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이며 국가적인 운동이다. 동시에 이 운동은 교육의 일대 개혁 운동이 수반되어야 영속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을 때 우리의 교육이 곧 사회 개조를 내용으로 하고 개선에의 몸부림이 바로 과정이 되어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져야겠다.

2. 학교 교육의 충실연후에

자활학교 1부락 지도가 아동과 향토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영자나 몇몇 사람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바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학교를 보면 대개 교육효과보다 전시효과를 노렸거나 교육적으로 보아 불합리 혹은 실효성 없는 곳에 교육투자를 하여 직원만 골탕을 먹이고 아동은 학력 저하를 가져와 학부모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첫째 임무는 아동의 학력이며 학교 교육내용의 충실이니 맡은 바 본무도 잘못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며 나가야 부형이 신뢰할 이가 있겠리라.

내 자식을 잘 지도하고 학교가 잘 정돈 되었을 때 자연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잘 따르게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二. 1교 1부락 지도계획

고령군 성산면 기족동(학교에서 1km)

1. 마을의 현황

① 호수및 인구

호 수			인 구			1 호당 평균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11	5	116	320	321	641	2~3	2~3	5

② 경지면적

전	1호당평균	답	1호당평균	계	1호당 평균	임 야	평 균
77452평	688평	167302평	1442평	244754평	2109평	120정보	약1정보

③ 연령별 인구

연령	14세이하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127	47	92	25	29	320
여	128	28	108	28	29	321
계	255	75	200	53	58	641

④ 문화시설

TV	전축	녹음기	라디오	신문	자전거	오토바이	카메라	시계	채봉틀	책상
3	2	2	71	15	13	1	2	101	28	71

⑤ 교육정도

대 학		고 등		중 학		국민교		국문해득		문 명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5	9	34	15	95	54	15	54	24	61	193	193

⑥ 농기구 실태

경운기	탈맥기	발동기	손수레	우차	분무기	동력분무기	양수기	새끼틀	가마니틀	탈곡기
2	7	9	72	5	15	3	5	5	15	74

⑦ 특수시설 및 지적

동회관 (70) 어린이놀이터 (71) 마을장학회 (71) 마을산림제 (71) 마을금고 (70) 전기가설 (71) 기독교회 (1개소) 정미소 1개소 이발소 1개소.

2. 마을의 과제

- ① 가정 의례준칙을 준수하고 새 생활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음주, 도박, 미신타파 등 퇴폐풍조를 일소하여야 한다.
- ③ 저축장려로 짜임새있는 생활을 한다.
- ④ 새로운 영농법으로 특산물을 장려하고 부업을 꼭 갖도록 한다.

3. 마을의 목표

자조 자립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모범 부락을 만든다.

4. 향 약

- ① 우리는 생활개선에 힘쓴다.
- ② 우리는 법과 규칙을 앞서 지킨다.
- ③ 우리는 어린이를 훌륭하게 키운다.
- ④ 우리는 도벌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한다.
- ⑤ 우리는 소득증대에 힘쓴다.
- ⑥ 우리는 낭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한다.

5. 실천 활동대 조직

- ① 애향단

본등에 거주하는 본교 재학생
전원

◦ 단장 1. ◦ 부단장 2.

② 화랑청년대 (15세~35세)

◦ 대장 1. ◦ 부대장 2.

◦ 기상통보담당 2.

◦ 방송담당 2.

◦ 마을문고담당 1.

◦ 장학회담당 1.

◦ 산림계담당 1.

◦ 마을금고담당 1.

③ 원화부녀대 (15세~40)

◦ 대장 1.

◦ 부대장 2.

◦ 방송담당 2.

◦ 마을문고담당 2.

◦ 우물소독담당 2.



프락을 개량하는 광경

6. 일반시책

시책	추진내용	목표		시기	담당자	비고
		71년실적	72년계획			
1)환경개선	◦ 농로확장	길이 200m 폭 4m	300m 4m	4월	동민	보식
	◦ 마을공원조성		1개소	연중	화랑대밧에향단	
	◦ 지방개량	54 동	120동	연중	동민	
	◦ 번소개량	62 호	30호	연중	동민	
	◦ 꽃길조성	200m	200m	6월	애향단	
	◦ 부엌개조	81 호	20호	연중	동민	
	◦ 어린이놀이터만들기	1 개소	1 개소	연중	동자체	
	◦ 뜰악개수	92 호	20호	연중	동민	
	◦ 꽃밭만들기	70가구	100가구	6월	애향단	
	◦ 통일동산식목	40정보		4월	동민	
2)생활개선	◦ 기상통보		연중		화랑청년대	
	◦ 문패달기	116 호	·	·	학 교	
	◦ 고운말의집 (언어순화지도)	50 호	10호	연중	학 교	
	◦ 우물소독	2 회	2회	5월 10월	원화부녀대	
	◦ 가정의례준칙계몽	2 회	2회	8월 1월	학 교	
◦ 가훈달기	116 호			학 교		

3) 건전한 경제생활	• 공동빨래터	116 호	1	9월	동 자 체	학 교	
	• 국기, 국기봉투 국기대 비치						
	• 국기달기제몽		14회	국경일	학 교		
	• 향약지키기			연중	동 민		
	• 사랑방 안방 좌담회		10회	연중	학 교		
	• 어머니교실		12 회	12회	연중		학 교
	• 마을금고운영		1개소	1 개소	연중		동 민
	• 잠곡혼식제몽		2 회	2회	8월1월		학 교
	• 마을장학회육성		1	1	연중		동 민
	• 시장밀가기제몽			3회	연중		학 교
4) 학생봉사 활동	• 절미운동	각 가정	각가정	연중	원 화 대		
	• 1가정 1부업 갖기		각가정	연중	동 민		
	• 특산물장려			연중	농촌지도소		
	• 근로의날제정 학생근로봉사	매월 1회	매월 1회	연중	애 향 단		
	• 애향단조직및활동			연중			
	• 조기청소실시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연중	애 향 단		
	• 마을공부방운영	3 개소	3개소	연중	애 향 단		
	• 이동게시판활용	월 1회	월 1회	연중	학 교		
	5) 여가선용	• 마을체조보급	재건체조	"	연중	학 교	
		• 마을문고활용	1 개소	"	연중	청년대 부녀대	
• 국민가요보급		5 곡	5 곡	연중	학 교		
• 마을체육회		1 팀	월 1회	연중	학 교		
					배구		

7. 특수 시책

① 앰프를 통한 지도

- 고정방송—매일 아침과 저녁 2회 방송카아드에 의하여 일기예보 재건체조 국민가요 정보지식
- 교양방송—매주 월요일 저녁 방송 카아드에 의하여 방송 과제에 의한 도의 및 실천 계획

양식 1.

[교양방송]

방송 프로그램

구분 월	일	요일	영역	제목	방송담당자	NO.
	3	6	토	시사	3.1절의 유래와 3.1운동	김대곤
13		토	문화생활	마을문고 이용	유원재	2
20		토	국민정신진흥	웃어른을 존경 합시다.	김대학	3
27		토	국민정신진흥	화목한 부부가 되는방법	김대학	4
2	26	토	국민정신진흥	못사는 이유	황택영	48

양식 2.

방송원고

※ 고정 및 교양방송				방송자 :			
실시일시	19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분)
제목 : _____							
~내용~							

양식 3.

NO. _____

밝은 마을 호별 지도 카아드

- 1. 본 적
- 2. 주 소
- 3. 가족 관계

직 업

항 관계	성명	성별	연령	학력	비고	항 관계	성명	성별	연령	학력	비고

생산성인구	남	
	여	
	계	
비생산성인구	남	
	여	
	계	
가족수	남	
	여	
	계	

4. 문화시설

TV	라디오	전축	신문	시계	자전거	카메라	미싱	책상	공부방	전기	잡지		

5. 농기구 실태

경운기	탈백기	탈곡기	발동기	손수레	우마차	분무기	양수기	새끼틀	가마나 틀	제초기
		인력/동력				인력/동력				

6. 재 산

전	답	임야	가옥									
								가	축			
								소	돼지	닭	염소	토끼

7. 생산고

벼	보리											
						특수재배	생산총액	생산비	G. N. P			

8. 지도실제

항 목	비 고	항 목	비 고	항목	비 고	아 동 목 표		
지봉개량		마을금고 출자금		공 부 방	표지판	성명	성명	
부엌개량		마을금고 위탁금			책 상	1.	1.	
변소개량		가 훈			전 기			
뜰약개량		문 배			계획표	2.	2.	
담장보수		국기관계	국기보유	개 선 노 력 점	국민교육 현장			
축사보수			국기함또 는봉투					
화 단			국기봉					
마을장학 회가입			국기 계양대					

9. 75년 G.N.P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1) 목표. 2) 계획.

· 방송원고—60매(별표양식 1.2.)

방송자료상에 보관

- ② 마을장학회 운영—50만원 목표
- ③ 어린이 공부방 운영—4개소(충무 화랑, 희망 셋별),
- ④ 호별 지도 카아드에 의한 호별지도(별표양식 3).
- ⑤ 고운말의 집 설정—전가족이 고운말을 쓰는 가정에 “고운말의 집” 포찰을 달고 장려함.
- ⑥ 가훈 설정—국민교육현장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가훈을 제정하고 게시하고 실천 노력함.

8. 71년의 변화(평가)

- ① 아동의 행동이 올바르고 학업성적도 향상되고 있음.
- ② 동민이 도박, 도벌, 밀주가 근절되고 가정중흥 및 생활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③ 인사성이 있고 상부상조하는 기풍이 조성됨.
- ④ 근면 절약 저축 할려는 의욕이 왕성해 지고 있음.

三. 맺는말(지도자의 자세)

1. 불가능은 없다.

그 누가 없다드나
 구하면 되는것을
 안 된다 말을 말고
 하면은 되는 것을
 당해서 부딪혀 보면
 안 되는 일 없는 것을
 줄작은 어리석은 본인의 교단생활
 에서 얻은 진념에서 나온 것이다.



<교양 방송을 듣고 토론하는 모습>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 할 때 여러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구실을 붙여 피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할 때 학교장으로서 어떻게 하나? 여기에 하나의 역할이 있다. 다행히 교사 중에서 책임자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부락민이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학교장이 주역이 되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직원도 능력에 따라 참여하도록 세분된 책임을 맡겨 실천토록 하고 항상 확인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본교는 중점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행사 계획에 삼입하여 부락지도 일을 결정 실천하고 있다.

2. “요구외의 지도”가 부락사람을 감동시킨다.

“심학규”는 “심청”에게 목숨을 팔아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전국 소년 “스포오르” 대회의 최대의 “하이라이트” 물에서 뱃길 메시지, 걷기 한 시간의 외딴섬, 전남, 신안군, 안좌 서 국민학교 사치 분교장. 농구팀을 지도한 “김선희” 부부 교사에게 그토록 정성어린 지도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외의 지도가 부락민을 감동시키며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겨울날 뼈를 깎는 듯한 이른 새벽 추위를 무릅쓰고 1km 걸어 지도부락 아침 정규 방송을 하는데 화랑 청년대원과 원화부녀대원들 그리고 동민들이 이에 호응 앎을 사람은 없었다.

◦ 지도라고 하면, 그릇된 인식으로 높은 곳에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락민들이 뉘증을 사고 있는 새마을 가꾸기를 보고있다. 물량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락민과의 거리는 차차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는 절대 금물이다. 학교를 떠나 마을까지 가는 도중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루 찾아 잠시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참 배가 되면 같이 식은 점심도 나누고 남여 노소 없이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부락민과 완전 융화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지도와 병행하여 부락민과의 인간관계가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 학교강장이 부락에 나가면 과거는 부락의 유지가 찾아와 주석을 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부락민이 많은 자체 부담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노는 사람이 없어졌다.

여기에 부락민이나 동지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위험도 할 뿐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것은 삼가야 할 문제이다.

◦ 지난번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주신 대통령각하 치사중 끝 말씀에 “우리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서 오늘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영광된 민족의 장래를 우리의 힘으로 개척하는데 앞장서 나갑시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긍지가 자세가 밝혀져 있다.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는 말은 바로 새마을 지도의 성패에 걸려 있다고 보아 말은 바 소임에 있는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주의깊게 듣고, 총명하게 질문하고, 조용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그 이상 아무 말할 필요가 없을 때에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필요한 의의(意義)를 깨달아 지닌 사람이다.

<라하테르>

향약 짓기와 그 실천방안



.....◎ ◎ ◎.....

장 현 대

<약목 국민 학교장>

一. 서 론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지도 어언 적지 않은 시일이 경과됐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하나 이 새마을 운동에 예외됨이 없겠지만 특히나 우리들은 국민의 사표인 교사로서 새마을 운동의 기수적 임무를 더욱 실감케 하지 않는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다.

이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충만하고 보다 잘 사는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할 일은 자리잡고 있는가 보다.

여기 제약된 지면을 할애하여 본교에서 실천중인 1교 1부락 지도 중 향약실천에 관한 방안을 대략 소개하기로 한다.

二. 향토민의 문제점

- 1) 조사방법——질문지, 간접조사, 면담직접조사 등
- 2) 조사내용——
 - 집단의식에 대하여
 - 경제구조에 관하여
 - 환경시설면
 - 소비생활에 대하여

문제점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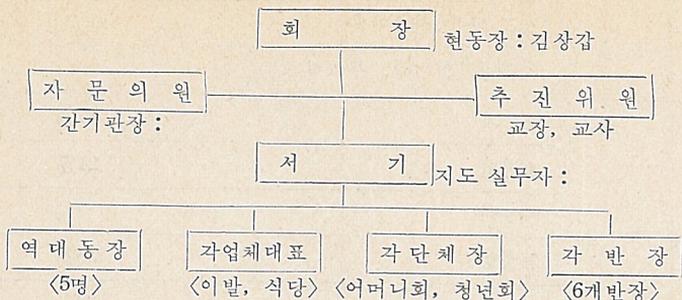
구 분	조 사 내 용	비 율
집 단 의 식	향토 개발 무관심	74%
	집회 참가율	44%
	공동 작업건수	연 16건

	자조 개발 사업건수	연 3건
	의타심, 이기심, 무기력	
경 제 구 조	농 가	72%
	소상인	21%
	비농가	7%
	영세농	35%
	소 농	34%
	1호당 경지면적	0.5ha
환 경 시 설	가정화단	22%
	마을 꽃동산	없 음
	공동 우물	3개소
	공동 빨래터	1개소
소 비 생 활	관혼 상제비	호당연간 8만원
	저축이행	13%
	혼분식이행	35%
	가계조사	
	수입지출 조사	

- 3) 문제점 —
- 집단의식(애향심, 애국심)에 대한 무관심
 - 부락민의 저소득
 - 지역의 정서적 환경미비
 - 불합리한 소비생활

三. 향약짓기 경위

- 1) 향약짓기 협의회 구성



2) 경위

1972. 4. 3~동장을 통하여 안내장을 발부소집했으나 구성인원이 1/4도 참석치 않아 결정 못함

1972. 4. 7~안내장을 직접 가지고 방문 참석을 권유한 결과 3/4정도는 모였으나 전원 참석치 않은 이유로 결의 못함

1972. 4. 10~구성인원 79%의 참석으로 아래와 같은 향약을 단장 일치로 가결하고 꼭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함

1972. 4. 15~향약 선서식을 갖임

장소 : 동회관 참석인원 ~250명

3) 향약—(위의 부락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됨)—

- ①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남과 이웃을 돕습니다.
- ② 우리는 낭비를 없애고 알뜰히 저축합니다.
- ③ 우리는 지나친 허례허식과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 ④ 우리는 혼분식을 장려하여 식생활을 개선합니다.
- ⑤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듭니다.

四. 실천 방안

향약 ①의 실천 방안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남과 이웃을 돕습니다>

1) 향토기초조사~지도부락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인 모든 사항을 아주 세분하게 조사검토분석하였다(향역, 교육정도, 성씨구성, 수입정도, 재산관계 등)

2) 안방, 사랑방 파고 들기 계몽~여교사는 안방파고들기, 남교사는 사랑방 파고 들기,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국가의식 심취, 집단의식 고취, 국가 비상사태 등을 이해 시킨다.

3) 새마을 교양의 밤 운영~주 1회 실시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새소식, 세계의 움직임, 국기계양법, 농한기 부업지도등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거나 부녀창단 같은 것을 조직하여 노래를 부르므로서 협동심을 기른다.

항약 ②의 실천방안 <우리는 낭비를 없애고 알뜰히 저축합니다.>

1) 절미운동~호당 월 1회씩 1홉씩 쌀을 절약, 월말에 이것을 모아 자체자금을 만들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 극빈 가정에 도와 주는 것도 좋다)

2) 1가정 1통장 갖기 운동~월 500원 이상의 정기적금통장을 갖도록 권장한다. (새마을 교양의 밤 운영 때에나 안방 사랑방 파고 들기 교육 실시때에 설득 권장한다. <부록 4참조>)

3) 1가정 1유실수 식재~자체자금으로 묘목을 구하기 힘든 가정은 공동자금으로 묘목을 구입해 준다.

4) 농한기 부업장려~가마니 짜기, 혼치기, 그물짜기 등을 회사로부터 알선해 주고 그 방법도 지도해 준다.

5) 가계부 적기~가계부를 만들어 주고 기록방법도 설명해 준다.

<부록 5참조>

6) 절주운동—술을 때와 장소를 플라 마시도록 하여 절약의 정신을 기른다.

항약 ③의 실천방안—<우리는 허례허식과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1) 여가선용—독서하기, 운동하기, 목화 붓글씨 쓰기 등을 장려하여 여가를 선용하도록 한다.(마을 문고, 청년스포츠타회)

2) 일없이 외출 안하기~여가가 있는 대로 가족회의, 가족오락회 등을 열게 하고 쓸데 없는 외출을 삼가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게 함으로 낭비를 없앤다.

3) 가정의례준칙 여행~가정의례준칙여행 선서식을 갖고 허례허식의 장에 솔선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부록 1참조>

◎ 축문, 제도 등을 인쇄 배부해 준다.

◎ 자체토론회를 자주 가져 가정의례준칙여행에 대한 비판을 갖는다.

4) 도박하면 벌금내기~누구이거나 도박하는 장소를 발견하면 그때의 돈을 몰수하여 공동자체 자금(마을 금고)에 충당하며 당사자는 동민들에게 전체 사과토록 하고 지도일지에 기재한다.

항약 ④의 실천방안 <우리는 혼분식을 장려하여 식생활을 개선한다>

1) 혼분식의 장려—◎ 분식일(월, 수, 금)을 정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로 혼분식을 실천토록 한다.

◎ 절미운동에 병행하여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 1일 1식은 적어도 밥이 아닌 감자, 고구마, 국수, 라면 등을 먹도록 함으로 부락민이 건강에도 유의하도록 한다.

2) 부엌고치기~◎부엌겸 식당으로 쓸 수 있게 부엌을 개량한다.

◎ 부엌설계도 인쇄배부

◎ 개량에 드는 비용과 그 방법설명서를 인쇄배부한다. <부록 2참조>

3) 식생활 카이드 비치 기록—식생활 카—드를 인쇄 배부해 주고 매일 기록케 하여 식생활의 일지가 되게 한다. 지도위원은 수시 가정을 방문, 카아드를 검토하여

지도조언 한다. <부록 6참조>

항약 ⑤의 실천방안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듭니다.>

1) 다음 조기청소 여행~조기 청소 일을 화요일과 목요일로 정하고 1가구 1명 이상 동원하여 자기 집 주위부터 깨끗이 하도록 한다.

2) 꽃길, 가로수 식재운동~적어도 식재지도부락내의 길을 모두 꽃과 가로수를 식재 한다.

3) 꽃씨은행운영~꽃씨은행은 여러가지 꽃씨를 항시 마련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곳이다. 그러려면 가을에 충분한 꽃씨를 수집해 뒤야 한다.

4) 마을 꽃동산 조성-마을 공터를 꽃동산으로 만드는 일이다. 협동하여 부락민 전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서 협동심을 키워주는 좋은 일임과 동시에 마을을 깨끗이 해 준다.

5) 쓰레기 안 버리기~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한다.

실 적

1972, 6, 20 현재

항 약	실 천 방 안	실 적
① 우리는 서로 협동하 여 남과 이웃을 도 웁니다	① 항토 기초 조사	마을역사, 교육정도, 재산관계 등을 조사
	② 인방, 사랑방 파고들기 제뭉	여교사-안방, 남교사-사랑방 에서 제뭉
	③ 새마을 교양의 밤 운영	12회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 성장, 새소식 ◦ 움직이는 세계 ◦ 국가계양법 ◦ 가정의례 준칙
② 우리는 낭비를 없애 고 알뜰히 저축합니 다	① 절미운동	쌀 11.5가마
	② 1가정 1통장 갖기 운동	162호 (76%)
	③ 1가정 1유실수 식재	121호 (61%)
	④ 농한기 부업장려	가마니짜기, 훌치기, 그물짜기
	⑤ 가계부 적기	92호 (49%)
	⑥ 절주 운동	142호 (58%)
③ 우리는 허례 허식과 도박을 하지 않습니 다	① 여가 선용	마을농고(212권) 청년스포츠타 회
	② 일없이 외출 안하기	가족회의, 가족오락회
	③ 가정의례준칙 여행	선서식, 축문, 제문 인쇄
		자체토론회

④ 우리는 혼분식을 장 려하여 식생활을 개 선한다.	④ 도박하면 벌금내기	도박건수 7건
	① 혼분식 장려	혼분식 불이행건수 135건
	② 절미운동	절미량(11.5가마)
	③ 부엌 고치기	깨랑부엌수 57
	④ 식생활 카아드비치	175호(82%)
		지도 조연 회수 1017회
⑤ 우리는 깨끗하고 아 름다운 마을을 만듭 니다	① 마을 조기 청소 여행	32회
	② 꽃길, 가로수 식재	꽃길—570m 가로수—120본
	③ 꽃씨 은행	
	④ 마을 꽃 등산	1개소

五. 지 향 점

가. 성의있게 계속해서 지도해야 한다. 농촌의 근대화는 눈에 띄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저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도 농촌 출신자라야 실정을 잘 알고 열심히 지도하게 된다.

나. 지도부락민은 계층별로 준거집단을 형성하여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농촌의 특수성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다. 연령별로 교육정도별로 계층을 고려한 준거집단을 형성하는 일은 집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편리한 줄 모른다.

다. 자체공동자금을 조성하면 집단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사업전개의 선결문제는 자체자금을 형성하는 일이다.

라. 물질적 지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조 자립정신에 위배되는 의타심을 조장하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기 쉽다. 그리고 되도록 소비재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주민의 정신구조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자극재로서 지원해주는 일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마. 부락민의 혜택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공동작업이나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불공평하게 배당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부락민의 불평은 대단한 것이다.

六. 맺 는 말

현하 민족의 햇불처럼 일고 있는 새마을 사업을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최대한 동원시켜 새마을 육성에 노력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유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학교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믿는 바가 일층 힘찬 지원을 기약하는 바이다.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서식(참고)”

◎ 혼인 서약 내용

<부록 1>

이제 신랑 ○○○군과 선부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탁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위령제 축문

1. 부조의 경우

년 월 일

아들 (또는 손자) ○ ○ 는

아버님 (또는 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곳에 유백을 마련하였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시옵소서

2. 아내의 경우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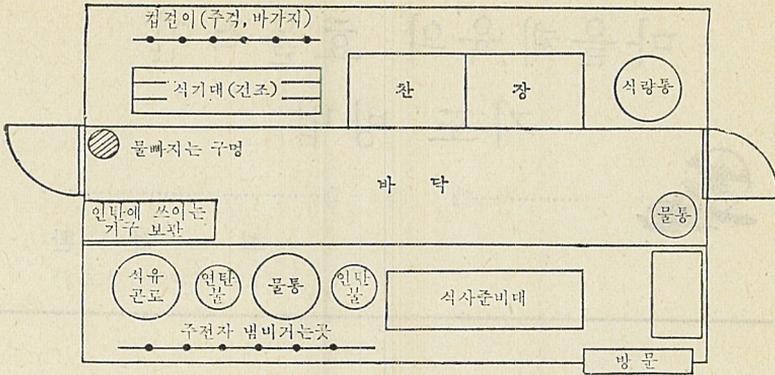
남편 ○ ○ ○ 는

당신의 영 앞에 고합니다.

이곳에 유백을 마련하였으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간편한 농촌 부업 설계도

<부록 2>



※ 새마을 지도 카드

<부록 3>

지도자() 지도교사() ()동 ()반

일	시	제대주	참가인원	협 의 내 용	반	응	비	고

※ 새마을 1가정 1통장 집계표

<부록 4>

월	일	가 구 수	입	금 지	출	잔	액 비	고
							(수입내역)	

※ 새마을 가계부

<부록 5>

월	수	지											비고		
		저축	식	비	피복	연료	전기	육아	보건	교통	세공	금			
일	입	(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이하 176페이지지로>

마을체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



최 덕 환

〈고령 개진국민학교장〉

一. 머리 말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오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풍요하고 살기 좋은 새마을을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이 물려 주려는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가야흐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 새마을 운동은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거룩한 민족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명시한 72학년도의 장학 방침에서도

“향토 학교의 건설과 교육의 사회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국가 사회의 절실한 요청에 호응하는 교육이야말로 구국 교육에 지결되는 산교육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종래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근시안적인 교육풍토를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새마을 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새마을 교육 가운데에서도 특히 마을체육 지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본교가 지난 해 전국은 마을 교육 연구 공개를 가진 바 있어서 다 음에 실친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해 볼가 한다.

二. 마을 체육 지도의 필요성

“체력은 국력이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개진면 옥산동 마을체조〉



“건강 제일”

이런 말들은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건강 생활에 매우 등한하게 하는 편이다.

마을 사람들의 실제 건강 생활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몸을 부드럽게 하는 체조나 운동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달과 조화미가 적고 몸이 세멘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져서 전후 좌우로 굴신이 자유자재로 잘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넘어지는 경우에는 뼈를 잘 다치기가 쉽다.

건강 위생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탓으로 비위생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불행의 구렁이로 빠지는 비참한 환경에 처하기 쉽다.

한 예를 들면 아직도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마구 먹어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귀중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많다.

지난 해에 본교의 시범지도 부락인 옥산동민 326명에 대해서 집단 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32명이나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수검 인원의 약 1할이 무서운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진 문명 국가의 국민들은 여가있으면 건전한 체육 오락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반해서 특히 우리 농촌 사람들은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희박하여 여가가 있으면 운동 경기나 무용 같은 건전한 오락을 즐길 줄 모르고 도박이나 음주 등의 퇴폐적인 생활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여 건강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여 빈곤의 구렁이로 빠지는 수가 많다.

이와 같은 실태에 놓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건전한 신체가 되게, 또 위생 상식의 보급으로 질병을 예방케 하며 운동 경기 등의 건전한 오락 생활로 음주 도박 등의 퇴폐적인 풍조를 없애는 데는 무엇보다도 마을 체육 지도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요청되는 협동정신의 고취도 마을체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체육 지도야말로 새마을 운동에 직결되는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三. 지도의 실제

1. 마을 체육의 지도범위

마을 체육 지도라고 하면 운동 경기나 체조등의 지도만을 생각하기 쉽다. 마을 체육도 학교 체육과 같이 체조나 운동 경기등으로 신체를 적극적으로 단련하는 적극적인 면과 위생 생활로 건강을 증진케 하는 소극적인 면으로 크게 두 부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고루 잘 지도해야 될 것이다.

2. 정신 계도

새마을 교육에서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정신 계도면이다.

마을 체육 지도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은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체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점이다. 그래서 마을 체육 지도의 성과를 거양하자면 먼저 체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게 하는 정신 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정신계도를 하는데는 각마을에 권장 지도해서 방송시설을 마련케 하여 방송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방송을 통한 지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계획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지도가 될 수 있다.

한 달 동안 방송할 방송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의한 방송 원고를 다음과 같이 사전에 작성해서 효율적인 지도를 하기에 노력한다.

(예) 1

(6) 월 중 방송 프로그램

일	요일	방 송 제 목	담 당 자
1	목	◦ 전염병을 예방하자.	송 춘 숙
5	월	◦ 규칙적으로 체조를 잘 실시하자.	정 해 동
9	금	◦ 이를 잘 닦자	최 덕 환
15	목	◦ 이불을 자주 일광소독 하자.	송 춘 숙
20	화	◦ 파리와 모기를 없애자.	최 덕 환

(예) 2

방 송 원 고

실시 일시	1972년 6월 9일 금요일 6시 50분부터 7시까지(10분간)		
방송 제목	이를 잘 닦자.	방송자	최 덕 환
<p>오늘은 6월 9일 이의 날입니다. 6월 9일을 이의 날로 제정한 것은 만 6세 때부터 영구치가 난다고 해서 만6세의 “6”과 영구치의 “구”자를 따서 6월 9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의 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뜻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는 오복의 하나”로 불리울치 만치 소중한 것.</p>			

체육 지도는 특히 다른 지도보다도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지 강제성을 띄어서는 도저히 그 지도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방송과 집회를 통해서 정신계도에 노력한 결과 점차 이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도의 성과가 오르고 있다.

3. 마을 체육회 조직

동민들의 체위 향상과 친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 체육회를 조직토록 지도한다.

마을 체육회가 잘 운영되자면 첫째로 지도체제가 잘 조직되어야 한다. 각마을지도교사는 가끔씩 그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교사로 하여금 지도 담당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마을에서 체육에 관심이 많은 중견적 인물을 체육회 임원으로 선출해서 사명감을 충분히 고취시켜 그들이 중추가 되어 자발적인 체육 활동이 전개되겠끔 지원 격려토록 한다.

마을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잘 되어야 한다. 이 재원 확보는 보리나 벼 수확기에 알맞은 양의 곡식을 거둘케 하고 또 그 마을 출신자중에서 출타한 사람 중에서 재력이 풍부한 인사들에게 성의있는 찬조를 얻어 체육회 재원을 확보하여 업무가 활발히 잘 추진되게 지도한다.

4. 마을 체육장 시설 마련

먼저 마을을 좌우할 만한 중견 인물들을 잘 설득시켜 그들이 중심이 되어 체육장 부지를 마련케 하고 철봉, 평행봉, 시이소, 그네, 배구, 농구, 씨름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토록 지도한다.

이 체육장에는 주위에 식수를 해서 녹음 지대를 만들고 관람 장소도 마련하며, 체육장 사용 안내문도 게시해 둔다.

5. 마을 체육 행사 실시

매년 정기적으로 마을 체육대회를 열도록 해서 동민의 위안 겸해 협동 단결심을 고취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체육대회의 개최시기는 매년 정월 대보름과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택하고 이 대회는 마을의 자 반이 서로 힘을 거누는 반별 대항 체육대회가 되게 추진한다.

이 대회에 출전 범위는 처음에는 학생들과 청년들로서 출전케 했다가 점차로 확대하여 노년층까지 참여케 하여 체육의 불을 조성한다.

체육의 종목은 정월 대보름에는 널뛰기, 준다리기 등을 택하고, 추석 명절 때는 100m 경주, 400m 계주, 2km 정도의 마라톤 경기, 1km 정도의 무장 경기등 각종 육상 경기를 다채롭게 가지게 한다.

시상품도 다채롭게 밭솔, 양은그릇, 삼, 팽이, 낫, 등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준비케 함으로서 체육대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줄 수 있다.

이 행사가 있을 때는 학교 직원들도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많이 참석케해서 행사가 빛나도록 잘 지원해 준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가 더욱 친밀해져서 상호간에 협조해 갈 수 있는 유대가 맺어진다.

6. 마을 체조 실시

부드럽고 균형적인 신체 발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조를 매일 실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을 체육지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도 영역이 마을 체조 지도라고 생각하여 특히 여기에 노력을 경주했다.

체조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정신 계도에 많은 힘을 썼고 그 다음에는 마을 중심 위치에 전통민을 모아서 정확한 동작이 익혀질 때까지 지도하여 익혀지던 각 가정에서 일제히 실시케 지도하고 있다.

매일 아침 6시에 마을 방송을 통해서 마을 체조의 음반을 틀어주면 그 곡에 맞추어서 전 가족이 집 마당에서 일제히 실시케 하고 있다. 이 때에 전가족이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은 백발 노인들까지도 참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7. 마을 무용 지도

우리 농촌에서는 오랜 봉건적인 풍속으로 부녀자가 춤을 춘다는 것은 윤리도덕에 벗어난 탈선 행위인양 모두가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여가가 있으면 부녀자들은 모여서 남의 험담 흥보기등에 시간을 보내기 쉽다.

이런 농촌 부녀자들에게 여가 선용으로 마을 무용을 지도하여 몸을 부드럽게 또 균형 잡힌 조화미를 갖게 하고 명량 쾌활한 심정 도야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무용 실시에서도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녀자들에게 설득에 노력했더니 점차 이해가 되어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누리 고부간에도 같이 나올만치 많이 참가하게 됐다.

지도에는 본교의 여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음반은 마을 유지 가정이나 학교의 것을 이용해서 지도하고 있다. 이 무용 실시 후에는 우울하고 무표정했던 부녀자들이 매우 명량해졌으며 가정이나 마을의 분위기가 밝아져 가고 있다.

무용에 취미를 얻게 된 부녀자들이 요즘은 한가하면 자진 모여서 무용하자고 원할 정도로 적극성을 갖게 됐다.

8. 각부락 대항 운동 경기 대회 개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학교가 주최하여 각 마을 대항 운동 경기 대회를 개최토록 한다. 이런 행사를 개최케 함으로서 자연히 여가를 선용하여 배구나 농구등의 운동연습을 자진하게 되는 체육 붐이 조성케 된다.

이 행사를 치를 때는 각 마을에 안내장을 널리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참석케 해서 열띤 응원을 하겠끔 해서 협동 단결심을 고취케 한다.

9. 건강 위생에 관한 환경 조성

건강 위생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정설하여 모조지 같은 깨끗한 용지에 등사하여 가정에 배부해 주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첩부시켜 수시로 읽어 보게 해서 그대로 실천케 지도한다. 마을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요소에는 건강 생활에서 꼭 명심해야 할 “건강 생활 십칙”같은 것을 큼직하게 게시해 두도록 한다.

10. 이 닦이 생활 지도

위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닦이 생활이 실제 생활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닦이 지도에 특히 노력하기로 했다.

방송이나 동민의 집회할 때를 이용하여 이 닦이의 필요성과 이 닦이 요령을 실물에 의하여 충분히 지도한다. 학생들을 통하여 전가족분의 치솔을 구비토록 지도하고 그 구비 상황을 학교에서도 검사하여 미구비 가정에는 공동 구입해서 갖추어 주기까지 했다.

11. 기생충 예방 및 구제 지도

위생 관념의 부족으로 기생충에 잘 감염되고 또 기생충구제에 무관심한 사람이 매우 많다.

여러 가지 기생충의 해독과 감염 경로를 알려 그 예방에 노력케 하는 한편 집단 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고 기생충 보유자에게는 군보건소등과 연락하여 열가로 복약케해서 구제토록 적극 주선해준다.

변 검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변검사를 실시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동민들의 변검사를 실시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동민들의 변검사도 집단적으로 함께 실시하였다.

지난 해에 본교의 시범 지도 부락으로 선정된 옥산동민 331명에 대하여 집단 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1할에 해당하는 32명이 디스토마 보유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주었다.

12. 식기의 위생적인 관리 지도

주부들의 위생 관념이 회박한 탓으로 식기의 관리가 극히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식기를 닦는 행주는 깨끗한 베로써 만들도록 하고 자주 끓인물 소독을 하여 잘 건조케 지도한다. 그리고 기명통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물에 잘 씻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순회 지도하여 철저히 위생적 관리를 하게 한다.

13. 위생적인 의생활(衣生活)지도

일반적으로 화학 섬유로 된 내의를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내의의 청결에는 특히 관심이 적다. 그래서 화학 섬유로 된 내의가 위생에 해로움을 알려주고 면직내의를 권장하며 특히 깨끗한 내의를 입도록 지도한다.

침구는 매주 한 번 이상 일광 소독을 하게 하고 취침시는 반드시 불결한 발을 잘 씻고 취침토록 지도한다.

14. 영양 본위의 식생활 지도

영양 상식의 부족으로 대체로 만복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장병에 걸리기 쉽다.

영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양보다도 영양 본위의 식생활 개선에 힘쓰도록 지도한다.

보편적으로 농촌 사람들의 식생활은 단백질과 지방분이 가장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콩을 많이 먹도록 해서 단백질과 지방분의 보충에 노력케 지도하였다. 콩은 비교적 싼값으로 취할 수 있는 영양 식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잡곡혼식과 반찬을 계획적으로 변화성있게 마련하여 영양분 섭취에 노력토록 지도한다.

15. 위생적인 주택 생활

농촌의 주택들은 대체로 그 구조가 환기를 고려한 점이 부족하고 일상 생활에서 환기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혼탁한 실내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환기에 유의하고 청결 미화에 힘써서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케 지도한다.

四. 결 론

위에서 본교가 마을 체육 지도에서 평소 연구 실천하고 있는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열거해 보았다.

앞으로 각 마을의 제반 여건에 적합한 지도법을 모색하여 열성적인 지도를 하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게 될 것이다.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마을 체육 지도의 중요성을 깊이 각성하고 성의를 가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법이 우리날 것으로 믿는다.

요는 지도자 여하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됨을 통감하는 마이다.

<이하 176페이지로>

학교중심 사회교육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2)

.....◎ ◎ ◎.....
=경북도내 어머니 교실을 중심으로=



허 영 부

〈도 교육 연구원〉

二. 이론적 배경

1. 사회교육의 의의

(1) 사회교육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이라는 두 개의 용어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개의 용어는 대체로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때로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교육은 조직과 활동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중에 “사회”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교육이며 성인교육은 그 대상이 성인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운영되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사회교육이란 말은 최근에 이르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라마다 그 개념을 달리하나 대체로 미국이나 영국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독일의 민중교육(Volksbildung), 프랑스의 공중교육(Education Publiqúe), 인도와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은 서로 그 뜻과 내용이 비슷하다.

사회교육이 현대적인 형태로 조직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회교육을 “사회의 일반 성인들의 교육”, “사회경험으로서의 교육”, “사회를 위한 교육”, “사회의 교육작용”이라는 비교적 광범하고 막연한 개념이다.^{4,5)}

4) 황중건, “성인교육의 개념과 그 형태”, 한국의 민주적 발전과 성인교육의 과제, 제주시 여름 세미나 종합보고(서울: 중앙교육연구소, 1966), p.30

5) 황중건, “사회교육의 원리”, 사회교육, 현대교육총서 11,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3), p.27

사회교육은 해방이전 일제시대 때 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로서 우리나라 교육법규나 행정조직상에 적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교육법규나 행정기구에서 사용되는 사회교육은 정규학교 기관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것으로 공민학교, 성인학급 등을 비롯하여 학관,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의 활동을 권장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든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있어서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임무를 완전히 담당할 수 없음을 비추어 사회교육의 필요는 뚜렷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사회교육법의 제정은 오래전부터 절실히 요청되어 오든바 1949년도에 제정 공포된 교육법은 주로 기본교육 및 학교교육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교육에 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본법의 제정이 필요함으로 그 추진에 시급을 요하고 있다.

사회교육법안이 처음 시도되기는 1952년 당시의 문교부 성인교육과에서 주로 일본의 사회교육법안을 참고하여 만든데서 비롯한다고 보겠는데 이때 사회교육의 정의를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교교육 활동을 제외한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⁶⁾

사회교육법 시안과 현재 문교부 사회교육과의 업무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은 유치원, 공민학교, 각종 강습소, 종교단체, 문화단체, 청소년단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직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교육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개념과 활동범위는 일본의 것과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1896년경부터 이미 이 용어를 그들의 행정부와 일반사회에서 채택 사용했던 것이다. 한때는 이 용어와 개념이 「사회주의 교육」으로 동일시 하려는 일반 대중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통용교육」이란 말로 대치한 일이 있었으나 1921년부터는 일본문부성에서 이를 시정하여 다시 사회교육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확실히 사회교육이란 용어는 그것이 가지는 개념은 너무나도 광범하고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 더러 때로는 다른 개념과 혼돈 내지 오해를 일으키기 일수이므로 운영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 때로는 사회교육이란 말이 “사회적 교육” 또는 “사회의 사회적 기초” 등으로 오인 받은 일이 적지않다. 예를 들면 교육의 사회적 기초를 강조하는 나트로프(Natrop)의 사회적 교육학(Social padagogik)이나 아동에게 사회적 유산이나 집단규범(集團規範)을 전달해주는 교육을 말한 로귀(Lodge)의 사회적 교육과 늘 혼돈을 이끈다. 미국에서 발달되고 있는 Social Education이라는 교육지가 있는데, 이것도 실은 미국사회생활과 교육협회의 기관지로서 학교 아동들을 위한 사회생활과 교육을 취급하고 있다.⁷⁾

6) 중앙교육연구소, 한국의 사회교육, (서울: 배영사, 1966), p.91

7) 황종건, *op. cit.*, pp.26~27

일본이나 인도나 한국에서는 비교적 확실히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셈인데 이것은 성인교육이라는 개념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을 띄운 것이다.

인도에 있어서는 문부성내에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전국의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교육은 성인교육이다.

둘째, 사회교육이란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위한 교육이다.

셋째, 사회교육이란 개인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생활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다.

네째, 사회교육이란 지역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다.

다섯째, 사회교육이란 보다 바람직한 직업성취 및 휴식 그리고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이다.⁸⁾

사회교육의 기본개념과 목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성인들을 위한 조직된 교육 계획된 성인교육 이외에 성인생활의 종합적발전, 여가선용,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교육의 개념은 학교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계획과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성인교육이나 문맹교육은 물론 공민학교교육, 청소년교육, 가정교육, 부녀교육, 근로자교육, 종교교육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교회, 극장, 도서관, 마을문고, 공원, 공회당, 직장 등의 시설이나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등의 매스 미디어나 또는 종합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이나 국민운동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⁹⁾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사회교육은 구미 여러나라의 넓은 범위의 성인교육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 구미의 여러나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교육, 학교예외교육, 계속교육, 미래의 교육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곧 우리나라의 사회교육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이 모든 활동은 그 기본성격에 있어서 지역사회 모든 성원들의 자기성장, 사회생활에의 적응, 직업에의 적응, 여가선용, 경제과학생활의 합리화, 그리고 문화의 적응등을 위한 여러 형태의 교육활동이라 하겠다.

(2) 성인 교육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성인들의 교육 또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 개념은 확실히 사회교육 보다는 좁고 그 한계가 보다 명확

8) Ministry of Education, Concept of Social Education, (India:Government of India, 1963), p.5.

9) 황종건, op. cit., p.27.

하다고 본다. 물론 성인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경험을 총칭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일정한 대상을 위하여 교육적으로 조직되는 교육을 말한다.¹⁰⁾

성인교육이란 성인생활의 변화와 개선을 가능케 하는 학습경험으로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에 있어 늘 일어나는 우연한 학습경험이며

둘째, 성인이 스스로 목적을 의식하고 그 자신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행동을 조정하고 모든 경험을 선택하는 자기 교육이며

셋째, 외부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의하여 조직되는 형식을 갖춘 성인학습의 활동이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성인교육은 결코 우연한 성인학습이나 자기 교육의 면이 아니라 일종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독자적 분야와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라디오나 TV를 시청하면서 일어나는 학습경험을 전부 성인교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성인교육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의 필요한 학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직되는 교육으로서 교육적인 구조와 절차를 갖춘 체계적인 학습 경험이다.

Manchester 대학의 Waller 교수는 이러한 개념의 성인교육을 “성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dult)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교육이란 그들이 알아야만하며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성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조직된 준비과정이며 또한 성인들 스스로가 알아야만 하며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 주는 조직된 준비과정이다.”¹¹⁾

위의 여러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성인교육을 정의한다면 성인교육은 일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일정한 내용을 교육적으로 조직계획하여 그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학습시키는 동시에 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의 연구분야로는

첫째, 성인대상과 그 학습에 관한 연구.

둘째, 성인교육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연구.

셋째, 성인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네째, 성인교육의 평가에 관한 연구등을 들수있다.

(3) 성인교육의 대상 및 성격

교육을 넓은 의미에서 인간생활의 성장과정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역사는 “사회적 교육”으로 시작하며 또한 “사회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학교라는 형

10) 황종진, *op. cit* p.30

11) Ross D. Waller, “Aims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 for Adults”, Mimeography for Lecture, Department of Adult Education, Manchester University, 1964~1965

식적 교육기관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사회 안에서 여러가지 집단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건 또는 비형식적이건 여러가지 교육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학교 기관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도 인간성장의 매우 중요한 “피셔내리티” 가치관, 태도, 그외에 여러가지 사회적 기술이 학교이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사회적 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그 사회의 성인들의 교육적, 문화적, 자질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교육이 보다 더 긴급하게 요구되고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최근 2~3년의 일이다. 이 변화의 곡선은 파라볼릭(Parabolic : 1. 4. 9. 16. 25. 36……)한 곡선 모양으로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과거 10년간에 일어난 변화는 그 이전의 20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해왔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의 도는 어디까지나 과학기술 발달의 과속도적인 템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은 변화의 발전은 새로운 지식의 발견(학문 교육)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¹²⁾

그러므로 오늘의 성인교육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의 필요한 학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직되는 교육으로서 교육적인 구조와 절차를 갖춘 학습경험인 것이다. 다른 교육분야, 즉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또는 대학교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그것이 독특하고 독립적인 대상과 형태와 방법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흔히 약 18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버너(Verner)의 이론에 의하면,

“일정한 연령이 결코 그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구실을 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¹³⁾고 주장하고 있다.

성인의 구실을 하기에 합당하게되는 연령은 개인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정도 각 사회에 따라 다르다. 어느 사회에서는 20세가 넘어야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18세에 성인의 자격을 인정한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각각 성인이 되는 심리적 성숙이 나이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다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의 규정을 내리려면 우선 인간생활의 발달과업중에 성인이 경험하는 발달과업과 연결시켜 고려해야 한다.

성인생활은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나 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 심리적 조건과 그들 나름으로서의 독특한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년초기(18~30세)에는 배우자를 선정하고 가정생활이 시작되고, 어린이들을 양육하게 되고, 가정을 관리해야 하고, 작업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공민적 책임을 감당하고, 웅만한 사회생활을 가져야 하며, 중

12) S. M. Hely, *New Trends i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1962), pp.9~12

13) Coolie Verner, “Definition of Terms”, *Adult Education*, (Chicago: Adult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S.A, 1964) p.28

년기(30~55세)에는 성인들의 생활에 과업이 부과된다. 생활의 경제적 수준을 어느정도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 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 여가선용, 그리고 중년기의 여러가지 생리적 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는 일, 연노환 부모에 대한 적응하는 일 등이 중년기의 성인들이 겪어야 할 발달과업이며 또한 노년기에는 성년기나 중년기보다 더 크고 심각한 변화를 겪게되며 이 변화에 순응하거나 또는 여기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기의 성인들은 줄어드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는 일, 은퇴후의 수입의 감소에 적응하는 일, 배우자의 사망에 적응하는 일, 많은 시간의 여유를 이용하는 일, 자기의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일 등을 노년기의 성인들이 경험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⁴⁾

성인을 말 할때는 그들의 독특한 발달과업 즉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정의내려야 한다. 사회적 역할이란 개념은 그 개인의 책임과 관계가 깊다. 즉 성인으로서의 자격은 그들이 하나의 성숙한 사람으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갖으며 스스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직장, 가정,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해 가는 데에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버너(verner)의 말을 빌리면

“성인이란 스스로는 물론 보통은 다른 사람들까지 부양 할 책임을 가지는 인생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을 말하며 또한 그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맡아드린 사람을 말한다.”¹⁵⁾

또한 월러(Waller) 교수가 말하기를

“성인이라 보통 약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부모가 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이이다.”¹⁶⁾

그러므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교육이 초등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학력기를 지나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도 국가나 사회의 성인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성인교육의 중요한 대상이라 하겠다.

(4) 성인학습의 목표

성인학습은 민주시민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성인을 그 목표로 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분해서 학자들이 각기 주장한 이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山室民子是 노동자들이 활동에 참가하는 목적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말한다.¹⁷⁾

14) Robert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1952)

15) Coolie Verner, ob. cit., p. 29

16) Ross D. Waller, ob. cit., 1964~1965

17) 東京教育大學, 教育學研究室(編), 社會教育(東京: 金子書房, 1952), p. 160

- 첫째, 직업적인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 둘째, 경제문제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 셋째, 타인과 사교하기 위하여
- 네째, 자기의 교양을 높이고 자기표현을 잘하기 위하여
- 다섯째,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또한 Paul Essert가 주장하는 성인교육의 목표는¹⁸⁾

- 첫째, 직업적 성취
- 둘째, 미와 진리의 탐구
- 셋째, 자활활동의 경험
- 네째, 친교의 경험
- 다섯째, 일시적 고독의 경험

California 성인교육의 안내서에 의하면 성인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

- 첫째, 성인으로 하여금 타인 거주하는 지역사회, 조국 세계에 대한 시민적 책임을 작성케 하기 위하여
- 둘째,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 셋째,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취할 책임과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 네째, 건강증진을 위하여
- 다섯째, 문화향상과 예술 감상을 잘 하기 위하여
- 여섯째, 넓은 교육적 배경을 갖기 위하여
- 일곱째, 자기 표현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이상의 여러 주장을 통해서 성인학습의 목표는 문학의 해독정도에서 만족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대인관계나 직업적 능력 풍부한 개인생활 등을 주르한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사회 문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시키는 능력과 함께 향상 발전하는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 공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유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인학습의 목표라 하겠다.

(5) 성인교육의 내용

성인교육의 내용은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성인들의 기본 욕구와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대상의 범위가 광범한 뿐더러, 그들의 흥미와 교육수준이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과 활동의 내

18) Paul Essert, *Creative Leadership of Adult Education*,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p.17

19)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Hand book on Adult Education in California*, Bulletin No. 4, May, 1949, pp.13~14

용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한 부조리하다. 12세가량의 소년들로부터 6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직업으로부터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이르기까지의 대상이 되므로 내용에 있어서도²⁰⁾ 과학, 예술, 종교, 윤리, 도덕, 직업, 체육, 오락(Recreation)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949년 덴마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성인교육회의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을 배워줄 뿐 아니라 사회에서 본인 자신을 위하여 통일된 인간적인 생활방법으로 향상하도록 하여 주는 그중의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정신적인 하나의 상태이며 지식에 대한 갈망, 사상적 및 사회적 자유에 대한 욕망, 문화의 발전에 참여 하려는 열의이다.”

교육내용은 어디까지나 각국의 실정에 따라 문화수준, 생활조건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중심으로 대개 다음의 몇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 | |
|----------|---------------|
| ① 문맹자 교육 | ⑦ 보건위생교육 |
| ② 직업지도 | ⑧ 교양교육 |
| ③ 부모교육 | ⑨ 오락교육 |
| ④ 소비자교육 | ⑩ 신생활교육 |
| ⑤ 노동자교육 | ⑪ 도덕 및 종교교육 |
| ⑥ 정치교육 | ⑫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 |

(6) 어머니 교실의 교육 과정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향토사회의 여러가지 실정과 어머니교실 회원들의 욕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이 향토학교의 기본원리임을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생활중심교육도 실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향토사회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하며, 동시에 전체향토사회의 생활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나(Hanna)와 내스린드(Naslund)는 향토학교의 네 가지 강조점 중에 하나로 「향토사회중심의 교육과정」을 들고 있다.²¹⁾

모든 인간의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커뮤니티(Community)이기 때문에 학교는 어머니 교실 회원들로 하여금 「생활의 장」으로서의 향토사회와 그들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종합적인 어머니 교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통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성인교육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

20) 황종진, *op. cit.*, p. 49

21) Paul Hanna and Robert A. Naslund, The Community School Defined. In the Community School, 52nd Year Book (Part III), N.S.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 50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생활 즉 향토사회 안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계획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모님들이 꼭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며 매일의 생활경험은 가정과 향토사회 또는 공동사회라는 품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어디까지나 향토사회중심 즉 어머니 교실 회원 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은 회원들이 배우는 일이 전부 지방적인 향토사회의 것이라 고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향토학교가 다루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회원들의 생활 과정에 따라 향토 사회적 것으로부터 지방사회, 국가사회 또는 세계사회적인 것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²²⁾

어머니 교실의 교육내용은 그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들의 흥미와 교육 수준이 이질적(異質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잡하다. 20대로부터 60세이상의 연령에 이르기까지의 서로 생활경험을 달리한 학모들이 대상이 되므로 교육과정의 조직 또한 매우 복잡하다.

“성인교육의 교육과정은 생활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것이다. 성인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즉 성인들의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효과있는 생활에 필요한 적응과 변화와 새로운 행동을 포함하며 또한 성인의 생활과정을 통하여 발달되는 모든 지식, 기술, 습관과 태도를 포함한다.”²³⁾

이와같이 성인교육의 내용은 글자를 해독하거나 단순한 직업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과 함께 이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공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기의 역할을 유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듀마찌디어(Dumazedier)에 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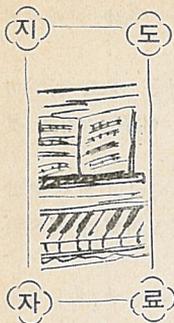
“성인교육이란 진정한 인생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생각된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은 가능한 풍부한 인생을 살기 위한 능력을 각각의 개인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⁴⁾

즉 성인교육이란 민주국가의 주관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자기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자기주변의 자연적 물적 환경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이미 적응하거나 또는 이를 개조할 수 있는 바탕 개인의 지성과 양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원래 영국에서 성인교육이라함은 바로 성인들의 인문교육을 말

22) 황종건, 오계회, 향토학교 건설의 문제점, 중앙교육연구소(서울:배영사, 1963), p. 93

23) Homer Kempfer, Adult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p. 93

24) J. Dumazedier, “The Content of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p. 41



피아노 學習指導法의 一考



朴 廷 陽

(안동교대 부교수)

<차례>

- 一. 序論
- 1. 問題
- 2. 目的
- 二. 本論

- 1. 運指法
- 2. 페달使用法
- 三. 結論

On a Rational Method of Teaching Piano

Jeung-Yang park

Abstract

At this time, here in Korea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tudying piano by their profession or their culture. They have some problems for their learning and studying the piano and there are few scholars and materials written in Korean to solve the problems.

Therefore they can not but rely upon the related literature written by foreign scholars. There should be a suitable material for student to learn by themselves, for teacher to study their fields and for parents to amuse themselves, in Korea.

Here, the writer intended to solve the problems by studying related literature and by her teaching experiences.

一. 序 論

1. 問題

學徒스스로의 努力과天分 有能한 教師 父母의 뒷바라지 등의 三者가 갖추어져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피아노工夫라 하겠다. 피아노를 學問으로 삼고 一生을 걸어 볼라는 사람 또 教養으로 피아노音樂의 技術과 識見을 갖추어보자는 사람 이리하여 그 人口는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學徒들이 모두 優秀한 教師를 찾을 수 있나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 優秀한 教師를 만났다하더라도 數的으로 지나치게 많은 學徒를 맡았다든지 또 多忙한 現代生活에 쫓기어 참으로 學徒하나하나의 個性의 條件에 注意를 기울여 細心하게 指導의 矚點을 理解實踐하고 있는지 理論과 實技를 一致시키고 있는지 合理的인 奏法指導에 萬全을 期하고 있는지에 對해서는 疑心을 가질 수 있다.

眞實로 個個人의 個性에 適合하고 背景이되는 理論의바탕을 豊富히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있어서 實技指導는 適切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 問題는 學徒나 教師에게 最大의 關心事項에는 틀림없다.

2. 目的

上述한 問題點에 對하여 學徒와 父母도 教師와 못지않게 識見을 넓혀야 되겠다. 그러기 爲해서는 모두가 읽을 理解할 수 있는 文獻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專門的인 外國書籍으로 學徒들은 입을 機會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教本自體도 時代的差異에서 오는 作曲者의 偏見 또 出版者의 誤謬로 因한 不適當한 演奏의 指示를 볼 수 있으며 特히 個人의 條件이 모두 同一하지 않은點 指導하여 본 結果 數없이 指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物理的 藝術的判斷으로 추궁하고 研究하여 피아노技法의 여러가지 問題點을 提示하고 解決하여 理想的인 奏法과 그 背景이되는 理論을 指摘하는 것은 우리의 使命이라 하겠으며 學徒나 教師나 學父母가 다같이 입을 수 있는 한 編을 미약하나마 드리고져 하는 바이며 여러해 教育에 從事하는 동안의 教具로서의 피아노樂器라는 뜻에서도 意義가 크다고 生覺한다.

이 한編을 쓰는 目的과 意義는 여기에 있다.

範圍가 넓어서 一, 二編으로 決定지우기 어려운 것이며 여기서 基礎가 되는 運指法과 여기에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진 페달 使用法을 論하고 其他 프레이징 터치 연습법 템포 테크닉 아르고리크 表情法 其他問題에 對하여는 다른 機會에 究明하고져 한다.

二. 本 論

1. 運指法

피아노演奏에 있어서 運指는 重要한 問題이다. 運指法의 研究의 歷史는 피아노가 생기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피아노를 발명한 “발도로메오” “클리스토포

리"가 1655년에 出生하였다. (1) 그리고 30年後에 "바흐"와 "헨델"이 出生하였다. 그에 앞서 1598년에 이태리의 모데나란 곳에 2臺의 피아노의 前身인 樂器가 存在한 記錄으로 보아 (2) 16,17世紀에 그 研究는 具體化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時代에는 音階를 다음과 같이 演奏하였다. (3)



그러니까 "바흐"以前에는 2,3,4指단을 썼으며 1,5指는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黑鍵의 높이가 그 當時의 樂器에서는 조금 낮았다고 하나까 右手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을 넘어가는 運指에서도 過히 不便을 안 느꼈는 것 같다. 더우기 ♩와 같은 리듬을 잘 쓰지않은 理由도 있겠다.

바흐는 1指를 使用한 最初의 사람이며 그의 아들 "임마누엘·바흐"는 理論적으로 이것을 整理하였고 그 以前의 "스카랏티"의 作品에서도 5,4,3,2,1,3,2,1의 下行式運指를 볼 수 있었다고도 한다. (4)

運指法에는 독일式 영국式의 두 가지가 있으며 영국式은 1指를 ×표로 標示하고 2指를 1로 3指를 2로 4指를 3으로 5指를 4로 標示하였다.

×	1	2	3	4
⋮	⋮	⋮	⋮	⋮
1	2	3	4	5

오늘날에는 거의 使用하지 않으며 1,2,3,4,5指로 標示하는 現在로 우리가 쓰는 손가락標示를 썼으며 이것이 독일式이다. (5)

그리고 堀内敬은 野村良雄가 編集한 音樂辭典에서는 19世紀初에 現代의 主張에 가까운것이 標準化되었다고 한다.

피아노에 페달이 完全치 못하던 18世紀 以前의 樂器에서는 레가—토의 表現은 運指에서만 이루어졌다. "브로드워"이 페달의 特許를 얻은 것은 1783年이다. (6)

"大體로 피아노 教則本이나 曲集에는 運指가 綿密히 標示되어 있다. 이것을 良心적으로 指示대로 工夫하면 틀림이 없겠으나 作曲者나 出版者에 따라서는 合理的이 못되는 運指의 指示를 發見할 수도 있고 손가락이 길고 짧고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손이 있어 各自條件이 다르다.

各自의 條件에 適合한 運指法을 研究하고 技術적으로 運指가 困難한 곳에서는 不合理的 運指를 하여 나중에 다시 고쳐야할 時間浪費를 避하기 爲해서 運指의 선택

(1) 中谷孝男著 피아노의 技術과 歷史 22

(2) 上掲書 21

(3) 標準音樂辭典 音樂之友社發行 1315

(4) 上掲辭典 1315

(5) 上掲辭典 1316

(6) 上掲書 피아노의 技術과 歷史 24

이 처음부터 考慮되어야 하고 때로는 運指의 可能性을 學習者에게 提示하여 주고 또 學習者는 신중히 考慮하여 가장 自己에게 適合한 것으로 決定지어야 되겠다. (7)

文獻과 自身の 指導經驗에서 얻은 問題點 主로 特殊한 條件에서의 境遇를 추궁하여 究明하여 보코저 한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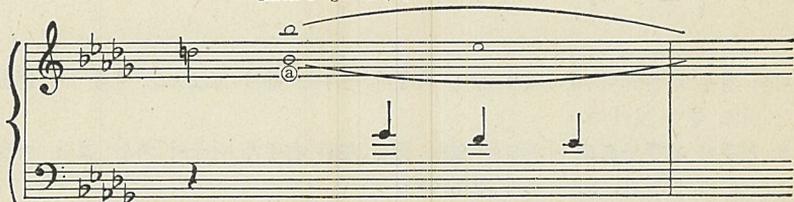
于先 指導하다 보면 손가락이 지나치게 짧아서 困難을 겪는 學習者가 相當數된다. 特殊한 경우가 아니라도 年少한 學習者에 있어서는 더우기 이러하다. 年齡이 20歲 前後의 成人인 우리 教育大學의 學生도 調査人員 44名中 16회-센트 7名에 達하는 學生이 1指 끝에서 5指 끝의 距離가 19cm 以下로 옥타-브를 짚고 또 그 사이의 몇音의 코-드를 짚을 때 不便한 손의 길이를 갖고 있다.

Bach Preludio 17에서



위의 경우 손가락이 짧은 理由만이 아니고라도 @音은 左手 1指로치는 練習을 익히는 것이 便利하겠다.

Bach Fuga 22에서



위의 경우도 손이 짧을 때 @音을 左手로 練習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바흐」의 인벤션에서는 適合하게 運指를 選擇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機會에 상세히 다루어야 되겠다.

Haydn Sonata 중에서

①	5	5	5	5	5	5
②	5	4	5	4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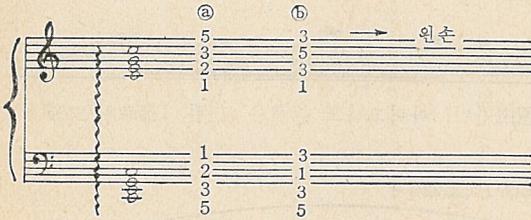
(7) 피아노演奏의 藝術의 完成 「요셉 디히러-著」 音樂之友社發行 291

위의 경우 ㉔의 運指를 쓰면 連絡이 잘되고 合理的이겠으나 손가락이 짧은 경우 ㉕의 方法을 쓰고 페달로 連絡시키는 것도 指導方法이라 하겠다. ㉔의 運指를 쓰는 경우 피아노와 손이 接觸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Lange op39에서



위의 경우 손이 적으면 右手의 演奏가 번거러워진다. 이것을 페달使用으로 쉽게 할 수 있겠다. 卽 ㉔音과 같이 페달을 울려 놓고 ㉖㉗㉘를 왼손으로치는 方法도 한 가지 方法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경우 손가락이 지나치게 짧은 아동의 경우는 ㉕의 方法으로 익혀주어 解決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左手나 右手만으로 치게되어 있는 곳을 左手 右手가 나누어 치는 것이 더욱 合理的인 때가 있다. 卽 아래의 경우이다.



㉔의 部分을 右手로치면 쉽고 더욱 合理的이겠다.

「Josef Dichler」는 그의 著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피아니스트는 音樂自

體를 難點없이 어떠한 運指로라도 表現하면 된다』고⁽⁸⁾

Bach Fuga 22



위의 경우도 첫마디를 左手로 치는 것이 좋겠다.



위의 경우도 ㉞를 右手로 ㉟를 左手가 演奏하겠끔 원하는 것이 좋겠다.

B

다음에 同音連打의 경우를 究明하고자 한다.

上掲書에서는 여기에 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未熟한 學習者는 左手 右手의 連打의 손가락 바꿈을 거의 無意味하게 반복한다. 그러나 조용히 같은 손가락으로 치는 것을 許容해도 좋다』⁽⁹⁾ 또 「요셉 디힐러」—는 베-토-벤의 月光曲主題의 처음의 第二音을 4指로치는 運指法이 標示되어 있다. 이것은 神秘로운 부드러운 리듬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손가락을 바꾸지 않고 連打하는데 對해서 上掲書에서는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고 있다.



위의 리듬을 右手 左手 5指中 모든 손가락을 써서 練習할 것이며 左手는 右手의 옥타브 밑에서 치며 세게 (*f*) 여러게 (*ff*) 어느 것으로나 연습하고 어개의 힘을 빼고

(8) 피아노 演奏의 藝術의 完成 요세프 디힐러—著 渡邊護 尾高節子譯 297
 (9) 上掲書 피아노 演奏의 藝術의 完成 531

같은 리듬으로 3度音 3和音 其他 여러 음程이나 和音으로 行하라고 하는 提案이다.

(a)
(b)
(c)
(d)

또 한가지 생각할 問題는 위에서 보듯이 여러가지 方法中 (a)의 4,3,2,1을 반복하는 것이 單純하고 쉬울 것이다. 이러한 運指의 例는 체루니教本 其他 많은 曲에서 볼 수 있다.

Czerny 30번 중에서

위의 경우 標示한 4,3,2의 運指는 다음 스켈의 運指의 便利를 生覺한 以外는 3, 2, 1의 單純한 反復이다.

Mozart 더...키쉬마-취 중에서

(a)	1	1	1	1	1	1	1	1	1
(b)	1	2	1	2	1	2	1	2	1
(c)	1	3	2	1	1	3	2	1	1

위의 경우 나의 生覺같아서는 (a)의 方法도 좋겠고 (b)의 方法도 無妨하고 (c)의 方法도 손목의 運動에만 留意한다면 한가지 方法이겠으니 3者中 마음에 드는 것을 擇一하면 되겠다.

Haydn Sonata중에서

(a)	4	5	5
	1	2	1
(b)	4	4	5
	1	1	1

위의 경우 ㉔㉕의 방법이 다 무방하겠다.

C

指示한 運指의 變更을 不許하여 嚴格히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 실자 그것이 不便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런 것이 大部分이 겠으나 몇 가지만 例를 들어 보겠다.

Haydn Sonata 中에



위의 경우 ㉖의 방법은 自然스럽고 쉽겠으나 冊에 提示되어 있는 ㉔의 방법을 써야 合理的이겠다.

Liszt ungarische rhapsodien 中에서



㉔	2 3 4 3 2 3 4 3	2
㉕	1 2 3 2 1 2 3 2	3
㉖	3 4 5 4 3 4 5 4	3

위의 경우 세가지의 運指의 可能性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樂譜의 運指標示 대로 ㉔의 방법을 꼭 지켜야 合理的인 演奏를 할 수 있을 것이다.

D

其他 音程의 間隔을 測量하는 感覺에 呼訴해야 될 경우 또 原則을 벗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必要로 하는 訓練이 있고 또 兩手로 到底히 演奏가 不可能한 樂譜를 作曲者의 興이 넘쳐서 表現한 것도 相當히 많이 보이며 其中 몇 가지를 例를 들어 본다.

Beethoven Sonata op26 var II에서



위의 경우는 感覺에 依한 測量으로 演奏해야 하며 特히 템포가 빠를 경우는 더 우기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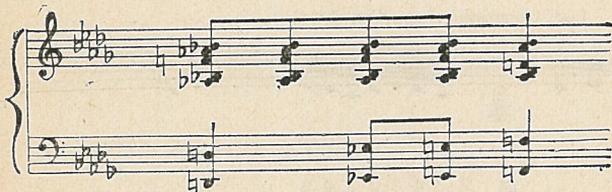
Haydn Sonata 중에서



위의 경우 黑鍵은 엄지손가락을 避하는 것이 原則이나 모든 音階를 C長調의 運指法으로도 演奏할 수 있게 訓練해야 된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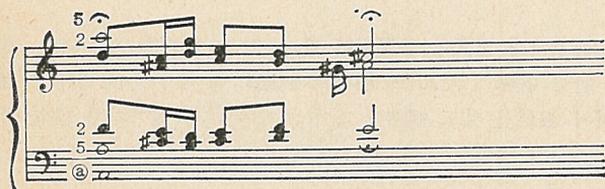
그러한 理論에서 본다면 原則을 完化하여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키—라도』 익숙히 칠 수 있게 훈련하는 것도 必要하겠다. 이 主張에 따른다면 ㉑의 運指로 演奏하는 것도 無妨하게 된다.

Chopin Sonata II Scher 20에서



위의 경우는 右手의 5指 끝에서 1指 끝의 長이가 24cm가 넘어야 演奏가 可能하겠으며 다음의 경우는 演奏가 不可能하다. (알페지오가 아니면)

Bach Fuga a 단조 중에서



「ErnestHutcheson」은 이렇게 말한다. 『作曲者가 붙인 運指 出版者 또는 校訂者가 붙인 것도 많으나 가장 自然스럽고 쉬운 方法을 復活시킬 것을 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11)

길이 生覺해서 運指를 決定하고 合理的인 指導를 받은 學習者는 틀림없이 優秀한 演奏者로써의 바탕이 形成될 것이며 또 必要한 것은 自己自身이 이것을 判斷한

(10) 올바른 피아노교육 박찬석저 학문사발행 110

(11) 아메스트릿손著 千藏八郎譯 피아노音樂의 길잡이 全音 樂譜出版社: 530

줄 아는 力量이 아울러 必要하며 이것을 길러 주어야 되겠다.

2. 페달使用法

運指法을 究明하다 보니 페달使用과 運指를 別途로 生覺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運指와 同時에 留意하고 決定지워져야 할 問題이며 運指法과 페달 使用法의 重要性의 輕重을 가리키는 困難한 것 같다. 『페달은 音樂의 魂이다. 피아노音樂의 死活을 左右하는 것은 페달의 技術이다』라고 말하였다.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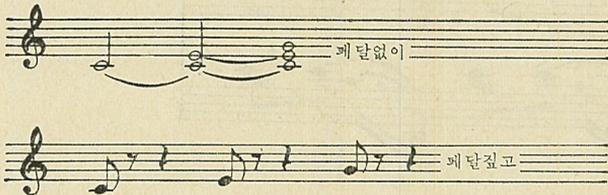
A. 페달의 發選

1783년에 「브로드윗」이 페달의 特許를 얻었고 「몬탈」이 1862년에 소스테누—트 페달을 발표하였고 (14) 其前에 만들어진 1711年製의 함머크라리아에는 近代의 右側 페달이 달려 있었다고 한다. (15) 1685년에 出生한 「바흐」는 페달없는 피아노를 使用했다고 볼 수 있으며 「헨델」도 마찬가지이다. 하이든의 出生이 1733年이며 모차르트가 1756年生이며 베토벤이 1770年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겨우 特許를 얻은 페달로 現代의 페달과는 그 性能이 差異가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쇼팽 리스트도 左側페달이 만들어지기 前에 出生하였다. 때때로 이러한 大家들이 直接붙인 페달 標示가 不合理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完全한 페달의 性能이 갖추어지지 못한 時代에 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또 옛날의 피아노페달에는 무릎으로 操作하는 方式의 페달도 있었다고 한다. (16)

그러하여 페달의 數와 使用効力은 時代에 따라 變遷하였다. 하—프시코—드奏者는 소리를 짧게하기 爲하여 손으로 弦을 눌렀다. 그리고 손이 떨어지는 瞬間 소리도 끊어졌다 (17)

앞에서도 陳述한 바와 같이 페달의 使用은 初步教育의 첫 時間부터 行하여져야 되겠다.

大人의 學徒의 경우는 理論的概觀을 說明하여 주고 어린 學徒의 경우에는 實際的 音樂的方法에 依한다. 그 方法의 簡單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이 있다.



(12) 피아노페달의 使用法 炭田光吉著 音樂之友社

(13) 上揭書 울바른 피아노교육 50

(14) 피아노의 技術과 歷史中谷孝男 音樂之友社 24.25

(15) 上揭書 피아노 演奏의 藝術의 完成 24

(16) 上揭書 標準音樂辭典 1099

(17) 피아노音樂에의 걸잡이 「아베스트 헛치슨」著 무릎드칸즈增補 千藏八郎譯 全音樂譜出版社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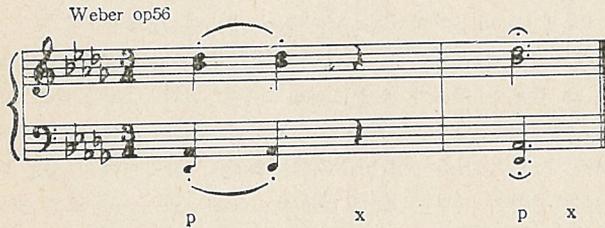
위와 같은 方法으로 不協和音에서도 實驗한다. 그리고 機械가 움직이는 狀態를 피아노에서 直接 보여 줄 必要가 있다. (18)

B. 페달使用의 目的

페달使用의 科學的인 現象으로 共鳴現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倍音現象이 나타난다. 그리고 演奏가 華麗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具體的으로 目的을 알아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延長의 페달

이 페달이 純粹하게 使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曲의 끝의 和音에 쓰이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두개의 音を 한페달로 延長시키는 法은 느린곡의 和音일 경우 써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音量이 너무 커져서 表現이 本意아니게 되어 버린다.

② 이으는페달 (레가-토의 페달)

運指로 이루어질 수 없는 音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이으는 것이며 보통 많이 쓰이는 페달이다.



위에서 두번째 페달은 ㉔음을 치는 瞬間은 그 前의 페달을 그대로 짚고 재빠르게 페달을 다시 짚어야 된다. ㉔음을 치기前에 페달도 떨어지면 안 된다.

(18) 上揭書 피아노 演奏法의 藝術的完成 61.62

Liszt 헝가리안 랍소디 - 3번에서



위의 페달도 이것이다.

③ 週期的인페달 (리듬의 페달)

페달의 使用으로 明瞭한 리듬의 表現을 살리자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다른 和音이나 旋律的인 條件을 물리치고 리듬만을 살리고 있다.

Haydn Sonata 중에서



위의 경우가 이것이며 이런 경우 모든 音을 같은 強度로 치드라도 리듬이 뚜렷해진다.

C. 페달을 밟는 時期

① 切分音的인페달 (소리가 난 後에 밟는 페달)

소리를 내고 약간 뒤늦게 내는 페달이며 앞에서 레가—토의 페달로 說明하였다. 이것의 長點은 純粹한 音을 安全하게 얻을 수 있고 前音과 混同할 憂慮가 없고 또 소리를 낸 1, 2秒後에야 實際로 아름다운 音을 낸다는 피아노에 있어서 더욱 藝術的인 效果를 얻는다. (19)

② 同時에 밟는 페달

많은 사람들이 切分音的인페달에 많이 神經을 쓰는데 拍子와 같이 밟는 페달연습

(19) 上掲書 피아노페달 使用法 31

도 充分히 해야 되겠다. 여기에 必要한 것은 앞의 音이 完全히 解消되어야 한다는 條件이다.

이 두가지 외에 소리내기 前에 踏는 경우도 있으나 極히 드물며 曲의 맨 첫 音이나 긴 休止符 뒤에 나오는 音의 경우 힘 안 들고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20)

D. 페달의 機構

① 右側페달

右側페달을 踏고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보면 絃에 붙어있는 踏과가 들어지고 발을 踏던 제자리에 돌아간다. 踏과가 줄에서 떼어진 다음에 踏리던 다른 줄의 共鳴에 依해서 擴大되고 손가락을 鍵盤에서 떼어도 소리가 持續된다. 앞에서 陳述한 바와 같이 倍音 共鳴現象이 생기고 약간의 騷音 또 顛音도 생긴다.

또 자세히 觀察해 보면 低音의 굵은줄은 振幅이 커서 페달을 踏어도 오랫동안 울린다. 高音의 가는 줄은 짧고 팽팽하기 때문에 絃을 치는 순간 소리가 끊어진다.

學徒들에게 이 現象을 잘 보여주어 쉽게 理解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高音의 여러 音은 한개의 페달로 여러 音을 쳐도 無妨하나 低音은 페달질은 채로 많은 音을 쳐서는 안 된다는 理論을 피아노의 視覺의인 觀察로 알 수 있다.

② 左側페달

소프트페달이라고도 하며 外形으로 보아 그 모양이 右側페달과 같다. 左側페달을 질으니까 피아노 뚜껑을 열어놓고 잘 觀察하면 鍵盤과 액션의 자리가 右側으로 미끄러지며 3絃인 音은 2絃만 踏리고 2絃인 音은 1絃만 踏리고 1絃인 音은 踏을 때 려서 소리가 弱해진다. 그리고 hammer와 絃자이가 좁아진다.

③ 中央페달

第三페달이라고도 하고 쏘스테누—토페달이라고도 하며 兒린표현(*p*)에서는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센표현(*f*)에서는 音質이 섬세하고 銳利해진다. (21) 이것은 持續音을 연주하는데 便利하나 實用的이 아니고 一般的으로 使用되지 않는다.

E. 페달의 記號

樂譜를 보면 페달의 指示가 상세히 불려진 것 全然볼지 않은 版 또 一部分 붙은 것이 있다. 記號中에는 莫然히 *con pedale senza Pedale* 등의 標識이 붙은 것도 있다. 앞에서 알아본 것 같이 페달이 없었던 時代나 또 不完全했던 發展途上에 出生한 音樂家들은 關心이 없었거나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깊게는 生覺하지 안 했을 것이라고 思料된다. 여기에 學徒들의 고충이 있다고 하겠다.

또 한가지 滋味있는 點은 樂器따라 페달의 콘디션도 다르다는 點이다.

(20) 上揭書 31

(21) 樂器圖鑑 菅原明朗 音樂之友社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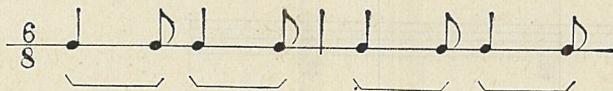


㉔	p		p		p		p
㉕	p	x	p	x	p	x	p
㉖	p		xp		xp		xp

위와 같은 경우 實際가 ㉔와 같이 使用해야 된다는 點을 페달표를 놓고 實演으로 提示해서 일찌기 가르쳐야 되겠다. 페달을 떼는 표식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짚는 표식은 이와 같이 詳細한 指導가 必要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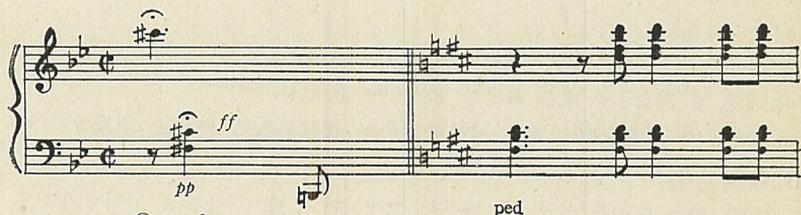
F. 페달標의 實際

페달標는 普通으로 쓰여지는 *p** 표이외에 *consordin sensasordino*로도 標示되지만 初步的인 學徒에게는 別로 所用이 없는 標인 것 같다. *padsimlie*로 몇마디의 標示를 省略하기로 한다. 또 다음과 같이 標示된 것도 있으나 不完全한 것인 것 같다.



大家들이 直接붙인 곳에서 不合理한 點을 종종 發見할 수 있다.

Beethoven op106 1. satz



- ㉔ ped
- ㉕ p x p

위의 경우는 上揭書 페달使用法에 依하면 베—토—벤 自身이 붙인 페달標라고 하는데 이것은 ㉕와 같이 페달을 짚어야 베이스의 B음이 다음 和音의 根本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hopin Sonata에서



위의 경우 아무리 보아도 페달표가 合理的인 것 같지 않다. 맨처음은 페달을 짚었기 때문에 到底히 스타카—토가 될 수 없고 다음의 페달을 떼어 버렸기 때문에 표현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경우 맨처음은 페달없이 치고 둘째 음부터 마디의 끝까지 페달을 밟아주어야 合理的인 것 같이 生覺되는 바이다. 이러한 例는 찾아보면 많이 있다. 여기서 冊의 페달표도 그대로 信奉할 수가 없는 것 같다.

Beethoven Appassionata



위의 경우 긴 和音들을 같은 페달로 짚어서는 안 된다. (22) (23)
특히 「바흐」의 多聲音樂에 對한 페달使用法은 複雜함으로 別途로 研究해야 할 課題이라 하겠다.

또 페달을 밟는 연습도 발꿈치를 마루에 고정시키고 발의 앞부분 엄지발가락의 첫째 마디의 關節이 페달을 밟게 意識的으로 練習하는 것도 必要하겠으며 拍子와 같이 밟는 페달의 연습은 必要없는 것같이 生覺한 사람도 있으나 이것도 練習이 必要하겠다.

(22) 上掲書페달 使用法

(23) 上掲書 올바른 피아노교육 52

三. 結 論

以上の 文獻研究와 實際樂譜分析과 指導經驗에 依한 考察로 다음과 같이 結論지 온다.

첫째로 運指法에 있어서 그 解決方法이 一義的이 아니며 多分히 創意的이어야 된다는 點을 들 수 있으며 樂譜에 提示된 運指라도 便利하고 쉬운 方法을 쓰는 것이 理想的이라 하겠으며 또 各 自의 條件에 맞는 運指를 써야 되겠다. 教師는 運指를 決定하는 理由를 理論的으로 說明하며 不合理한 指示는 訂正해 주어 決定의 能力을 學徒自身이 갖도록 指導해 주어야 하며 途中에 運指를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없게 練習前에 充分히 考慮하여 決定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不便해 보이지만 樂譜에 記入된 運指를 忠實히 練習해야 되는 곳도 많이 있다는 點과 混同해서는 안 되며 簡부로 運指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음을 아올러 알고 있어야 되겠다. 特히 손이 작은 사람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特別한 運指를 만들어 주며 學徒 自身도 解決의 能力을 가질 수 있는 指導가 必要하다.

둘째로 어떤 教師들은 古典에 있어서의 페달使用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完全한 運指가 된 다음에 페달에 神經을 쓰게 指導하는 教師도 있다. 그러나 페달使用은 피아노初歩의 첫발부터 같이 그 訓練을 해야 됨을 알 수 있다. 많은 文獻에서 그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 研究의 結果 大家라고 하는 作曲家들의 페달使用의 指示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 理由는 그들의 時代에는 不完全한 페달이 그들을 맞았기 때문인 것 같다. 혹시 큰 關心이 없었는 것 같기도 思料된다. 그런 故로 自己自身이 페달解決도 合理的으로 處理하는 能力을 일찍부터 實踐을 通해서 또 教師의 指示를 通해서 갖도록 指導해야 되겠다. 이리므로 페달標示가 없는 版으로 學徒와 教師가 協議하여 納得시키면서 한 마디씩 解決해나가는 方法은 좋은 學習方法이라 하겠다. 本質的으로 演奏效果를 노릴라면 페달使用은 音樂의 魂을 일깨워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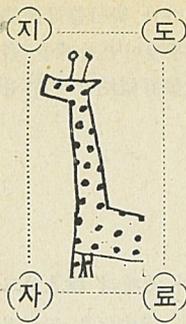
셋째로 運指法과 페달 使用法을 總括하여 生覺할 때 이것은 메어 놓을 수 없는 關係가 깊음을 알 수 있고 어느 것을 先頭로 할 수도 없고 그 指導는 같이 피아노의 第一步에서부터 始作되어야 되겠다. 左側페달은 그 機能으로 보아 右側을 使用할 때의 音色과 너무 많은 差異가 나서 그 使用에는 格別히 操心하여 쓸 것이며 全然使用 안하는 것 보다는 部分部分에 있어서의 效果의인 使用은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判斷도 내릴 수 있다. 피아노를 教授하는데 있어서 運指에서나 페달使用에서나 規則的인 것 보다는 例外가 더 많은 것 같고 樂譜를 盲目的으로 信仰해서는 안 된다는 點을 強調할 수 있다.

教師는 恒常 가르치는데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는 지의 理論的인 豊富한 背景을 갖이고 說明하고 能力養成에 힘쓰며 聽力에 依해서 페달使用의 善惡을 가릴 수 있

게 까지 그 指導는 徹底해야 되겠다.

參 考 文 獻

1. 피아노演奏의 藝術的完成 요셉디힐러一著 音樂之友社 1966
2. 演奏의 歷史 도리안著 音樂之友社 1964, (福田昌作)
(藤本黎時)共譯
3. 標準音樂辭典 日黑三策編集 音樂之友社 1966
4. 피아노페달의 使用法 发田光吉著 音樂之友社 1967
5. 피아노의 技術과 歷史 中谷孝男著 音樂之友社 1970
6. 올바른 피아노教育 박찬직著 학문사 1971
7. 現代피아노 演奏法 라아마기제킹著 李瑞燮 圓覺社 1960
8. 피아노音樂에의 길잡이 아네스트헛슨著 全音樂譜出版社 1969
루돌프 간즈增補
千藏八郎譯
9. 樂器圖鑑 管原明朗著 音樂之友 1968
10. 社피아노의 學習 長岡敏夫著 音樂之友社 1968
11. 音樂史 千藏八郎著 音樂之友社 1967
12. 피아노 音樂史 윌리아켈著 音樂之友社 1967
13. 피아노 演奏藝術 베이가우스著 音樂之友社 1967
園部四郎譯
14. 피아노에의 길 안돌폴데스著 音樂之友社 渡邊護譯
15. 베-토-벤 쏘나타 앨범
16. 쇼팽 쏘나타 曲集
17. 체루니敎本
18. 바흐의 平均 率曲集 1.2集
19. 리스트 랑가리안 랍소디
20. 피아노 名曲集
21. 하이든 쏘나타



江華修好條約에 관한 一考 (1)



吳 鶴 泰

<目 次>

- | | |
|------------------|-------------|
| 一. 序 言 | 1. 江華談判 |
| 二. 日本의 政情과 征韓論 | 2. 江華條約의 內容 |
| 三. 雲揚號事件 | 五. 結 論 |
| 四. 江華條好條約 締結의 顛末 | |

一. 序 言

19世紀 後半 所謂 第二次産業革命期를 通하여 歐美資本主義諸國은 國內資本主義의 無限한 發展을 爲하여 商品市場 및 原料供給地로서 國外에 植民地 半植民地를 求하여 世界制覇를 爲한 世界政策을 行하여 所謂帝國時代를 가져왔다.

帝國主義下의 後進地域 即 Asia, Africa 等地에 있어서는 植民地 半植民地가 形成되어 民族과 國家全體가 帝國主義列強의 恣意에 依하여 支配되어 왔다.

當時 日本은 後進地域 Asia에서 가장 獨自의 發展을 가져왔던 나라이며 또한 明治維新以後 資本主義列強을 模倣하여 近代國家로서 成長해 왔던 나라이다. 그러나 國內的으로는 後進國으로서 이미 治外法權 關稅非自主等의 不平等條約이 부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를 脫皮하기 爲해서는 先進列強의 隊列에 參加하여 近代化의 要素를 絶對主義尊制體制로써 補完하고 急速히 富國強兵의 길을 模索하기 에는 軍國的 官僚國家體制를 強化할 必要가 있었다. 그러나 國內資源이 不足하고 市場이 狹少하여 高度의 近代産業을 이룩하기 爲하여는 外部에 市場과 資源을 獲得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이러한 爲 처음 台灣을 征伐하고 따라서 琉球를 確保하여 마침내 歐美諸國에 對하여 鎖國政策을 取하고 있던 韓國에 武力의 威脅을 加하여 1876年 그 門戶를 開放케 했던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韓國이 日本帝國主義의 武力의 威脅에 依하여 드디어 1876年에 修好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國際社會의 一員이 된 過程을 論하였다. 특히 日本의 對韓

政策에 관한 理論的 題目이었던 「征韓論」의 實相을 把握하고 나아가 韓日修好條約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었던 雲揚號事件의 動機와 政治의 底意가 무엇이었던가를 客觀的으로 分析하면서 修好會談의 經過를 檢討하고 끝으로 韓日修好條約의 內容을 簡單히 說明하여 그 歷史的 意義를 把握하고자 한다.

二. 日本의 征情과 征韓論

日本은 明治維新前後를 期하여 歐美 資本主義 文明을 우리보다 재빨리 輸入하고 國政全般에 걸쳐 一大革新을 斷行하여 強力한 中央集權體制 아래 近代化를 促進하고 있었다. 近代 國際社會의 一員이된 日本은 國內 商品市場이 極히 狹少하고 原料와 資源도 貧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軍事力에 依해서 海外로부터 原料와 食糧을 供給받는데 힘을 써 왔다. 따라서 19世紀 後半 歐美資本主義 列強國家의 東洋侵略에 對한 그 列強諸國間的 矛盾과 對立 葛藤을 日本은 잘 利用하면서 所謂 軍事的 封建的 帝國主義로서 富國強兵 侵略政策을 그 對外政策의 根本으로 삼았다. 即 1774年(高宗 11年) 4月에는 앞서 琉球人이 台灣에 漂着하였다가 生蕃族에 殺害당한 事件을 口實로 台灣征伐를 斷行하게 되어 該島의 未開生蕃族을 相對로 그들의 近代化한 武力을 試驗하여 相當한 勝利感에 滿足하기도 하고 그 侵略의 優越感으로써 韓國에다가 그 野慾을 돌리기 始作하였다. 元來 韓國과 日本은 300年間의 友好關係를 가졌고 德川幕府가 鎖國하였을 때에도 兩國은 國交를 繼續하였다. 다만 幕府末 混亂期에는 一時 國交가 中斷되었으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事情 때문이었다. 即 日本은 歐美列強과 開國하고 이 開港이 下得己한 事情임을 韓國에 알려 왔다. 그러나 韓國側에서 보면 日本의 開國은 期待에 어긋나는 것이고 外國과 通交하는 日本을 警戒해야 할 相對이었으므로 韓國은 日本과의 接觸을 避할 方針을 取하였다. 이리하여 開國한 日本과 鎖國을 繼續하는 韓國과의 사이에는 外交政策에 있어서 큰 蹉跌이 없을 수가 없었다. 1868年 1月 1日 發足한 明治政府는 그 즉시 駐日六個國公使에게 王政復古에 관한 通告書를 發하고 韓國에 對하여는 德川 300年間 韓日 國交에 關하여 特別한 役割을 해 온 對馬島主 宗義達의 主張에 依하여 그에게 그 任務遂行을 一任하고 그리고 宗義達로 하여금 270年間 實施해 오던 韓日 兩國間的 外交文書 書式과 그 書契 및 外交節次등을 無視하고 傲慢不遜한 語句와 相違한 書契를 使用한 高壓的인 王政復古 通知書를 呈納하여 兩國間的 修好를 두둑게 할 것을 또한 要請해 왔다. 그런데 이에 對하여 韓國은 「皇室」「奉勅」 등의 文字를 使用하고 있는 書契가 慣例에 어긋난 것이라 지적하여 東萊府使 鄭顯德은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고 中央政府에도 通告하지 않는 채 保留하고 있었으므로 韓國政府의 對日 回答은 發送되지 않았다.

이에 對하여 日本 政府는 佐田素一郎등을 釜山으로 派遣하였으나 韓國側과 쉽게

修好進展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뒤이어 1870년에는 外務權少丞 吉岡弘毅 1872年 1月에는 外務權大錄 森山茂등으로 하여금 20數回에 걸쳐 交涉을 거듭하였으나 拒絶當하고 말았다. 드디어 1872年 8月 外務卿 副島種臣은 從來의 交涉을 버리고 그 本性을 露骨的으로 나타내어 外務大丞 花房義質로 하여금 兵艦二隻을 이끌고 武力을 背景으로 交涉하게 하였는데 韓國은 火輪船의 碇泊中에는 一切 交涉에 應하지 않겠다고 頑強히 拒絶하였다. 當時 韓國은 大院君의 執政時代인지라 嚴重한 攘夷 鎖國策을 쓰고 있었으므로 歐美列強에 開國된 日本도 歐美諸國과 마찬가지로 危險한 存在로 看做되었던 것이다. 1872年 10月 花房義質이 돌아간 以後 韓國은 自國人的 和館出入을 禁하였기 때문에 日本居留地의 一廓은 全然周圍로부터 孤立無援의 狀態에 있게 되니 日本은 韓國 官憲의 排外的인 行爲를 廟堂에 詳陳하여 斷斷한 對策을 간구할 것을 國民들에게 呼訴하였다. 이로 因하여 對韓強硬論이 擡頭되어 西鄉隆盛 江藤新平 板垣退助等이 中心이 되어 所謂 征韓論을 부르짖게 되었다.

征韓論이란 兵艦을 거느린 外交使節을 派遣하여 武力을 背景으로 修好關係를 樹立하려고 하는 主張으로서 勿論 듣지 않을 때는 干戈도 不辭한다는 것은 不聞可知이다. 征韓論者中 가장 強海軍을 韓國에 派遣하여 우리 나라의 居留民을 保護한다면 韓國의 官民은 이것을 보고 恐怖와 不安의 心情을 가지고 받드시 日本이 韓國을 供呑할 것을 피하여 이러한 事端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征韓의 大義名分이 서지 않기 때문에 陸海軍의 派遣에 앞서 全權 使節을 派遣하여 韓國政府와 交涉케 하고 이에 對해서도 韓國이 應하지 않을 때 出兵하는 것이 上策이라는 것이었고 派遣 全權使節로서는 西鄉 自身이 任命될 것을 願한 바 있었다. 1871年 11月에 日本 政府에서는 多年間 宿題로 되어 오던 不平等 條約의 改正을 위하여 岩倉具視를 首班으로 하는 特命 全權大使의 一行을 歐美에 派遣하였다. 正使로서는 右大臣 岩倉, 副使로서는 參議 木戶孝允 大藏卿 大久保利通 工部大輔 伊藤博文, 거기에 隨員 48名이 任命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出發에 앞서 大使가 歸國할 때까지 될 수 있는대로 官制에 關하여 新規改正을 하지 않을 것이며 不得已必要한 경우에는 事前에 大使에게 照會할 것과 諸官省長官이 缺員이 되는 때에도 補充하지 않고 參議가 分擔하여 事務를 處理할 것 등을 內容으로 한 12個項目에 달하는 約定書를 內閣에 提示하고 그것에 對한 諒解를 얻었던 것인데 그 底意는 그들이 海外에 있는동안 西鄉가 그 機會를 利用하여 反動的 施策을 遂行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어떻든 1873年 8月 17日의 閣議에서는 西鄉을 派韓 大使에 任命할 것을 內定하였고 前述한 바와 같은 約定에 依하여 派韓大使 任命發表는 岩倉大使의 歸國後에 行할 것을 決定하였다. 當時 閣議의 底意를 살펴보면 王政復古를 이룩한 赤手空拳의 明治政府가 그 이어받은 貧困 武士制度의 廢止에 依하여 祿俸을 받지 못하게 된 50萬 失職武士들의 不平, 膨脹된 政府機構의 經費增高, 汙濫하는 外國商品으로 因한 國內産業의 破壞와 그 萎縮, 急增하는 人口 增加와 食糧不足等으로 살아날 길

이 없어 韓國을 掠奪함으로써 그 急을 甦한다는데 순수한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西郷가 派韓全權大使를 自薦하고 나왔던 底意는 무엇이었던가에 대하여 우리는 西郷傳記의 著者の 說明을 빌리기로 한다. 「西郷의 意見은 처음부터 和親이 아니고 侵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西郷은 1872年 8月 副島外務卿 板垣 參議 등과 謀議하여 陸軍中佐 地村重賴 同大尉 別府晋介를 韓國에 外務省 出仕 池上四郎, 武市正幹을 滿洲에 翌 73년에는 陸軍少將 樺山資紀 海軍秘書 兒玉利口를 南清 台灣에 派遣하여 各各 地理 風俗등을 觀察케 하여 一朝有事時에 對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西郷가 閣議에서 먼저 大使를 派送하여 韓國의 잘못을 論雜하고 拒絕되었을 때 비로서 出兵하여야 한다고 主張한 것은 決코 西郷이 穩健派라는 證據가 아니라 單純히 表面上의 名分을 바르게 하려고 생각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1873年 8月 17日 西郷가 板垣에게 보낸 便紙에서 韓國에게 隣邦과의 交涉을 等困히함을 論難하고 지금까지의 不遜을 버리고 隣交할 것을 要求하면 반드시 韓國은 輕率하고 侮辱의인 言動을 行하게 될 뿐 아니라 使節을 殺害할 것임은 決코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天下의 人心은 모두 韓國을 征伐할만한 理由가 充分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을 미루어 보아 明白하다. 即 西郷은 韓國側이 日本使節을 殺害할 것을 確信하고 있었으며 使節이 虐殺되면 韓國 征服을 爲한 大義名分이 설 것이라고 生覺하면서 그 使節의 任務를 自己가 맡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殺害될 것을 알면서 派韓大使를 自薦하였던 그 緣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要컨대 徵兵制 實施에 對한 鹿兒島士族의 憤激의 出口을 마련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鹿兒島士族의 頭領을 自任하고 있었던 西郷이기 때문에 그들의 不平 그리고 나아가서는 徵兵制 實施에 依하여 全國의 士族이 품고 있던 不平을 韓國 征伐軍을 일으킴으로써 解消시키려고 試圖한 것이었다.

日本政府가 徵兵令을 發布한 것은 1872年 11月의 일이었는 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西郷은 徵兵制 實施에 反對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가 持論을 버리고 徵兵制 實施에 贊成하게 된 것은 意見이 變化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陸軍大臣 山縣有明의 巧妙한 說明에 依하여 誤解되었기 때문이었다. 山縣은 說明하기를 兵卒은 全國의 成年男子로써 充當하지만 그것을 指揮하는 士官은 모두 士族으로써 任用한다고 하였다. 언제나 鹿兒島 士族의 利害를 第一位로 생각하던 西郷은 士族만이 士官이 될 것이라는 希望的 觀側에 依하여 그렇다면 그도 反對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徵兵制에 贊成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對한 鹿兒島 士族의 不滿은 冲天하였으며, 이에 唐慌한 西郷은 征韓論에 狂奔하지 않으면 안 될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1869年 所謂 版籍奉還과 함께 이른바 藩의 重役以下의 一般 武士層은 士族이라 하였는데 이 舊來의 一般武士層은 徵兵令의 發布에 依하여 武力의 獨點者로서의 地位를 剝奪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版籍奉還」과 「廢藩置縣」이란 改革에 依하여 從前까지 享有했던 一切의 社會의 地位를 一時에 剝奪當하게 된 그들 士族

의 憤激은 歲月과 함께 그 探刻의 度를 加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政治的으로도 큰 問題였다. 그런데 그들은 征韓論이 擡頭되자 韓國과의 戰爭이 그들의 前途에 어떠한 打開의 길을 附與할 것임을 懇切하게 期待하여 이 征韓論을 熱心히 支持하였던 것이다. 西鄕이가 前述한 바와 같은 派韓大使를 自薦한 悲狀한 決心은 이로써 밝혀진 것으로 아나 그러나 이러한 西鄕等의 主張은 岩倉 一行이 歐美에서 歸國한後 그들이 依한 猛烈한 反對에 逢着하였다. 反對派의 主張은 「먼저 國力을 充實히 하여 國民의 幸福을 增進하고 道理에 依하여 名分을 바르게 세우고 난 후에 비로서 台灣 韓國등에 關한 일을 企圖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다름아닌 往年の 對韓強硬論者였던 木戶孝允의 意見이었다. 歐美를 觀察하여 日本의 國力이 歐美諸國에 比하여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나 하는 것을 切感한 나머지 먼저 무엇보다도 內政의 整備가 時急한 것을 느낀 木戶는 對韓強硬策이 時機에 適合치 않음을 切實히 自覺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征韓論 그 自體에 對한 反對가 아니라 政府의 基礎를 鞏固히 하고 國力의 充實을 꾀하고 나서 實行하려 했기 때문에 다만 그 時期과 方法이 달랐을 뿐 征韓原則에는 다름이 없었다.

그뒤 얼마안 되어 兩派의 紛糾絶果 使節派遣은 中止되고 征韓論을 主張해 오던 西鄕 板垣 伊藤 江藤 副島 등은 1873年 諸官職에서 辭退하고 征韓論은 一段落을 짓게 되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征韓論은 近代의 改革에서 생겨난 內部的 矛盾을 解決하기 爲한 方策으로서 主張 되었던 것이다. 卽 그것은 內部的 壓力의 噴出口로서 主張된 것이었지만 時機的으로 適合치 못하다는 理由에서 反對派에 依하여 挫折되었다. 그러므로 日本의 內政이 整備되는 날에는 早晚間 또다시 擡頭될 性質의 것이었음은 兩言을 要치 않는다.

三. 雲揚號事件

明治政府는 征韓論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韓變(1873~高宗 16)을 치룬뒤 英國과 結合하여 Russia와 對抗하고 釜山을 開港시키려하였으나 이것 또한 失敗로 돌아가 그 이듬해인 1874년에 森山茂가 外務卿의 命令을 받고 再次韓國에 開國 交渉하게 되었다. 이무렵 韓國에서는 大院君이 崔益鉉을 비롯한 兩班儒生의 비난을 받아 失脚하고 이어 閔氏政權이 樹立함에 對外政策에 一大轉換을 가져왔던 때이다. 卽 閔氏政權은 從來 써 왔던 大院君의 鎖國政策인 排外策을 反對하고 開國策을 쓰므로써 政權을 維持하려는 方向으로 기울어져 當時 大院君의 心服이며 排日의 先鋒에서 있던 東萊府使 鄭顯德 訓導 安東暎을 罷免시키고 東萊府使에 朴齋寬 釜山 訓導에 玄昔運 別差에 玄濟舜等을 任命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明治政府로 부터 派遣되어 있던 前述한 森山茂와 東萊府使 朴齋寬 사이에 正式會談이 열리기는 했으나 朝鮮政府의 朝臣들 사이에는 아직 排他的 傾向이 濃厚하여 交渉은 잘 進陟되지 못하

었다.

1875年 兩代表 사이에 問題가 되었던 「宴享設行」 「書契呈納」에 關하여 會談이 停頓狀態에 빠지게 되자 森山茂理事官은 日本韓府에 對하여 軍艦 若干隻을 朝鮮近海에 出動시켜 威脅할 것을 생각하고 1875年 4月 15日에는 副官廣津六等出仕를 東京에 보내어 寺島外務卿에 對해서 軍艦을 派遣하여 對州 近海를 測量케 함으로써 交渉에 對하여 聲援할 것을 請하는 議案」을 提出하게 했던 것이다.

同議案의 要旨는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彼國(韓國側)의 情況을 探知해 보면 閔宰相(升鎬를 指稱)이 橫死한 다음 大院君이 入城하여 兩黨의 相互軋轢이 甚해 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隱然히 開和의 氣勢를 助長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 바 萬一이라도 大院君이 再執權하여 前約을 履行치 않는다면 모든 일이 虛事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저 괴들이 內亂을 일으켜 攘夷 鎮國黨이 미쳐 勢力을 挽回하기 前에 이 機會를 利用하여 威力을 使用하면 쉽게 成事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我國 軍艦 1, 2隻을 派遣하여 對州와 彼國間으로 往還 隱現하면서 海路를 測量하고 一面 우리側 意思의 所在를 示威하는 同時에 朝廷이 理事의 責任을 묻는 체 하고 그들을 言辭로 逼迫하여 内外가 聲援한다면 理事의 順成은 勿論이요. 交涉締結에도 優勢한 權利를 獲得할 것이 心然之勢로 될 것이다. 이러한 好機會에 1, 2隻 軍艦을 派遣함은 他日의 大規模 動員을 아니하고도 成事하리라는 생각에서 敢히 請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建議에 對하여 寺島外務卿은 大體로 같은 意見を 가지고 있었으나 如斯한 軍事行動이 자칫하면 出兵으로 誤認됨으로써 1873年 10月 24日 日本天皇의 勅裁에 依하여 確定된 韓國出兵 無期 延期の 件과 遣韓大使議論 反對의 件에 甚히 矛盾된 憂慮가 있다고 생각하여 相當히 慎重하게 考慮할 必要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征韓論에 있어서 時期와 主導權으로 分裂한 當時의 內閣으로 미루어 볼 때 自進해서 征韓을 實行하려는 意圖는 如前히 없었던 것이었다. 釜山에 滯留하고 있던 森山理事官은 먼저 日本政府의 訓令을 待機하였으나 앞서 東京에 보냈던 廣津六等出仕에게서는 아무런 回信이 없음을 異常하게 여기고 7月 16日 1篇의 意見書를 草하여 이를 直接 寺島外務卿에게 보내어 政府의 決斷을 거듭 促求하였다. 이에 寺島外務卿은 이 森山茂의 意見書에 따라 三條實美 太政大臣 岩倉大臣의 確認을 얻어 海軍大輔 川村純義 當時海軍卿은 缺員과 協議하고 軍艦 「春日雲揚 第二丁 邸」의 三隻을 韓國 近海에 派遣할 것을 確定하였다. 特히 이 決定에 있어서 軍事當居者의 意見으로서 陸軍 長官인 參議 兼 陸軍卿 山縣有朋 海軍長官大輔 川村純義 등은 強行論을 主唱하여 이에 大贊成을 表面하였다. 이에 앞서 明治 6年(1873) 2月 淸國觀察을 마치고 돌아온 副島種臣은 關係會議를 通하여 韓國을 圍繞한 國際情勢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即 濟國政府는 韓國의 內治外交를 自主自治로 맡기고 있으므로 韓國의 日本에

對한 無札에 責任을 지지 않으며 더욱 當時 韓日露西亞 公使는 日本과 韓國 사이에 事件이 있을 때도 一切 露西亞가 干涉하지 않는다는 뜻을 傳한 것을 明言하였다.

이 報告를 들은 閣僚는 거의 全部가 贊成하였고 歐美列強이 進出하기 前에 韓國을 略取하려는 意圖는 分明하였다. 그러나 이 武力的인 制壓을 目的으로한 雲揚號 派遣方針에 反對한 것은 다만 板垣退助 參議뿐이었다. 即 軍艦出動後에 이러한 內容을 알고 太政大臣 三條에 對하여 政府의 行動이 矛盾되는 일임을 結責하고 元來 政府는 「內政을 整理하고난 然後에 對外的인 問題를 解決, 推進한다는 方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軍艦을 派遣 示威함으로써 우리의 要求를 貫徹하려할 때 萬若 韓國政府가 우리의 이와 같은 行爲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要求에 應하지 않을 때는 韓國에 對하여 戰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政府에서 韓國과 戰爭할 意思가 있다던 모를 일이겠거니와 萬一 戰意없이 이와 같은 幼稚한 장난을 한다면 틀림없이 國家를 累卵의 危機에 몰아 넣게 될 것이다」고 猛烈히 攻駁하였으나 三條大臣을 中心으로한 明治政府는 이 議論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既定方針대로 海軍當局과 協議한 後 秘密히 示威運動으로 「雲揚 春日」의 두 軍艦을 派遣하여 韓國兩岸의 偵察에 從事시키고 豆滿江口 및 咸境道, 永興灣과 慶尙道 迎日灣등을 偵察하도록 指令하였다. 그리고 三條太政大臣은 板垣의 뜻을 柔和시키고 爲하여 軍艦派遣은 다만 航海練習을 爲한 것이라 하고 萬一 反對 意見이 있을 때는 何時든지 軍艦을 곧 召還해도 關係없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韓國近海에 出動命令을 받은 雲揚號는 1875年 5月 25日 釜山에 入港하였는데 그것은 森山の 意見이 上申된 4月 15日부터 滿 40日後의 일이었다. 翌日 訓導 玄昔運은 「日本國 軍艦이 豫告도 없이 突然入港한 理由를 質問」하였으나 森山理事官은 서슴치 않고 派韓使命 遂行이 遷延되고 있으므로 本國 政府가 督促하는 뜻에서 來航케 된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이어 6月 30日 訓導는 再次 日本 公館을 訪問하고 國交再開에 對하여 交涉中 日本 軍艦이 予告없이 突然 나타난 것에 對하여 韓國官民으로 하여금 疑惑을 가지게 하는 所以라 하여 遺憾의 뜻을 表하였으나 森山 理事官은 「軍艦 派遣은 常例에 屬한 것이고 戰爭을 爲한 것이 아니다」라고 辨明하였다. 그러자 6月 12日에 또 「第二丁卯」가 艦長 伊東祐亨 海軍少佐 指揮下에 釜山에 入港하였으므로 玄昔運 訓導는 疑惑이 더욱 풀리지 않아 軍艦의 觀覽을 希望하였기 때문에 森山理事官은 升上 雲揚艦長과 伊東 第二丁卯 艦長과 交涉을 한 然後 이를 承諾하였다. 그리하여 訓導와 隨員一行이 乘艦하자 海軍側에서는 이것을 機會로 하여 碇泊한 處로 演習을 한다는 口實下에 砲聲은 釜山 東萊를 震動시켰다. 訓導一行과 韓國官民의 唐慌과 戰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小蒸氣船 한隻도 갖지 못하는 나라에 對하여 이 얼마나 露骨的인 威脅인가? 저들의 軍灣은 三隻만이 아니요 追後도 孟春 高雄의 兩艦까지 우리 近海로 나타나 4, 5隻이 交代해 가며 東, 南, 西 三面의 沿岸을 遊戈 示威하고 있었다. 艦長 升上 良馨이 政府로 부터 받은 訓令內容은 그

軍艦의 來航目的을 水路 測量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表面的인 理由이고 그 內面을 仔細히 檢討하여 보면 外務少丞 森山茂의 意見書에 따라 陸海軍部の 少壯人物들이 刺戟되어 自國內 物議도 제쳐 놓고 韓國問題에 對한 見解와 主張이 一層 急進的으로 動하여 이를 敢行한 것으로서 1871年의 清日 修好條約을 背信的으로 破壞하고 日本國內에서도 物議되고 있는 大陸政策의 第一步로서 韓國에 出兵할 수 있는 口實을 만들기 爲하여 「事件」을 挑發하려는 것이었고 이 機會를 捕捉하여 外交的으로 修好問題를 強力히 展開시키코저 한 政治的 外交的 陰謀가 計劃的으로 움직이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리하여 問題의 雲揚號는 釜山에서 그 威力을 示威하고 6月 20日 그곳을 떠나 22日에는 東海岸 永興灣에서 碇泊 3日後 25日에 出航하고 29日 다시 釜山에 寄港하여 一回 測量兼 示威를 끝마친 다음 7月 1日 長崎에 歸航하였다. 그後 또다시 雲揚號는 東南西海岸에서 清國牛莊까지 航路研究의 命을 받고 9月中 長崎를 다시 出航하여 西南海岸에서 行動中 1875年 9月 19日 美國과 佛蘭西艦隊의 江華島 侵攻事件 以來 어떠한 艦船도 許可없이 通過되지 않았던 韓國의 重要한 要塞地帶인 江華海峽에 아무런 豫告도 없이 入港하였으므로 이에 對하여 草芝鎭 砲臺에서는 事前連絡없이 恣意로 侵入하는 外國船에 對하여 砲擊을 加하였다. 端艇의 連絡을 받은 雲揚號는 端艇을 撤収시키면서 무서운 艦載砲로 우리 草芝鎭에 對하여 報復的인 猛射擊을 加하였다. 그리하여 暫時동안 草芝鎭을 破壞한 다음 艦首를 돌려 後退하면서 永宗鎭에 猛砲擊을 加하고 저희 陸戰隊까지 上陸시켜 焚蕩殺戮掠奪의 蠻行을 敢行한後 24日에 豊島海上을 떠나 28日 長崎에 歸港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이 當時 雙方の 武備를 比較해 보면 我方의 砲臺는 口徑 12cm에 射程距離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所謂 大砲口砲를 어설피게 備置한 程度요 兵士의 砲術도 火繩銃을 다루는 式에 不過하여 命中率도 거의 眼中에 넣을 수 없는 程度였다고 하니 寒心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雲揚艦側은 110听 및 40听의 艦載砲가 命中率이 거의 正確했다고 하니 雙方の 戰鬪結果는 不問可知였다. 따라서 그들의 砲擊과 上陸侵攻아래 永宗鎭 守備兵 4, 5百名은 僉使 李敏德以下 大部分 分散退却 버리고 數拾名의 戰死者에 捕虜 16名을 냈으며 大砲 36門과 火繩銃 130餘挺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軍器 銃彈 등을 掠奪當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反面 敵側은 不過 2名의 輕傷者를 내고 莫大한 掠奪品을 積載하여 長崎를 歸港하였다. 以上 說明한 것이 이른바 雲揚號事件의 全貌이었지만 이를 通하여 알 수 있는 것은 日本政府가 雲揚號를 派遣한 것은 韓國과 事端을 일으킴으로써 停頓狀態에 빠져 있던 開國交涉을 打開하려는 政治的 動機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 되어진다.



心靈講座 (3)



녹

원 역술

3. 영국 초기의 大靈媒 호음

○ 新靈魂說을 학문적으로 쌓아 올린 것은 영국인의 공로. 마침내 나타나서 기발한 호음의 능력.

新靈魂說이 미국 新天地에서 그 제일성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는 前章에서 말했다. 이것이 단순한 한 지방, 또는 한 시대의 유행이라면 그것으로 깨끗이 잊어버려졌을 것이다. 한데 이것이 세계에 전파되고, 중에서도 진실함을 천하에 자랑하는 영국인들 사이에 확고한 기반을 쌓고, 이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新靈魂說이 얼마나 단단한 이론과 事實 위에 서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 이제부터 영국에 있어서의 新靈魂說이 대두된 경로를 概說하기로 하겠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말하면 미국이 그 첫째였지만, 이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大成시킨 점으로 본다면 영국이 그 진구자라 하겠다.

영국에 있어서 心靈問題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학자나 사상가의 視聽을 끌게 된 것은 1855년 전후였다. 왜냐하면 이 해에 저 회유의 大靈媒 다윗드·단글러스 호음(1833~1883)(D. D. Home)이 미국에서 돌아와 영국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소련에서 태어나, 9살 때에 숙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거기서 靈媒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호음에 관한 기록은 매우 풍부하다. 자신의 自傳과 호음부인의 追懷錄을 비롯하여, 썬어, 윌리엄, 크록크스, 에에, 알우아레스 등, 당시 일류의 과학자들의 자세한 보고도 적지 않다. 그런 것을 비교 대조하여 考量을 내릴 때, 호음이라는 靈媒는 物理的靈魂現象의 製出에 관하여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실지 목격자의 기록에 의하여 그 요점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호음이 한 실험의 일반적인 특색은 그것이 밝은 데서 행해지는 것과 그가 대개의 경우 常態를 지니는 것이었다. 간혹 入神狀態에 빠지기도 했지만, 자기자신을 잠입칭으로 부르는 것이 다소 이상한 것처럼 보였을 정도이고, 외관적으로 조금도 신에 썬 듯한 데가 없는 것이었다.

그의 실험에 있어서 첫째로 들지 않으면 안 될 現象의 하나는,

1) 실험실 전체가 대진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배의 甲板이기도 한 듯이 전후 좌우로 동요하고, 천장에 매달린 개스등의 유리장식이 잘그락 잘그락, 서로 부딪혔다고 한다. 스캇차드양은 1912년 8월의 “라이트”誌上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했다.

“우리 모두가 방바닥, 벽, 창 등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어번 아이오니아에서 지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의 느낌과 흡사했습니다. 이윽고 전등을 끄니 現象은 한층 강렬해지고, 다음에 온 대충동 때문에 창문이 덜덜 떨리고, 걸그릇은 달가닥거리며, 벽도 방바닥도 강하게 동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보드라도 호음의 현상에 관한 기록이 결코 황당무계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2) 실험을 할 때에 기온이 저하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크룩크스경의 기사를 소개한다.

“호음의 실험에 있어서 일종 기묘한 일은 찬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이다. 나는 시험삼아 종이조각을 날려 보았다.

어떤 때엔 별로 공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공기가 차고 마치 빙결한 수는 가까이 손을 가져갔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국 心靈協會의 간부인 하일리·프라이즈씨도 1923년 영국의 靈媒 스텔라·지이앙을 실험했을 때에 화씨의 한난계로 온도가 20도 5분정도 내려갔다고 보고했고 기타 원리·시나이델이라든지, 클루스키이라든지에 대해서도 실험기록을 보아도 죄다 온도의 강하를 자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기온의 저하는 결코 호음 한사람에게 한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다음으로 호음의 실험에 있어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은,

3) 손퉁금이 저절로 우는 것이다. 호음이 키이를 밀로 가게 퉁금을 한 손으로 들고 있으니 한 靈手(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가 나타나서 상하로 그것을 끌어당겼다. 이윽고 호음이 퉁금을 완전히 놓아 버리고 두 손을 桌上에 올려 놓고 있어도 퉁금은 공중에 떠 있으면서 부지런히 독주를 계속했다. 퉁금은 때로 탁자 밑을 빠져서 반대편에 나타나기도 했다. 연주는 펍 교묘하고 희망에 따라 무슨 곡이라도 탔다. 크룩크스경의 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실로 정치를 극하고, 퉁금 들레에 쇠그물을 치고, 그것에 전류를 보낸 일도 있으나, 퉁금 연주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호음의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수천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靈媒에서도 허다히 나타나며, 측면적으로는 이 사실의 정확함을 입증하는 실례가 적지 않다.

다음에는 靈手의 物質化現象이다.

4) 靈手의 物質化現象. 크룩크스경이 이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겼기에 그것

을 소개한다.

〈靈手の 성질〉靈手는 왕왕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알지마는, 나는 희귀하게도 밝은 곳에서 그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靈手는 優美한 모양의 작은 것으로서, 식탁 사이에서 나타나 나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서너번 나왔다 들어갔다했기에 나는 그것을 짐작이 갈 때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 이동안 나는 靈媒의 手를 잡고 있었기에 그것이 靈媒자신의 손일 수 없었다. 게다가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밝은 내방 안에서였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린아이 손목같은 것이 나타나서 내 곁에 앉아 있는 부인의 몸 둘레를 뒤지고, 내 팔을 몇번이나 가벼이 치기도 하고, 또 내 옷을 당기기도 했다. 그러는가 하면 호옴 자신의 단추 구멍에 끼워 있는 꽃의 잎을 뜯어서 근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깔아놓기도 했다. 그러는 손이란 손가락이랑은 반드시 언제나 圓形體같은 것은 없었다. 손모양으로 굳어진 몽클몽클한 星雲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다. 한 사람은 星雲같은 손목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꽃 위에 빛나는 雲霧가 떠도는 것을 보았으며 다른 또 한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하고 움직이는 꽃만 보았다. 나 자신은 왕왕 움직이는 물체를 보았고, 다음으로 빛나는 星雲 같은 것을 보았으며, 끝으로 星雲 같은 것이 응집하여 완전한 손목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손목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나, 그 上部는 몽롱하여 빛나는 구름과 같은 것으로 희미해져 있었다. 시험삼아 그 손목을 잡아 보니 어떤 때엔 어름처럼 차갑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엔 따뜻하며 생기가 있기도 하며, 친절하게 내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 손은 별로 힘도 드리지 않고 차차 연기처럼 희미해져서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phenomena of Spiritualism p.92)

다음으로 호옴에게 왕왕 일어나는 현상은,

5) 여러 종류의 浮揚現象이다. 그 자신의 육체가 浮揚하기도 하고 방안의 器物이 부양하기도 했다. 기물 중에서 큰 것은 피아노, 卓子 등이었다. 다음에 펙크부인의 기사를 소개한다.

〈卓子の 浮揚〉卓子は 이윽고 上昇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곱사람은 그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었는데, 마침내 손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장에서 1피트 이내까지 올라갔다가 차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위에 놓인 석유등이 곧 미끌어져 떨어지리만큼 기울어졌기에, 주부는 깜짝놀라 그것을 받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옴씨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이윽고 탕 하고 탁자는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만. 탁자 위에 놓인 여러가지 물건은 하나도 움직인 것이 없었습니다. 탁자는 다시 또 천장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羽毛처럼 가벼이 내려왔습니다. 세번째 올라갔을 때에도 아주 조용히 내려왔으므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D. D. Home, His life and mission p. 377)

호음 자신의 浮揚을 목격한 사람은 썬어, 윌리엄, 크룩크스, 린지경, 단테에빈 백작, 인다佐를 비롯하여, 민올만한 기록만 해도 100 이상이 된다. 중에서도 그의 浮揚現象 중의 가장 기발한 것은 1866년 11월 13일, 런던시 빅트리아가의 앳스레에 邸에서 3층의 한 방에서, 창문에서 밖으로 떠(浮)나와 결 방의 창문으로 쭈욱 들어왔는 사실이다. 실지 목격자는 린지경과 아데아백작과 그의 종제였는데, 각각 기록을 남겨 놓았다. 다음에 린지경의 기록을 소개한다.

〈호음 자신의 부양〉 우리 세 사람이 호음씨의 실험을 했다. 이윽고 호음씨는 황홀상태에 빠져, 그대로 실험실의 창문에서 밖으로 나와 우리가 있던 방의 창문으로 실내에 들어갔다. 창문과 창문과의 간격은 약 7피트 6인치이고, 창문에는 12인치 넓이의 차양이 있을 뿐으로 달리 발을 붙일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 우리는 실험실의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곧 돌아보았을 때엔 호음씨는 우리들의 창문 밖에 떠 올라 있었다. 마침 달빛이 바로 방 안을 비추고, 나는 달빛을 등에 지고 벽에 비치는 창문턱의 그림자 윗쪽 약 8인치가량 되는 곳에 호음의 발을 목격했다. 그는 수초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윽고 창문을 열고 발부터 먼저 실내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좀 있다가 아데아백작이 옆 방에 들어와 호음이 간간 그 창문을 살펴보았는데, 그 창문은 약 18인치 정도 밖에 열려있지 않았다. 그래 아데아백작은 이상한 눈초리를 하고, 어쩌서 이렇게 좁은 곳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호음은 삼금 황홀상태에 빠진 채, 잘 보고 있어요 하고, 등을 창문쪽에 돌리고, 머리부터 먼저 强直狀態로 창문 틈으로 후딱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이윽고 다리부터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 기사만 읽어서는 잘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여러번 되풀이 되었을 뿐더러, 현존하는 靈媒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믿음이 가지리라고 생각한다. 호음의 浮揚現象의 연구자이며, 확신자인 크룩크스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호음의 浮揚現象에 관한 증거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일체의 인간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史상의 어떠한 사실도 이것보다 유력한 증명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호음씨의 浮揚現象을 확립하는 증거물은 참으로 압도적이다.

〈註〉 호음에 뒤이어 많은 靈媒와 자칭 靈媒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신을 이용하여 詐術을 행한 엉터리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우 진지한 能力者들도 적잖이 나타났다. 1860년대 초에 유명했던 사람은 에바렛트 부인인데, 이 부인에게는 敵音現象과 直接談話現象이 일어났다. 그에 못지 않게 유명한 사람은 니크올양(뒤에 갓피이부인)인데, 그에 대해서는 랄셀·우아레스박사가 면밀히 연구를 했다. 그 현상은 여러가지였는데 靈媒자신이 桌上에 올려져이기도 하고 이슬에 젖은 꽃이랑 羊齒랑이 방 안에 끌려 들어오기도 했다. 물론 현대와 같이 엄밀한 시험은 행해지지 않았는 모양이지만, 직업 靈媒도 아니었으니 시기에

찬 눈으로 노려보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기타 걸출한 靈媒는 황홀상태에 빠져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심령小說을 쓰기도 한 디빗드·듀가이드, 케에티·킹이라고 일컫는 實體 있는 유명을 출현시키므로 크록크즈경을 놀라게 한 플로렌스 쿡크 양, 유령 출현과 石盤筆記(人力을 쓰지 않고 石盤에 글자를 쓰는 심령현상)로 유명한 윌리엄·에그린튼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도 많이 있다. 모두들 훌륭한 학자에 의해 실험되고, 정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간과할 수 없는 심령현상이 당시 영국내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4. 學者靈媒 모오제스

○ 모오제스가 나타나서 심령문제는 한결 밝음을 받게 되었다. 모오제스는 19세기 가장 낡은 가장 경탄할 만한 인물의 하나.

영국 초기의 심령현상은 그 종류의 많음과, 그 위력의 강렬함에 있어서 참으로 팔목할만 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혹의 눈으로 심령현상을 대하려고 하는 현대인을 마음 속으로부터 수증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턴·모오제스(W. Stainton Moses, 1839~1892)가 나타나 일체의 疑雲을 소탕하고 심령문제를 밝음 속에 들어시켜 했다. 모오제스는 학자이고 文士이며, 또 훌륭한 목사였다. 그 靈覺을 배고 생각하더라도 먼 수평선상의 인물이었으므로, 다른 靈媒에 대해 하듯이, 함부로 詐術者나 미신가니 할 수 없었다. 실로 영국의 심령문제는 모오제스를 일전환기로 하여 대비약을 한 것이다. 심령연구협회의 유력한 창립자의 하나인 마이야아즈 같은 사람은 모오제스를 가르켜 19세기가 낡은 가장 경탄할만한 인물이라고 말하였다.

모오제스는 린컨셔아의 중학교장의 아들로 태어나, 19살때에 에크제타아 대학에 들어가 23살때에 동대학을 졸업했다. 그 다음 해에 아이·오브·단의 모오그포오 드교회에 들어가 목사의 지위에 올라 5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 사이에 맹렬한 천연두가 교구내에 발생했으므로 그는 침식을 잃고 이 병자를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구조에 진력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병인의 머리맡에서 주야로 간호했을 뿐더러, 스스로 무덤을 파기도 하고 관을 메기도 했다고 한다.

1868년에 그는 다글라스의 聖요르즈교회의 牧師補로 전근되고, 이어서 들셋트 샤아로 옮겼다. 그는 어디에 가나 목사로서 절호의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咽喉를 다쳐서 목사생활을 그만두고 1871년부터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레지의 교원이 되고 揮觚者로서는 “라이트”誌의 최초의 주필이 되었으며, 여러 잡지에 寄稿하여 상당한 文名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불후의 명성을 떨치게 한 것은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여 근대적 심령과학의 기초를 확립하는데에 다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모오제스가 처음으로 영혼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1807년부터인데, 데일·오웬의 저서 “疑問의 境”을 읽은 것에서 비롯했다. 그로부터 3년간 각 방면의 직

업영매, 또는 靈能者를 역방하여 실험을 거듭했다. 그러나 타고난 회의적 연구적인 성분 때문에 취 심령현상의 진실성을 容認하지 못하고 범법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33살때부터 자기 스스로 靈媒的能力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의 靈媒로서의 활동기간은 그때부터 약8년간에 이르렀다. 모오제스에게 일어난 심령현상은 대체로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여러가지의 物理的心靈現象
- 2) 自動書記現象과 幽明交通現象

그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물리적현상의 종류는 여러가지로서 그 자신의 肉體浮揚과 卓子浮揚, 敲音, 物品引寄, 自動奏樂, 여러가지 光球出現, 諸種의 芳香, 또는 일종의 靈臭發生, 直接談話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여기 그 전부를 소개하기는 번거로우므로 그 중의 대표적인 것만을 선출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모오제스의 실험자는 스피아박사부처, 변호사 피어시벌 등, 모두가 地位學殖의 신자들인데, 그 기록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 대부분은 영국 심령연구협회의 보고서중에 수록되어 있다. 중에는 모오제스자신의 기록도 있다. 그는 어느 경우에만 入神狀態에 빠지고, 대개의 경우에는 보통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呼鈴이 실험실내에 끌어들여진 현상에 대해서는 모오제스 자신의 기사가 있으므로 그것을 다음에 소개한다. 그때 실험실은 암흑이었지만, 바깥 낱하와 呼鈴이 있는 이웃 방의 식당은 아주 밝았다.

〈呼鈴의 이동〉 식당에 소형의 呼鈴이 있었다. 이윽고 그것이 울기 시작하여 차츰차츰 실험실 입구의 문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그 소리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짝이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呼鈴 소리는 분명히 실험실 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높이 소리를 내면서 방 안을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한참 뒤에 방 안을 한 바퀴 돌고나자 밑으로 내려와 탁자 아래로 빠져서 내 사타구니 쪽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내 바로 코 앞에서 울고, 뒤이어 내 머리 위를 한 바퀴 돌고서 다시 坐客의 둘째를 빙 돌아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 근처에서 울어댔다. 끝으로 呼鈴은 卓上에 안치되었다. (영국 심령 연구협회 보고 제 9권 267페이지)

이 기사만을 읽은 사람은 의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현상이 靈媒 케이트·폭크스에게도 일어나고, 그 실험이 크룩스에 의해 정밀히 보고되어 있다. 그 때는 저체의 서적 위에 얹혀 있던 呼鈴이 밀폐된 실험실내에 들어온 것이다. 현시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어떤 靈媒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오제스의 실험이 현대의 과학적정확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한다.

모오제스의 卓子浮揚現象에 대한 록크스의 보고기사를 소개한다.

〈卓子の 대전동〉 1973년 6월 2일(화요일)에 친구 모오제스는 텃셀가의 우리집을 내방했다. 그 무렵 그는 이미 우수한 靈能者로서 우인간에 인정을 받고 있었다. 6시경에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다. 물론 아직 밝았다. 거기서 나는 편지를 개봉했

고, 그는 타임지를 읽고 있었다. 내 앞의 식탁은 마호가니재로 만든, 폭이 6피트, 길이가 9피트 가량 되는 꽤 무거운 것이다. 장정 두 사람이 움직이려 해도 끄떡도 않는 것이었다. 마침 실내에는 나와 모오제스 외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卓上에서 높은 敲音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때 모오제스는 두 손으로 신문지를 쥐고, 한쪽 팔꿈치를 탁자에 기대고, 다른 팔꿈치를 의자의 등에 걸치고서 탁자와는 비뚤름히 앉아 있었기에 두 다리는 물론 옆으로 놓여 있었다. 이윽고 이 큰 탁자가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이어서 전후 좌우로 맹렬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큰 기동과 같은 여덟개의 다리가 빠져버리는 듯했다. 좀 있으니 탁자 전체가 약 3인치 정도 앞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탁자 밑을 들여다 보았지만 그의 다리는 조금도 그에 대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동요는 여전히 계속되고 또 강렬한 타박음이 나기 시작했다. 이 뜻밖의 현상에 나도 놀랐지만 모오제스자신도 깜짝놀랐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런 일은 전엔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좋은 기회로써 일체의 의혹을 일소해 버리려고 둘이 다 탁자에서 약 2피이드 떨어져서 바로 섰다. 우리의 손은 탁상 약 8인치의 거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분쯤 지났을 때 탁자는 다시 맹렬히 진동하고, 또 그가 서 있는 쪽에서 3인치쯤 높아지고 내가 서 있는 쪽이 그와 같이 3인치 정도 높아졌다. (영국 심령 연구협회 보고 제 9 권 259~60페이지)

卓子浮揚現象은 서양에서는 예사로 있는 일이다. 중에서도 고리아야양의 浮揚現象 따위는 훌륭한 과학자에 의해 철저한 실험을 받았기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모오제스에게 일어난 물리적현상에 대해서는 달리 재미나는 재료가 많으나 이 정도로써 끊기로 하고, 이번엔 그 자동서기와 幽明交通現象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모오제스에게 있어서 간요한 것은 외려 후자이며, 물리적현상은 모오제스 자신의 회의적인 태도를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靈界에서 특히 혜택입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모오제스는 自動書記靈媒로서 아마 불후의 명예를 잃지 않으리라. 그의 自動書記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Spirit teaching이라고 일컫는 한 권의 책에 담겨져 있다. 通信한 靈魂—소위 守護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중에서도 성서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저명한 인물도 섞여 있다. 그러나 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페테터라고 일컫는 영혼으로, 모오제스자신은 그 實名을 들었지만, 이것은 실증할 만한 수단방법이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임페테터가 어떤 사람인지는 의문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목적은 모오제스와의 문답 속에 매우 뚜렷히 나타나 있다. 요컨대 임페테터의 목적은 幽明交通의 진상을 모오제스에게 전하고, 그의 편협하고 특단적인 주의주장에 근본적 대수정을 가하려고 하는 데에 있었다.

임페레터 이외에 그에게 빙의한 것은 렉터, 닥터, 브룬데스라고 하는 假稱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작곡가로서는 멘델조은, 베에토벤, 그리고 프랑크린, 로버트·데엘, 오우엔 등 수없이 많은 것이다.

모오제스의 自動書記의 산물은 전부 24권의 도트에 수록되어 있는데, 개중의 1권은 분실되고 나머지 23권은 소중히 영국 심령 연구협회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연구자용으로서 파르이 복사본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spiris Teaching은 그 도오트 중의 한 부분을 발췌 편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오제스의 自動書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에선 幽明交通이라는 점으로 보아 모오제스가 얼마만한 유력한 靈媒였던가를 예시하기로 한다.

그것은 1874년 8월, 스피아락사가 있는 데서 개최된 交靈會에서의 일이다. 아브라함·프로렌틴이라는 한 영혼이 나타나서, 모오제스의 입을 빌려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원래 군인으로서 1812년의 전쟁(영미전쟁)에 종군했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8월 5일, 북미합중국 브록클린에서 쫓아갔다는 것이었다. 83살 1개월 17일이었다고 말했다. 이게 과연 사실이나 아니냐는 당시 물론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조회하여 알아보니 아브라함·프로렌틴이라고 하는 자가 동년 8월 5일에 브록클린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여러가지 점도 모두 사실과 부합되었는데, 다만 연령이 83살 1개월 27일이라는 게 호적상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그는 7월 8일에 만 83살이 되기 때문이었다. (영국 심령 연구협회 보고 제 9권 82~5페이지)

모오제스의 인격이 브롱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은 그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의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와 18년 동안 친교가 있는 마이야아즈는 “모오제스의 성격이 건실하고 정직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했으며, 그의 몸을 돌보고 있던 의사 존슨박사는 “모오제스의 두뇌는 항상 진전하고, 한번도 환각이라든지 의식의 몽롱상태에 빠진 일이 없고, 그가 말한 것은 죄다 사실이며 진실이었다”고 회고했다.

5. 英國 心靈研究協會의 창립

○ 1882년 “英國心靈研究協會”가 조직되어 新記元을 劃함. 일류의 名士가 속속 심령문제에 손을 댔다.

심령문제가 유치한 상태에서 탈피한 것은 1882년 英國에서 心靈研究協會 (The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가 탄생한 때였다. “영국 심령 연구협회”가 조직되자, 그 최초의 회장이 된 사람은 헨리·시뮤익크 교수였고,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마이야아즈와 에드몬드·가아베에였다. 그 목적은 물론 어떠한 심령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순과학적견지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진리의 확립을 기하는데 있는 것이지, 추후도 영혼설의 신자만을 환영한다는 따위의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 협회는 오늘날에도 엄존하며, 그 본부는 런던시 타비스톡크, 스퀘어 31번지에 설치되어 있다. 그와 같은 성질의 협회는 미국에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협회에서 발행된 보고는 수십권이 되며, 회원 및 심사위원의 특수 연구논문, 심령학상의 간행물에 대한 비평,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취급하고 있는 제목은 讀心術, 최면술, 여러가지 환영, 히스테리, 生靈, 유행가옥, 靈言, 自動書記 등 다방면에 걸친 번밀주도한 것이다. 단 物理的인 심령현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상기 보고 중 1901년까지의 분은 마이야아즈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분류 정리되어 “인간의 개성과 사후의 생존”(Human personality and its Survival of Bodily Death)이라고 제목하여 출판되어 있으므로, 오늘날의 연구자는 이에 대해 연구하면 우선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마이야아즈는 同協會 창립자 중의 中堅이며, 同會의 명예비서 노릇도 하고, 또 회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근대의 심령 연구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인물인 것이다. 매우 온건하고 주의깊은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급진론자의 눈으로 보면 다소 호리명탕해 보였지만, 유물론으로 굳어진 일반 사회와 극단한 영혼론자와의 중간에 서서 유유히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긴 그의 태도는 실로 敬重할 만하였다. 同協會를 위해 진력한 학자로서는 앞서 말한 사람들 외에 바아렛트교수, 지이엘스교수, 룯지교수 등, 일류의 명사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근년에 와서는 심령 연구가 한 나라, 한 협회의 專有物이 아니고, 프랑스, 독일, 오오스트리아, 늘웨이,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자자 유향한 학자 靈媒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 단체가 조직되어 관목할 만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다. 영국내에서만 하더라도 락켄지이씨를 교장으로 하는 “心靈大學”(The British College of Psychie Science)이라든지, 워레스박사를 회장으로 하는 “心靈寫眞研究會”(Society for the Study of Supernormal pictures)라든지 하는 연구기관이 창립되어 연구협회를 압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령 연구의 무대는 전세계로 확대되어, 참고서만 하더라도 수천권에 이르고 있다.

三. 物質化現象의 檢討

1. 死後世界的 有無

○ 의부적 경험의 蓄積인 심령연구의 필요한 과정을 밝지 않고서 최후의 대목표에 도달할 희망은 없다. 자기의 체험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따른다.

심령 연구가 인생의 최종최요의 大題目인 死後의 世界 有無, 다시 말하면 육체

를 떠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彼岸에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大問題에 저촉하기 때문에 적어도 취생몽사의 상태에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심령 연구가 도달한 최근 수십 년간의 결과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외부적인 경험의 集積인 심령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결국은 각인 개개의 귀중한 내면적인 체험에 의해서만이 도달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내신념의 수립—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과 깨달음과의 사이에는 格段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심령 연구에 필요한 과정을 밟지 않고는 최후의 대목표에 도달할 희망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안가한 慢心, 偏狹, 迷信 등은 대개 그러한 준비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한 사람의 체험에는 한도가 있다. 자기의 체험만이 진실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에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뒤따른다.

최근의 심령현상은 상당히 다방면으로 나뉘어지지만, 우선 “物質化現象”의 검토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중대시하는 심령상의 대문제, “死後에도 영혼이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문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 物質化現象은 그 자체에 있어서 心靈現象이며 그 내용은 의외로 복잡하므로, 단순히 死後靈魂의 존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수단, 일 보조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글썽한 것 같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냉정히 이 현상에 들어있는 일체의 의의를 캐고, 그 다음에 유감 없는 최후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物質化現象이란 무엇이나?

○ 한 말로 유령이라고 하지만 그 濃度는 각각각색이다. 유령의 출현은 조금도 대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니다.

物質化現象이란 한 말로 말하면 이것은 소위 유령현상이다. 과학적인 討究가 시작되어서, 그 경과로서 여기에 “物質化”라는 술어가 나타났다. 영혼 그 자체는 보통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물질화하면 그 모양이 눈에 비칠 뿐더러, 담화의 교환도 되고, 악수도 되며, 키스도 되는 것이다. 요컨대 방법이 적절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死者의 영혼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겁낼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한낱 物質化現象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幽靈이 영혼의 物質化現象이라고 하며는 필연적으로 그 濃度에 따라 유령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생기게 된다. 이것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1) (幽體)—매우 희박한 물질에 싸인 상태로서, 보통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靈視能力의 所有者에겐 잘 보인다. 또 사진乾板에도 때때로 감응한다. 이것은 죽음 직후에 있어서의 영혼의 常態로서, 대체로 생전의 용모, 태도, 복장 등을 지니고 있다. 그 질이 대단히 희박미묘하기 때문에, 아직 과학자의 손에 잡히어 시릴

관 속에 들어가지는 안 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存在物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氣化體)—幽體가 한 걸음 나아가서 實質化한 상태인데, 이 정도의 유령이 되면 차츰 보통의 육안에 뜨이게 된다. 유령의 대부분은 이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서 얼핏 눈에 뜨이고는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이 거게이다. 幽體와 氣化體와의 차이는 겨우 일보 정도의 차로써, 병의 김이 나오는 주둥이에 가까운 곳은 투명하고, 좀 먼 곳은 흰 구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實體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하여, 자칫하면 한낱 幻覺으로 취급당하기 쉬우나, 실제 유령현상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런 취급을 당해도 어쩔 수 없으리라.

3) (半物質化)—이 정도가 되면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幽體의 진부가 물질화해 버리지 못하고, 손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가 物質化한 데 불과한 현상이다. 흔히 말하는 발 없는 유령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기 속할 것이다. 구미에 있어서의 심령현상 중에 이 정도의 物質化는 적지 않다.

4) (全物質化)—이렇게 되면 벌써 유령은 유령같지 않고 너무 사바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 즉 이런 유령은 임시 인간으로 화하여 생전 그대로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근대 심령 연구는 확실히 이것을 추구하는데 성공했다. 동양의 소위 神仙, 백이년진, 천년 이전의 사람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산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현상도 아마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神仙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구는 아직 초입에 있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유령이라 해도, 그 범위는 의외로 넓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방법도 당연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앞서 말한 4가지 중의 마지막 2가지에 대해 說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에서 탐구하기로 하겠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역시 인간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全物質化幽靈現象이 제일 노골명료하고, 인간의 회의적 태도에 일격을 가하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여겨진다.

말한 것도 없이 다른 일체의 심령현상과 마찬가지로, 이 物質化現象에 있어서도 적당한 靈媒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靈媒가 주로 物質化現象에 필요한 재료—엑트프라즘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성경이라든지, 일본의 古事記라든지 하는 기록 속에 기인한 여러 심령기사가 있는 것은, 즉 그 당시 우수한 靈媒(豫言者, 使徒, 神主 등)가 있었기 때문이며, 靈媒 없이는 심령현상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다.

심령현상을 가지고 하나의 불가사의한 초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것은 대자연의 대법칙에 지나지 않으며, 그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에 불과하고, 다만 심령세계의 법칙이 아직 겨우 일부분밖에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학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곧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천만 부당한 것이다.

그런 순서로써 근대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靈媒에 대해 物質現象의 대표적인 사실을 깨고, 나아가 그 사실의 성질 및 그 의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23페이지로부터〉

※ 새마을 식생활 카드 (월, 수, 금…분식일)

〈부록 6〉

월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영양관리)
	일(요일)	주식	부식	식비	주식	부식	식비	주식	부식	

〈130페이지로부터〉

五. 제 언

모든 지도자가 체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을 체육 지도까지 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지도가 절실히 요망된다.

당국에서도 마을 체육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체육 정책을 지양하고 물심 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반 시책이 강구되어 모든 지역 사회인의 체위가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39페이지로부터〉

하는 것이다. 인문교육은 직업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특수교육이 아닌 개인생활의 풍요함을 위한 광범하고도 학문적인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근본적인 면의 깊은 통찰,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건전한 가치관, 세계적 입장에서 한국사람이라는 프라이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문교육이 성인교육의 중핵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 시 ▷



담 배 불

— 죽은 兵士의 입술에 물린 —

..... ◎ ◎ ◎

정 추 식

반딧불의 날개위에 번득이던
뜨거운 선지피의 記憶도
그十里를 뺨던 밤별레의 울음소리도
그렇게 군침을 삼키던
입술에 와 머문다.

이제는 달빛의 지느라미로도 흔들리지는 못할
살아서 禁止된
吸煙언저리,
미련인듯 가슴은 멎은체로
더욱 긴 呼吸은
逆流하는 血管
그 깊은 강물 속에
死者들이 남기고 간 꽃물도 텅기지만

외줄기 숨결이 고퍼가는
迷路의 발자욱따라
執脈인듯 煙幕을 치는
이름마다 불탄 자리.

어느 不忘碑의 가슴을 헤집던
幽明의 갈뉘길은
刹那를 피어물던
永遠한 꽃술인가.



가지에 걸린 노래 (3)

.....◎ ◎ ◎.....

김 정 환

—

「일태」가 휴가로 다녀간 지 두 달이나 되었을까? 편지라도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어느 날 오후 늦게 느닷없이 「일태」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주름이 시원하게 잡힌 군복을 예쁘게 입은 여군장교 한 분이 「일태」곁에 서 있었다. 중위(中尉)의 계급장이 유난히 눈을 끄는 것이다.

물어볼 것도 없이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지난번 녀석이 자랑삼아 지껄여놓던 바로 그 화제의 간호장교임에 틀림없으리라.

「자식, 수단이 좋은데. 남들은 일년에 한번 얻기두 힘든다는 휴가를 찬밥 처먹듯 쉽게 얻어 걸리는 걸 보니 말이야.」

「말마라! 애새끼 영 똥.....」

그러다 얼른 말을 끊고 옆에 서 있는 간호장교의 눈치를 한번 슬쩍 살피고 나선 「휴가가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가듯 쉬운 줄 알아? 천만에 말씀이지.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순전히 옆에 계시는 이 장교님의 덕분인거야」

「일태」의 말을 미뤄보아 두 사람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면 더욱 실감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간호장교의 태도였다.

「일태」옆에서 「일태」의 말을 듣고 있는 간호장교는 이미 장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수줍은 여자가 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우선 인사나 드러.

왜 내가 전번에 소개한 바 있었지? 나를 무척 이해하고 위해준다는 간호장교님이시다. 이름은 이 정애(李貞愛)씨이고 계급은 보시다시피 육군 중위.

한가지 특별히 부연(附言)해둘 것은, 너, 이 장교님을 보통 간호장교쯤으로 쉽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 알아?」

그런 다음 「일태」는 이증위를 돌아보며 싱긋 한번 웃음을 흘리고 나선,
「이 친굽니다. 늘 얘기하던 친구가. 그리고 <경제학>과 <가짜> <브란드> 또 <소령님> 등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일태」의 소개를 받자 「정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일태한테서 진작 애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친 다음 나는 이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방안에 자리를 잡고 앉자 「일태」는 우리 패거리의 소식부터 물어왔다.

「참, 「가짜」와 「경제학」 그리고 「브란드」랑 「소령님」들 다 잘 있니?」

「응, 건데 너가 휴가 다녀간 뒤 여긴 사건이 많아서.

우선 「마론·브란드」와 「소령님」이 영장을 받고 입대해버렸고, 「경제학」은 소원대로 은행에 취직이됐지. 그래서 요즘은 별수없이 「경제학」과 외톨로 남은 「가짜」—이렇게 셋이서 어울려 다닐 수밖에. 그렇잖아도 「브란드」 그자식은 입대하면서 네 얘기 많이하더라.

그새끼 다음 휴가오면 곰탕이나 실컷 사줄려했더니 다 틀렸다면저도 저도 너 처럼 요해히 배탈이나 나서 좋은 잔호장교나 하나 사길 수 있을런지모르겠다면저 좌우지간 때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더니 일태 그새끼 전전지명이 있는 놈이라고 잔뜩 부러워하면서 떠났지. 반면에 「소령님」은 그저 딱딱하다고 연방 긴 한숨만 흘리면서 지레 우거지상이 돼서 짹짹 깔면서 떠다는 꼴이란 정말 못 봐주겠더라. 그새끼 군벌 가는게 도살장이라도 끌려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남 안가는 군벌 혼자서 가는 건지, 영 비위가 뒤틀리기에 참다 못해 내가 한 마디 쏘아줬지. 이새끼야, 뒷골목에서만 소령 행세할게 아니라 이제 분마당에 가서 소령 행세 좀 해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자식, 저두 썩 웃던데. 아무튼 그 두놈이 떠날 때 송별식은 「경제학」이 응단을 나서 한 톱 단단히 썼지」

「경제학이? 그 노랭이가 가관인데」

「말마! 그 새끼 지금 한창 열이 올라 정신 없는 판국이다.

은행에 들어가자 마자 열자리의 아가씨한테 반해도 단단히 반한 모양이지. 자식은 특하면 나한테 왓선 연애편지를 좀 써 달라구 졸라대지 뭐니.

그럴 때마다 내가 투박을 주면 자식은 한다는 소리가, 이럴 때 우리 「일태」가 있으면 안성맞춤인데 하고 널 찾아대더라. 그래 내가, 「일태」는 대서방(代書房)아들인 줄 아나 하고 쓰아부칠라치면 약이 오른 자식은 뭐래는 줄 알아요?

내 이 다음 자식새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문과(國文科)엘 보낼테다, 국문과엘」
「하하하. 정애씨 하여튼 우리 친구놈들 재밌는 구석이 있죠?」

「일태」는 한바탕 웃어제끼면서 「정애」에게 동의를 구하고나더니 이번엔 「가짜」의 근황이 궁금한 모양이다.

「가짜 그새끼?」

「제버릇 남 주겠니? 여진하지. 이번 대통령상은 보나마나 굳혀놓은 제것이라던

서 거드럼을 피고 다니지」

「야, 그놈의 대통령상 이젠 귀에 딱지 앉겠다, 딱지 앉겠어.

하여간 「브란드」와 「소령」 그 새끼들 지금쯤은 입이 아프도록 군가깨나 부르고 있겠구먼. 「소령」은 또 그렇다 치고라도 「브란드」 그 자식은 이제 중대가리처럼 머털 뻑뻑 밀어부치곤 나선 누구보고 「브란드」 닦았지 않느냐고 자랑할꼬?」

「말마라. 안그래도 머리 깎을 생각하니 눈물부터 난다고 투덜대더니, 자식은 입 대하기 전에 아예 일류 이발관에서 머털 싹 밀고 갔단다. 자기 머리를 아무렇게나 함부러 학대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 경제학은 제말대로 부선망(父先亡) 이대독자(一代獨子)라서 기필할 구멍은 찾았다고 하지만, 「가짜」 그새끼 대통령상만 외고 다니면 군대 안 가도 좋테?」

「가짜 환갑이나 지나고 가겠대더라」

「옛장수 맘대로. 그새끼 똥고집 피다가 후회할걸」

「하여간 가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나 그새끼 때문에 창피 한번 툭툭히 당했대구」

나는 얼마전 다방에서 당한 어처구니 없는 수모(受侮)를 문득 떠올렸다.

「하여간 가짜 그새끼 제집복 없긴 타고난 모양이더라.

내 애길 찬찬히 들여보라구.

한 두어 주일됐을까, 그 날도 별 불일없이 가짜랑 다방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스튜어데스」 하나가 나타나질 않겠어. 대학후배긴 하지만 어릴때 한 동리서 자란 탓에 친하다면 친한 축이거든. 그래 같은 테블에 앉아 이런 저런 애길 하던 끝에 「가짜」 소개했지. 미래의 위대한 화가가 될 분이며 그 증거로 이번 국전이 열리게 되면 당장 이 친구의 진가가 드러날거라고 아주 그럴듯 하게 「가짜」를 치올려줬거든. 그랬더니 제집애도 나더러 고백하길, 멋있게 생긴 분이라는거야. 일이 제대로 왜가는구나 싶었지.

생각해보라고. 「스튜어데스」라던 저대로는 눈이 높은대로 높은 제집애들 아닌가 그런 제집애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까만 베레모에 창백한 얼굴이 조금도 친박하지 않고 예술가의 품위가 흠뻑 베인 멋있는 분이라고 되려 감싸고 나오니 일은 다 된 거로 알 수밖에. 그 뿐인 줄 알아? 잔뜩 기분이 좋은 제집애엔 그날 점심을 자기가 사겠다고 제의해오기까지 해서 난 은근히 우쭐해지더군.

「가짜」에겐 「가짜」에게대로 생색을 내게됐고 거기다 제집애에게 점심까지 얻어 걸리게 됐으니까 말이야.

「가짜」는 이거 웬턱이나 싶었던지 연방 얼굴이 싱름병글해서 애초 내가 사기로 하고 들어온 커피값을 자기가 내겠대면서 싱름 일어서 스탠드로 달려가잖겠어.

이 때였다구. 바로 내 옆에 서 있던 「스튜어데스」의 입에서 <어머나!>하는 가벼운 탄식—. 이런 걸 탄식이라하나? 하여간 실망에 폭 짓는 그런 뉘엿뉘한 신음소리

가 빼어져 나왔다구.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계집애가 한다는 소리가 청천에 벼락같은 소리 벨아내놓잖아.

「저 사람 키가 너무 작아요. 같이 다니기에도 창피하겠어요」하곤 뒤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행하니 달아나버리고 말잖겠니.

나 윈 기가 차서. 내 얼굴이 다 화끈하더라. 그런데도 「가짜」스텐드에서 키피값을 치르면서 두 모처럼 얻은 파랑새를 놓칠세라 연방 이쪽을 훑쳐보며 웃음을 질질 흘리고 있는거라. 그 꼴이 어쩌나 역겹고 한편으론 가엾게 여겨지던지 그만 스텐드 쪽으로 달려가 「가짜」를 잡아채신 다방문을 빠져나와 버리고 말았지. 그때까지도 영문을 모르는 「가짜」가 연방 다급하게 「왜이래? 어디 갔어?」하는 걸, 한마디로 입을 털어막아 버리고 말았지. 임마, 송아지 강 건너 갔다. 잊어버리는거다. 하고 그런 다음 「가짜」를 끌고 〈평양집〉으로 가선 취하도록 마셔버렸지」

내 이야기를 듣고난 「일테」는 몹시 흥분했는지 얼굴까지 붉히면서

「「가짜」도 가짜지만, 쌍년, 키 큰 게 소원이면 양놈이나 붙어먹을 일이지. 하여간 계집년이 건방져서 그래. 왜 우리 알통같은 가짜가 어쩌서? 누가 그런 화양년한테 주거나한테? 그래 가짜 그새긴 뭘 치먹을 걸 못얻어 먹어서 키는 작아 말생이고」

그런 다음 나를 쳐다보며,

「이봐, 이담 그 스튜어대슨가 하는 계집애 만나거든 내한테 꼭 인사 한번 시켜다오. 내 대뜸 계집년 먼전에서 이렇게 말할테다.

〈보시다시피 난 이렇게 키가 큼니다〉하고 말아야」

「일테」의 독설에 정애와 난 소리내어 웃었다.

우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애」는 시종 그림같이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우리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따금씩 수줍게 웃기만할 뿐이었다.

가냘픈 몸매에 아직은 다감(多感)한 소녀의 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정애에게서 여군(女軍) 일반에 대한 종래의 선입관념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얼굴에 살짝 드러나 비는 고독한 그림자가 한층 인상적이기도 했다.

뭔가 쉽게 풀지 못할 깊은 슬픔이 정애의 가슴 어느 한 구석에 늘쳐럼 고여있는 듯 하기도 보였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낼 것같지도 않지만 또 쉽게 용서할 것같은 여자도 아닌성 싶기만 했다.

한마디로 그녀도 그 얼굴에서나 몸매에서 스스로 많은 문젯점 같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여자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그같은 것이 그녀의 매력이라고 할까?

나는 무엇이든 정애에 관해서 알고싶었다.

「이 중위님도 이야기 좀 하십시오. 군대생활의 재미라든가, 이를테면 군데 들어

오게 된 동기같은 것이라도」

내 말에 「정애」 부끄럽고 당황한 표정으로 「일태」를 쳐다보며 가늘게 웃고만 있을 뿐이다. 응원을 청하는 눈치였다.

일태는 「정애」의 눈속에서 어떤 구제를 바라는 것을 느꼈든지 「정애」 대신 입을 열었다.

「여자가 군벌 들어가면 혼허들 지독한 실현이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결로 착각들 하고 있지만 말이지, 여기 있는 이충위님은 사정이 다르단말이야.

폐일언해서 정애씨가 군복을 입게된 동기는 순전히 적십자정신에서란 걸 알아야 해.

여고를 나올 때만 해도 빼어난 수재는 못 됐다 하더라도 재원으로 손꼽혔겠다. 결혼밑천쯤은 걱정 안 해도 좋을 만한 중산가정의 무남독녀란 사실이 좋은 증거 든」

「정애」는 「일태」의 이런 폭로가 자못 밋지 않다는 눈치다.

나는 그런 「정애」의 표정을 읽으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어느새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었던가에 내심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태」는 새로운 화제를 꺼집어내므로써 나의 이같은 감탄의 순간을 단축시키고 만것이다.

「그러나, 정애씨 그만 두기로했어. 제대해버리기로 결심한거야」

「그래?」

나는 저오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일태 네가 제대할 때까지 정애씨가 곁에 있으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텐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지금 포화상태에까지 와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비상사태지. 내 애길 찬찬이 들여보라구.

정애씨가 근무하고 있는 육군병원에 치사하기 짝이 없는 넷과과장이 있는데, 이치가 영 정애씨에게 몸살이 났거든. 오소령(吳少領)이라구 영 밥맛 없게 생긴 위인이지.

덜정하게 처자식까지 둔 주제에 정애씨에게 상처(喪妻)를 했니, 이혼이 어찌나 하고 어정쩡한 수작을 걸어오잖아」

「아, 그러니까, 정애씨와 넷과과장 사이에 자네가 불안을 느낀다 그 말씀이군」

「뭣이 어째? 불안을 느껴?

천만에 말씀이지. 소령과 이등병의 바독관은 이미 사귀특세로 이등병의 승리가 결정적이라구.

그러나 과장이란 자가 제혼자 후끈 달아서 설치는 판에 나까지 화를 입게 했으니 사건인 즉 홀랑하게 폐막질 않았단 그말씀이야.

나 원 기가 막혀서.

아, 한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잖겠어]

하고 「일태」는 그때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갓다붙인 이름이 좋아 <사병의 날>이지 토요일이 사병(士兵)의 날이든, 죽은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든 따질 것 없는 거고 사병들은 그저 토요일이면 외출하는 맛에 무척 그날을 기대리고 받기 마련인 것이다. 더구나 「일태」의 경우 별로 찾아갈 만한 곳도 없는 처지이기도 했지만 토요일이면 병원으로 이중위를 찾는 게 큰 즐거움이었어 보람이었기에 어느 누구 보다도 토요일을 목이 빠지게 기대리는게 어느새 습성이 돼있었다.

그날도 「일태」는 이중위를 만났고 둘이는 병원문앞에 잠시 머물러 서서 두 사람만이 은밀히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물색중이었는데, 재수없게도 바로 문제의 빛과 과장과 딱 마주치고만 것이다. 토요일인지라 일찍 돌아가는 길이었던것 같았다.

이중위는 살짝 돌아서며 「일태」만 알아보게 입을 삐죽거렸고 「일태」는 또 「일태 나름으로 이중위앞인지라 경례를 하기도 뭣하고 해서 어떻게 어물쩍 넘기려했던게 정통으로 걸러들고 만 것이다.

빛과과장 오소령은 대뜸 「야! 이리와!」하고 「일태」를 불러세웠다. 그런 오소령의 얼굴은 험악해있었고 잔뜩 꼴을 낸 오소령은 가늘게 몸까지 떨리고 있는듯했다.

「아차!」싶었지만 「일태」로서는 이미 어찌지 못할 파오를 범하고만 뒤였다.

당황한 「일태」는 급히 몸을 돌려 과장님앞으로 뛰어가 차려자세를 취하면서 처 경례를 했다.

그러나 이미 걸고 드는 투가 그정도에서 누그러질리가 만무했다.

「넌 뭐야! 너도 군인이야! 상관을 보고도 경례할 줄도 몰라! 그리고 복장은 또 이게 뭐란말야!」

무섭게 노려보며 다구치는 것이었다.

성이 난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듯이 부어있었다.

그제사 「일태」가 조짐스레 눈으로 몸을 훑어보니 앞가슴 둘째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론 주의하겠습니다」

「일태」는 고결 팍 숙인채 빌었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과장님은 기어히 「일태」에게 소속과 군번, 성명을 대라고 육박지를 뿐이었다.

일인즉 낭패였다. 그날이 바로 <군풍기단속 강조주간(軍風紀團東強調週間)>을 정한 바로 그 다음날이고 보니 어이없게 당한 꼴이었다.

그날 외출증을 나눠주던 자리에서 중대장(中隊長)이 단단히 일러주던 훈시가 새삼 가슴을 저늘하게 파고 들었다.

「에, 또, 이번 강조주간은 다른 배원 달라 위반자는 무조건 중노동에 처할뿐더

러, 특히 이번엔 각 중대별로 통계까지 낸다고 하니 각자는 특별히 유의해서 우리 중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위반자가 없도록 명심할 것]

「일태」로선 별 도리가 없었다. 다구 빌고 통 사정을 해됐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 주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출사정을 해봤지만 과장님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아니 한 술 더 들고 나오는 판이었다.

「너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너의 상관들이 욕을 얻어 먹는단 말야!

잔소리 말구 빨리 소속과 이름을 대!

이쯤되니 「일태」로서도 더 이상 어찌해볼 엄두도 없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은근히 핏대가 오르기도 했었다.

참고 비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이젠 이중위앞에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쑥 치솟자 「일태」는 뭇대로 대라는 심정에서 자기의 소속과 군번 그리고 이름을 단숨에 뇌까려버렸다.

그때 「과장님」하고 그때까지도 새초롬히 돌아서 등을 보이고있던 이중위가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과장님, 저분은 저와 애길 하느라구 그만 본의 아닌 경례를 한 것같아요. 경례로 따진다면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이중위의 계산과는 달리 뱃과과장앞에서의 이중위의 개입은 큰 오산이었다.

뱃과과장은 얼굴이 더욱 찌푸러지며 한참을 「일태」를 쾀려보더니 가까스로 터질 것같은 노기(怒氣)를 달래며 착 갈아얕은 냉정한 목소리로

「이중위 병실에나 가봐요! 그리고 군데서 하급자를 보고 저분이 다 뭐요!」

하고 이중위를 가볍게 나무랐다.

그런 다음 「일태」를 내놓고,

「조심해!」

하고 쓰아부친 뒤 썩 돌아 서버렸다.

이야기를 마친 뒤 「일태」는 한바닥 덧붙이고 있었다.

「하어튼 말이야, 제급장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그렇게 오만해질 수가 있고 다른 한쪽은 한없이 비굴해질 수가 있다는게 역겨워질 뿐이야」

「그래 과장이 적어간 군번, 성명의 결과는?」

「뻔한거지 뭘 그래?」

과장덕에 흰 바가지 뒤집어 쓰고 일주일간 중노동을 단단히 치렀지.

주로 변소간에서 똥푸는 일이었지.

뻔인줄 알어? 근 한 달 가량 의출급지를 당했었지」

「일태」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이번에 이중위의 동반자로 내가 따라나선걸 알면 아마 몸살날거다」

「일태」와 「정애」는 출장지가 부산이라면서 하루를 쉬고는 다음 날 낮차를 타고

떠났다.

「정애」는 다음 다시 놀러오겠다면 정중히 인사를 했고 「일태」는 대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가짜와 경제학에게 안부 전해라. 특히 가짜에게 이 말은 꼭 전해다오. 자식 콩나물이나 열심히 먹고 키나 좀 커라고 말이야」

二.

「일태」와 「정애」가 다녀간 바로 그 다음 날 「브란드」한테서 편지가 날라들었다. 개포같은 균벌을 목에 걸고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니, 눈알이 빨갛게 보고싶다느니 하고 잔뜩 늘어놓고 있었다.

그런 다음 자기가 공교롭게 배가 고향이 나서 병원신세를 졌더했는데 혹시나 하고 「일태」너석처럼 계란이나 링겔은 고사태놓고서래두 간호장교와 어떻게 좀 친해 보려고 내편에서 먼저 갖은 수작과 친절을 다해보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쌀쌀하고 불친절한 여자들은 처음 보겠더라면서 「일태」 그새긴 후라이를 까도 보통 후라이를 간제 아니라며 「일태」를 매도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소령님」은 같은 중대에서 훈련을 무사히 마친 다음 전방 모 사단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적어놓아었다.

나는 「브란드」의 편지를 읽으며 입가에 흘러 넘치는 웃음은 참을 길이 없었다. 어제같이 「일태」가 벼ठी이 이중위를 대동하고 다녀갔다는 사실도 모른채 지금도 「브란드」는 「일태」가 생판 거짓말을 했었다고 믿고 있을 걸 생각하니 자꾸만 웃음이 뼈어져나오는 것이었다.

三.

주적을 며칠 앞 둔 어느 날 「일태」는 자기가 품고 있던 하나의 과제에서 도피해서 새로운 하나의 과제를 우리들앞에 제시해놓고 말았다.

도망—부대에서의 탈영이 그것이였다.

「일태」가 이중위와 함께 다녀간지 두 달이 채 못되어서였다.

초저녁에 「경제학」이 보너스를 탔다면서 한 잔 안할 수 있겠느냐면서 끄는 통에 「가짜」랑 어울러 <평양집>에서 술판을 벌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태」가 들어선 것이다.

놀란 우리들은 똑같이,

「왜일이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빙긋이 웃고 있는 「일태」를 보고 「가짜」가

「또 휴가야?

새끼 간호장교 덕 단단히 보는데」

하자, 「일태」는 덩덤한 얼굴로,

「그래 휴가다, 영영 휴가다. 「가짜」말대로 간호장교신세 단단히 입는거다」
하고 내뱉었다. 그런 「일태」의 표정은 전에 없이 얼굴이 굳어져있었고 약간은 흐트러진 듯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엉뚱한 짓을 곧잘 하고 다니는 녀석인지라 오늘은 별난 제스처를 다 쓰는구나 여겼을 뿐 달리 신경을 쓰려들지 않았다.

「왜그래? 무슨 언짢은 일이라두 있었나?」

「경제학」이 묻는 말에 「일태」는 대답 대신 엉뚱한 걸 물어왔다.

「당분간 너의 집 신셀 좀 겨야겠다. 펜찮겠지?」

「거야 펜찮지만, 왜 무슨 일이라두 생겼니?」

「일태」는 눈알이 벌정계 핏발이 서있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얼굴의 근육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일태」가 몹써 흥분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증세의 하나였다.

「내 원 애새끼 군대 가서 똥똥다, 똥똥어」

그런 다음 「일태」는 그간의 사정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정애」와의 짧은 출장은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막상 부대로 돼들어갔을 뻔 일은 판판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내과과장은 이증위의 출장동반자로 「일태」가 끼여 들었다는 걸 알아내곤 비위가 이만저만 뒤틀린게 아니었다. 「일태」의 중대에 찾아와서 중대 서무계를 불러다 놓고 「일태」의 출장이 비공식이었음을 따지고 마침내는 중대장에게 고자질을 해서 사태를 묘하게 끌고 나갔다. 그래서 「일태」가 귀대했을 때 중대원들은 마치 「일태」를 금기(禁忌)의 물건을 대하듯이 슬슬 피하는 품이 여간 불쾌한게 아니었다.

사람 좋은 중대장은 「일태」를 불러다놓고 농담조로,

「오일병, 어찌다 그래 간호장교와 그렇게 똥어? 수단끝인데 그래」

하는가 하면,

「그러나 조심해! 배 뒤에 파가운 눈초리가 노려보고 있다는걸 알아야 해!」

노골적으로 벵과과장의 암시를 드러내 보였다.

「이제 오일병이 배가 아팠다간 큰 일이야. 두고 보라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일병만은 배가 풀아 터진대두 배스를 잡지 않을걸」

그뿐이 아니었다. 어찌든 「일태」에게만은 일체의 외출이나 공용이 금지되었다.

참다 못한 「일태」가 중대장을 찾아

「중대장님! 아무리 군대이고 졸병이라 하더라도 이건 부당한 처십니다.

전 최소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닐 자유를 향유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면 중대장은 한마디로,

「이건 군대야!」

하고 일축해버리고 말았다.

그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군대니까, 그리고 사병이니까.

그런데 바로 어저께 아침이었다.

중대장이 「일태」를 중대장실로 불러들인 다음

「안 됐는데 오일병, 자네 오늘 날짜로 전방 수색중대로 진출특명이 났어」

하고 진출명령을 알려줬을 땐 정말 아찔했다. 순간 「일태」의 눈앞엔 안경을 낀 넷과과장이 만족한듯 웃어대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 위로 어렵푸시 「정애」의 청초한 모습이 차라리 한떨기 꽃이 되어 떨리고 있는게 보였을 때 「일태」는 그만 악하고 물음이 터지고 말았다.

슬픔이 분수처럼 가슴 한 복판을 푹푹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는듯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일태」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중대장님」

사람 좋은 중대장은,

「자네자식이 울긴? 하기가 나로서도 의외였어. 그 정도인줄은 몰겠는데」

하고 「일태」의 어깨를 스담아 껴다.

그때 「일태」는 중대장을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다. 울면서 「일태」는 결심한 것이다. 탈영하기로,

그렇다, 탈영. 도망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진 것이다. 그러구 보니 어쩔 이같은 결의(決意)는 「일태」가 군복 들어가는 그날부터 「일태」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태」는 기록카드를 받아쥐고 부대를 나오면서 <없다! 없어! 오일태란 인간은 군대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마는 거다>하고 혼자 큰 소리로 외치며 들고 있던 카드를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만 것이다. 바람을 타고 이리 저리 흩어지는 쪽지들이 어쩐지 자신의 기구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했다.

다음 순간 「일태」는 「정애」를 단 한번이고 만나보고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퇴근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임박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정애」보다는 넷과과장을 먼저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여섯시가 다 되었을 때였다. 다행이도 넷과과장이 혼자서 터벅터벅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는게 눈에 띄었다. 순간 「일태」는 이를 깨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병원으로부터 약 삼백미터쯤이나 떨어졌을 때쯤 해서 「일태」는 「과장님」하고 넷과과장을 불러세웠다.

넷과과장이 뒤돌아 서서 당황할 겨를도 없이 이미 「일태」의 손에 쥐였던 벽돌장은 과장의 얼굴위로 날라간 것이다.

「음!」하고 푹 쓰러지는 과장을 향해 구둣발을 날리려는 찰라, 「일태」의 눈에 까물까물하고 이쪽으로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 헌병이 보였다.

순찰원병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길로 출행량을 쳐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도망병이 된 사유다.

내가 바보짓을 했다고 탓하진 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은 울분을 다스릴 방도가 없었다」

「일태」의 얘길 듣고나니 「일태」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짓을 했을 뿐이라고 여겨졌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남은 문제일 뿐이다.

「헌데 「정애」씨는 어떻게?

무슨 연락이라두 있었나?」

「글쎄 정애때문에 걱정이다. 나의 행동을 이해는 하겠지만 나의 행위의 보복이 정애에게 돌아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플뿐이야」

「그러나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넌 정애씨를 사랑하고 있는건가 아니면 베달대로 일종의 사기하는 심정이니?」

「전번에 같이 출장을 나왔을 때만 해도 어느 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뵈웠지만 지금은 달라.

벋과과장이 정애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학대할수록 정애를 빼껴신 안 되겠단 각오와 결의가 굳어지더군.

또 그럴수록 정애가 못견디게 귀하고 중하게 여겨지더군.

정애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추근릴수록 나에게 기울어질뿐이야.

두고봐! 틀림없이 정애 날 찾으러 올거다. 나는 확신한다」

이래서 그날부터 「일태」는 우리집 식객이 됐고 자신이 도망병이란 사실도 잊은 듯 「일태」는 「가짜」, 「경제학」과 같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어울려 뒷골목 <평양집>에서 진을 쳤고, 어느새 옛날로 되돌아가 한시간이면 오십분은 도맡아놓고, 지절여대는 우리들의 공보실장 행세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일태」는 꼭 구경삼아 군대란벨 갔다가 이제 그 구경에서 신물이 나서 저렇게 표연히 되돌아 온 것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문득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 평론 ▷



동심의 잔치



윤 윤 강

—

동화나 소년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어떤 책을 읽는 것 보
다도 즐겁다. 그것은 동화나 소년 소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써 보고,
그리고, 읽어 본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번에 9편의 동화·소년 소설들을
읽어 보았다. 백화 난만이랄까? 꽃밭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그런 즐거움이
었다.

二.

1. <감나무>

이 작품은 <생각하는 시계> 이후 써가 다루고 있는, <환상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씨의 전작 <나비>의 측면이라는 것을 취이 알 수 있다. 그
것은 작품의 꼬리에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둘째 편>이란 주가 달려 있는 것 아
나라도 이 작품의 도입부에 <어제 저녁엔 어머니와 아들을 나비로 만들어 보았으
니,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을 나무로 만들어 볼까?> 하는 때문으로 알 수 있다.
감나무를 소재로 택한 동기도 <아버지 어깨 위에 새둥 일은 아기가 무동을 타고
있습니다.>와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는>에서 알 수 있다. 몇가지 육점을
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도입부에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을 나무로 만들어 볼까? 감나무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1단 25행~27행에는 <천사는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그릇 생각했나? 감나무를 생각했는데 고욤나무가 왜 일일까?>하고 나온다.
또 3단 6~7행에는 <천사는 과연 그 일사귀를 보고 그것이 감나무 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로 되어 있다. 일사귀만 보고도 감나무인 것을 아는 천사
가 감나무를 만든다는 게 고욤나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릇 생각했나?>

하는 것은 천사로서는 천리의 일일이라고나 할까.

- ② 5단 8행은 <그래서 천사는 다시 지팡이를 막대기 위에 대었습니다.>로 되어 있다. 갑자기 <막대기>가 나온다. 고욤나무에 접을 붙인 감나무 줄기를 <막대기>라고 했는지, 아니면, 접을 붙인 감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세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 바로 앞 때문에 그러한 말이 전연 나오지 않고, 다만 <결에 있는 새끼로 칭칭 동여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 ③ 구성의 <이완감>이다. 5단 24행 <사진틀 속으로 되돌아 온 천사는...>으로 되어 있다.

전제 부분에 <시계가 열 두시를 땡땡 쳤습니다. 사진틀 속의 천사가 꿈틀 꿈틀 살아 났습니다. ...지팡이를 틀유리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푹”하고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로 되어 있으니, 다시 사진틀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어떤 상황 묘사가 있었더라면 구성의 이완감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끝으로 씨가 <환상의 세계>를 다루는데 있어, 우리 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밤 자정이 넘으면 귀신이 나와서 온갖 것을 하다가 칠탕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식의 방법만을 반복한다면, 자칫 잘못 하면 환상의 세계를 다룬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빚을 우려도 있고, 또 씨의 기법이 화석화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여기에 씨의 기법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느냐 생각된다.

2. <초대 전보를 친 항아리>

작가의 작품 쓰는 태도가 어찌면 이렇게도 진지할까?

이 작품은 <달면 먹고, 쓰면 배알는> 열량 세대를 싫어하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구를 조용조용히 차분한 숨씨로 그리고 있다. 필자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 본다.

- ① 도입부 부터 주제가 너무 노출된 흠이 있다.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너무 여러 군데 되풀이되고 있다.

④ A 1단 1행~

<뒤뜰에 놓인 빈 항아리는 새파란 하늘을 찰랑찰랑 넘치도록 담아 보고 싶어 했습니다.>

④ B 1단 22행~24행

<푸른 저 하늘을 담아 보고 싶다. 푸른 하늘만은 내 가슴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겠지.>

④ C 3단 6행~9행

<너희들 마음은 잠시다.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싶다. 좋다고 웃고, 싫다고 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등이다.

② 5단 4행~5행

<빈 항아리의 가슴 가득 파란 하늘을 담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는 사족의 설명인 성질다.

③ 끝부분 5단 10행~11행

㉠ <감사하네요. 잊지 않고 이렇게 축하까지>

㉡ <의로운 밤마다 별님은……>

위 ㉠, ㉡의 …부분은 오직같은 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상 요약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뜻의 말을 너무나 많이 되풀이했기 때문에 작품이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3. <빨간꽃> <가재와 청개구리>

이것들은 스케치다. 본격적인 작품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4. <아파아트>

수필식으로 담담하게 엮어 나갔다.

씨는 요즘 수필쪽을 깊이 파고 들고 있는데, 이리다간 동화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5. <아이와 개구리>

메커니즘의 홍수 속에서 생명을 구하자는(생명의 귀중함을 강조하는)것을, 자동차, 아이, 개구리 등을 등장시켜 그리고 있다. 표현에 좀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다.

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②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③ ~다는 옛말을 아시죠?

④ ~아니고 뭐겠어요?

⑤ ~있읍니다만 글썽요……등.

설의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읽어 나가다 어떤 대문에서는 딱딱 걸리는 데가 더러 있음은(한 작품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게 아닐까?

6. <별들이 하나 둘>

참 오랜 만에 씨의 작품을 대하고 흐뭇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읽혀지는 작품이다.

<소녀의 얼굴이 된 별들이 이윽고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 둘씩 화가 아저씨의 구멍난 가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쓸쓸하던 구멍 하나로 별 하나가 쏙 들어갔습니다. 외롭던 구멍 속으로 또 하나의 별이 성큼 들어갑니다. 외롭던 구멍 속으로 나머지 별 하나가 살풋 들어갑니다. 화가 아저씨의 가슴은 반짝이는 별빛

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는 도미를 장식했다 할 것이다.

7. <등대지기의 딸>

외로운 섬에 있는 등대지기의 딸의 고독한 마음을 별들이 달린다.

마지막 줄에 <별에서 온 편지는 한없이 길었다.>라고 있듯이, 앞으로 더 아름다운 얘기가 전개될 판에, 매수의 제약으로 끊어져 버려 미진한 아쉬움이 없지도 않다. 매수에 구애되지 말고 개작해 봄이 어떨는지?

8. <봄>

인간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동심>이 아닐까? <봄을 모르는 사람으로군>하는 대문도 있지만 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동심으로 돌아가 봄을 즐겨 보는 것이 불로장생의 약이 될지도 모른다.

9. <교문앞 버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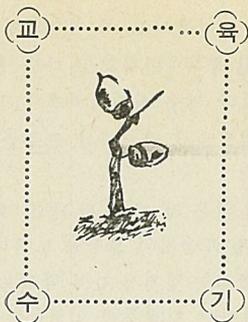
주제가 모호하다. 공해를 주제로 택한 것인지, 아니면, 버드나무가 소의감에 젖어 있다가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 주는 데서 생의 보람을 느낀다는 데 그 주제가 있는지 모호하다. 그리고, 그 어느편이라고 하더라도 개괄적인 서술에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서 짜여지지 않았다.

주제에다가 핀트를 맞추어 중점적으로 묘사했어야 이 작품이 살지 않았을까?

三

이상 9편의 작품을 대충 살펴 보았다. 작품 매수에 제한이 있는(10매내외)만큼 제일 신경이 쓰인 게 구성이 아니었을까? 성장의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리라 믿는다.

아주 세련된 예술이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도덕적 이념(理念)이나 이상(理想)에서 이루어진 것이 못 되고, 오직 그 자체의 만족에만 빠져 버린다면, 그런 예술은 한 개의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



분교장 근무를 회상하면서



강 대 조

〈안동 북후국민학교장〉



참된 교육은 진실한 사랑에서 이루어지며 열성이 왕성한 청년이어야 되겠다는 신념에서 나의 짧은 시절 교사 생활의 한토막 경험담을 변변치 못하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해방 직후이니 벌써 4반세기가 넘는 30년이 가까운 나의 청춘기라기 보다는 장년기였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배우지 못한 실움을 풀어보려는 듯 더 열심히 배워보려고 의욕에 찬 눈빛으로 물려드는 학생들을 볼 때 교육적인 이론이나 기술보다도 그의 의욕을 채워주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음은 그 당시의 실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현재의 화북국민학교가 설립되기 전

북후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교사건물도 없어 도진동창고를 빌려 가마니를 깔고 수업을 할 때다. 학구는 현 화북학구 그대로 오산, 도진 양동으로 아동이 100명 가까이 좁은 창고에서의 수업은 불가능하였다.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 오전 오후 2부제 수업이었다. 1주일씩 교대로 하여 동별로 50명씩 갈라서 오전반 5시간, 오후반 5시간, 하루 10시간씩의 수업이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그 당시의 모든 여건이 불리한 경향도 있었지만 우선 지도 내용으로 택한 것이 정서도야와 인격수양이었다. 우선 인간이된 연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인자성이 없는 아동에게는 교사가 먼저 인사를 하고 인사법을 가르쳤으며 말씨가 험한 아동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씨와 경어비슷한 말로 타일었다. 농촌사회에서 성인들이 무심하게 지껄어대는 욕설과 심지어는 부모에게서도 험한 말만 듣고 생활해 오던 그 아이의 심중에는 느끼는 바가 매우 컸다고 생각되었다.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하는 인사가 등하교시의 부모에 대한 인사로 발전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밤에 잠때의 인사로까지

확대되도록 하였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니 어린마음에 마음껏 뛰놀 운동장도 없이 어두컴컴하고 험소한 교실에서 학습하면서도 매우 기뻐하고 잘 따라 주었다.

10시간의 수업을 마치고는 밤에 문맹자 퇴치를 위하여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다. 20세 가까운 남자, 여자 구별없이 열심히 배워주니 고마웠다. 낮에는 100명아동에게 10시간의 2부제, 수업 밤에는 램프불을 밝혀 정미 2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가 넘는다. 그 당시 성인 교육에 공이 있다하여 도지사님으로부터 표창장도 받았다. 하루하루의 일과는 고되었으나 날마다 달려져 가고, 착해져가는 아동들과 낮에는 집의 일도 피곤할텐데 조금도 피곤의 빛이 없이 한사람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열심히 배워 급진적으로 쉽게 알게되는 것을 볼 때 하루의 고됨도 금방 풀려 버리고 유쾌하고 즐겁기만 하였다. 더우기 나 놀란 것은 지금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지만 학부모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도 모르게 백미 몇가마니와 장작 갈비(솔잎 마른것)술까지 등 연료를 모아준 것이 한가리가 되어 당장에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사양을 하여도 되지 않아 식, 주는 완전히 부형들이 부담해 준 셈이었다. 이런 사실을 보아서도 역시 교육은 열과 성과 사랑이다 라고 다시 다짐했다. 그 당시의 아동이 현 화북국민교의 1회 졸업생들이다. 야학을 배운 처녀들도 지금은 40여세가 되어 나와 같이 늙어가면서도 길거리나 차안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여 줄때 그 당시

의 감회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와진다. 그 후 본교인 북후국민학교로 다시 돌아올때는 이별의 정을 서러워하면서 분에 넘치는 송별회로서 본교장의 근무를 마쳤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수년 뒤 동계 학교에서 또 한 번 교육자의 보람을 느꼈다. 그 당시 동계교는 일제시 간이 학교로 발족했으며 예안면 인계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학구가 동계삼계 동인으로 갈라졌다.

그 당시 동계교 본교장으로서 청송 심씨가 많이 살고 있는 오드래기 동네의 심씨 정자에서 수업했음은 20 리가 넘는 먼데서 오는 도촌 신람 양동네의 1학년 아동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거리를 단축시켜 주기 위함이다. 도촌동은 영양과 접경이며 신람동은 봉화와의 접경으로 그야말로 지대가 높아 하늘 아래의 첫동네라고 한다. 거리가 먼 1학년 아동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분교장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어 내가 희망했다. 그 이유는 혼자서 객지에 와서 자치생활을 할 바에야 어디간들 어떠하겠느냐? 하는 생각과 몇 년 전의 분교장 생활이 다시 그리워지기 때문이었다.

1학년이었지만 14, 15세 가까운 아동도 더러 섞여 있었다. 아동은 50명 가까왔으나 단일학급이었으므로 우선 출가분한 기분이었다. 여기서도 하루 5시간의 수업을 꼭해 주었다. 학부모의 협조는 대단하여 여러번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가지 불편한 점은 비단 오면 한내를 18번이나 건너서 등학교 해야하는 것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 아동의 결석도 없애기 위하여 비가오는

날은 내손으로 아동을 건너 주었다. 비만 오면 아침을 일찍 먹고 15 리 길을 걸어가서 아동과 같이 등교하며 십 수 번의 내를 등에 업어 건너주어 학교에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고 갈 때도 역시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더우거나 더 어려운 일은 더운 여름날에 아이들이 두통 복통 마라리아(학질)에 걸려 신음할 때는 어쩔수 없이 아이를 업고 하늘 아래 첫동네라는 신림동 까지 20여리의 오르막 산길을 가고나면 옷은 땀에 젖어 소낙비를 만난듯한 일이 여러 수십 번이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모로서는 각자 자기의 귀여운 아들딸들이고 나 자신의 생각에도 장차 이 나라의 보배요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들이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 가르쳤다.

지금도 더러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60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지난날 내가 하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때의 일이 회상되곤 한다.

이제는 나이 벌써 60에 모교의 교장 학교 교장의 자리에 있으니 사랑의 정은 1100여 명 아동 전부와 지역에까지 미치도록 해야겠는데 갈수록 할일이 많

아지는듯하다. 교육의 근본 요소인 학력향상과 체력향상, 45여년의 지난 남은교사의 개척, 기타 시설 확충등 담임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일들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비록 타학교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앞서지는 못할망정 뒤지고 싶지는 않아 지난날 분교장의 근무정신 자세 보다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해 보건만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것이 더딘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본교에 재직하고 있을 동안 우선 급한 것이 도서실을 확충하여 아동 실력을 향상시킬 것과 자료실을 확충하여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계기구및 시청각기구를 많이 구입하여 아동에게 탐구하는 과학정신을 길러야겠고 기초기능 수련장을 마련하고 목공구를 비롯하여 각종 연모 구입과 실험과작 교육의 중점실시로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시켜야겠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동창회 운영으로 모교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초 목표액 100만원만 모금되면 나의 생자되로 될 것같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본교 발전을 기원하는 동창생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원조를 바라면서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나의 젊은 시절의 경험 실천기를 끝맺고자 한다.

〈수 상〉



교과 담임제가 시행되기를

.....◎ ◎ ◎.....

이 동 우

(백운국민교 교사)

오늘날 교직의 전문성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비상사태하에 있는 지금의 장학방침의 한 항목에도 끼여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교직이 전문화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여 학급담임제가 하루속히 교과 담임제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2년전 가정실습중에 학교에서 혼자 일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에 계시지만 G장학사님이 도장학사님을 모시고 골짜까지 들어오셨다. 학교를 빙 둘러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얘기끝에 질문을 하신다. “선생님, 이 꽃이름이 뭘이겠습니까?” 하는데 모르는 것이라 우선 엉뚱한 대답을 해 버렸다. “그럼 이것은?” 하고 또 물으시는데 순간 “뭘가지 모르는 꽃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묻지도 않는 것을 가리키며 “저쭈 저기 장미아닙니까?”하며 걸연쩍어 웃었더니 “그러마 이 선생님도 1점입니다!” 하시며 “2년전에 지금 아무 선생님도 1점을 맞았는데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점수를 좀 올리시소”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돌리어 “정말 남들은 모든 면에 다 잘 알고 교사

직에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 무턱대고 새교실 잡지를 하나 꺼내어 볼 때 “집집마다 양봉을 분봉시켜 농가수익을 올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인간상록수 ○○○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과학전사회 교육자로 전시회의 각종 출품작들이 사진화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호우프 여교사 란인데 “여교사이면서도 남교사를 능가하는 기계 체조 유단자, 해마다 열리는 체육대회 기계체조 부문에서 교사가 지도한 어린이가 모두 석권하여 남교사들을 어리둥절케 한다”고 써여있다. 또 넘겨보면 좀 진하고 굵은 체로 “오늘날 모든 교직자들은 남아 빠진 기성지식의 전달자로서만 그칠 수는 없다. 자신과 그 제자들 앞에 찬연한 진리의 빛을 제시하도록 몸소 행동하는 용기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비록 이것만이 아니다. 아무 책이나 한권만 빼 보아도 이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특기를 가진 교사가 있다. 동생이 다니는 대구 ○○국민학교에 세종 ○○상을 받은 이름있는 교사가 있고 음악과에 연주를 많이한 ○○교사가 있다. 또 같이 있을 때 연구주임으로 있던 친구

교사도 있다. 평소 수업을 본절도 있다. 그분들의 학습지도법은 내 동생이기에 물론 즉, 타 교과에 가서는 그렇게 잘하는(모범수업)교사가 아님을 안다. 나도 못하는 축에 들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분들을 닮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사람이면 어떤 한가지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취미에 맞는 것은 역시 자기가 자주 접촉한다. 그러므로써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 자신을 갖게 된다. 중등학교 준교사 시험장을 둘러본 결과 동기들도 선배들도 많았고 한 학교에서 같이 했던 동료들도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국민학교 교사가 기회만 있으면 또는 준다면 중등학교로 가고 싶어 한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취미에 맞는 자신이 있는 과목만을 맡아 좀더 수월하기도 하겠는데 그 보다 정열을 한 곳에 쏟을 수도 있고 더 창조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싶고 해서 이런 좋은 점을 지향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국민학교에서도 교과 담임제가 시도되어야겠다고

절실히 느껴진다. 서울 시내 일부 부속 국민학교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 실시하고 있다 하고 연구문헌에도 여러사람이 조사 연구한 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의뢰지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이 글을 쓰게한다. 어떤 교사가 6학년 담임을 처음한다. 교과서를 미리 안 보면 막힌다는 것이다. 또 어떤 교사는 전과를 펴놓고 아동 몰래 가르치기도 한다. 이것을 교재 연구라고 할 수 있는가? 수업의 흐름 학습형태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참된 교재연구라고 보는 나에겐 모르는 것을 의워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재연구라고 보고싶지 않다. 그 교사 역시 특기가 있는데 그 교과에 대해선 그렇게 교재연구를 하지 않아도, 뜨물만 마셔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할 때 자기 전공을 찾아야겠지 않은가? 끝맺는 말로 즐기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문화되어가고 교직에 전문성이 없어 문교부에서도 교육감도 교육장도 '교직의 전문성 제고'운운할 때 두가지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주장이 옳을 것 같아 혼자 생각하니 내 힘으로 무엇이 이룬 듯 잠이 온다.

우 량 도 서 추 천

경상북도 교위 우량도서 선정 위원회

자립에의 의지, —박정희 대통령 어록—

심용택 편, 한림출판사, 1972,

p.487, 24cm, 1,800원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조국애와 겨레를 아끼는 자애로운 민족애에 살아온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봉사로 위대한 오늘의 우리 세대와 내일의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많은 연설가운데 각 분야별로 발췌하여 편집한 어록으로, 국민은 누구나 필독을 요하는 양서이다.

민족의 별 —이 순신 장군의 일화—

오 문집 지음, 교학사, 1972,

p.471, 21cm, 600원

충무공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 받아 오늘에 되살리고 위대한 역사적 교훈을 오늘에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그 생애와 행적을 적은 전기문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

이 일화집은 충무공의 행적을 하나 하나 주제로 삼았으며 짙막한 이야기 64편 속에 충무공의 성품과 정신을 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국민학교 3학년 이상 아동으로부터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필독서이다.

문공부 장관 추천사도 서두에 있다.

성웅 이 순신

이 은상 지음. 민족문화협회 햇불사.

1972, p.378. 19cm, 600원

54년 동안의 일생을 통하여 충성과 용기, 바름과 밝음, 지극한 의리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민족의 큰 이상을 구현한 충무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된 양서로서 제 1 부에는 공의 약전술, 제 2 부에는 공의 사상술, 제 3 부에는 공 자신의 시와 글과 장계와 난중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들을 실어 놓았다.

국민 윤리

박 종홍저, 삼화출판사.

1972, p.338. 21cm. 1,000원

현대의 우리가 당면한 벽차고 엄숙한 역사의 도전을 극복하고 민족중흥의 과업을 이룩하기에 충분한 국민성격 형성 지침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자각을 일깨우며 올바른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을 세우는데 또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있어 이기는 두절 한 소신을 심어주므로 누구나 읽어야 할 양서이다.

현대인 교양 선집

독서신문사편, 독서신문사.

1971. 19cm. 4000원

독서신문에 게재되었던 명편만을 뽑아 사제 권위 필진의 보완을 거쳐 엄선한 현대인의 필독의 교양도서이다.

- 생각하는 생활
- 나의 인생론
- 한국의 명문
- 한국고전에의 초대
- 현대를 가는 인물
- 20세기 학문, 사상
- 세계의 젊은 세대
- 세계 인물들의 어록선

초, 중, 고

학교극 전서

하 유상저, 성문각, 1972. p.750. 21cm. 3000원

학교극 전반에 걸친 지침서와 학교극 본서집까지 결들인 그야말로 학교극의 전서가 되는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국본은 국민학교 아동극 범위에서 벗어나 중, 고등 학교까지 대상으로 삼아 학교도서관에 권유의 도서다.

편 집 후 기

- 전호에 이어 “안보교육 체제 강화”와 “향토학교 건설과 교육의 사회화”에 관한 것을 특집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아 그 필요성을 결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육 실천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앞으로도 “안보교육”과 “향토학교 건설과 교육의 사회화”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작정입니다. 모쪼록 알찬 글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에 관한 실천기를 환영합니다.
- 일선 교사의 수기가 아쉽습니다. 크든 작든간에, 알찬 교사의 수기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교육동지들에게 자각이 되고 본보기가 될만한 교육실천을 담은 글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

1972년 9월 25일 인 쇄
1972년 9월 29일 발 행

문 교 경 북 (제 36호)

발행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 김 주 만
주 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백 의 석
인 쇄 경 북 인 쇄 소

제 5 회 도내 교원 실기대회



〈8.8. 대구 명덕국민학교 강당에서〉

원 고 모 집

본지를 여러분들과 한결 밀접한 것으로 엮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선 교사 및 장학사님들의 원고를 널리 모집하고 있어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교육논문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
2. 교육실천기 (")
3.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기(")
4. 교육문예
 - 소 설 (200자 원고지 50매 이내)
 - 동 화 (" 30매 이내)
 - 시(동시)
 - 수 필 (" 15매 정도)

※ 관계 사진이나 도표가 있으면 동봉할 것.

※ 원고는 원고지에 국문으로 횡서할 것.

※ 기 간 : 매월 10일 이내

※ 송 부 처 : 대구시 산격동 94의1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내

“문교 경북” 편집실